

석사학위논문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 오케레코드 사장 이철을 중심으로 -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한 국 학 대 학 원

인문정보학전공 : 김 광 우

일 제 강 점 기 대 중 예 술 활 동 의 디 지 털 큐 레 이 션 모 델 연 구 2 0 2 0 김 광 우

석사학위논문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 오케레코드 사장 이철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전공 : 김광우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 오케레코드 사장 이철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 11. 3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전공 : 김광우

이 논문을 김광우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목 차

국문초록	viii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배경	1
2. 선행 연구 및 과제	3
1)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	5
2) 한국유성기음반 검색시스템	6
3)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	8
3. 연구방법 및 대상	10
1) 연구방법	11
2) 연구대상	13
II. 일제강점기 음반산업과 대중예술인	16
1. 일제강점기 음반산업	16
2. 이철과 오케레코드	18
1) 이철	18
2) 오케레코드	22
III. 디지털 큐레이션 주제 및 대상자원	25
1. 이철의 생애와 환경	25
2. 오케레코드 설립과 음반제작	27
3. 일제강점기의 대중예술 활동	30

IV. 데이터 모델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현	36
1. 클래스 및 속성 설계	37
1) 행위자(Actor)	39
2) 사건(Event)	41
3) 공간(Place)	42
4) 시간(Time)	43
5) 기록물(Record)	44
6) 음악(Music)	45
7) 개념(Concept)	46
8) 웹 자원(webResource)	47
2. 관계성 설계	48
1) 행위자 - 행위자 관계(Actor - Actor)	48
2) 행위자 - 사건 관계(Actor - Event)	51
3) 행위자 - 공간, 시간 관계(Actor - Place, Time)	51
4) 행위자 - 기록물 관계(Actor - Record)	51
5) 행위자 - 음악 관계(Actor - Music)	52
6) 행위자 - 개념 관계(Actor - Concept)	52
7) 행위자 - 웹 자원 관계(Actor - webResource)	52
8) 개념 - 행위자, 개념, 사건, 음악 관계(Concept - Actor, Concept, Event, Music)	53
9) 사건 - 기타 클래스 관계(Event - Actor, Event, Place, Time, Record, Music, Concept, webResource)	53
10) 음악 - 기타 클래스 관계(Music - Music, Time, webResource)	54

11) 기록물 - 각 클래스 관계	54
12) 웹 자원 - 기록물 관계	55
3. 데이터베이스 구현	55
V. “이철과 오케레코드” 디지털 스토리텔링	58
1. 이억길 사건	58
2. 오케레코드 설립	64
3.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	75
4. 조선악극단 운영	83
5. 군국가요 제작	93
VI. 결론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15

표 목 차

표 I-1.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 관련 기초자료 현황	13
표 I-2. 오케레코드 발행 유성기음반 현황	14
표 III-1. 이억길 사건 대상자원 분류	26
표 III-2. 이억길 사건 관련 데이터 예시	26
표 III-3. 오케레코드 설립에 관한 대상자원 분류	27
표 III-4. 오케레코드 설립 관련 데이터 예시	28
표 III-5. 조선어교육 레코드 제작에 관한 대상자원 분류	29
표 III-6. 조선어교육 레코드 관련 데이터 예시	29
표 III-7. 조선악극단 운영에 관한 대상자원 분류	31
표 III-8. 조선악극단 관련 데이터 예시	32
표 III-9. 일제 협력행위에 관한 대상자원 분류	33
표 III-10. 일제 협력행위 관련 데이터 예시	34
표 IV-1. 클래스 설계표	37
표 IV-2. 공간 클래스의 속성 예시	38
표 IV-3. 행위자 클래스 설계 명세표	39
표 IV-4. 인물 클래스의 속성	40
표 IV-5. 단체 클래스의 속성	41
표 IV-6. 사건 클래스의 설계 명세표	41
표 IV-7. 사건 클래스의 속성	42
표 IV-8. 공간 클래스 설계 명세표	42

표 IV-9. 공간 클래스의 속성	42
표 IV-10. 시간 클래스 설계 명세표	43
표 IV-11. 시간 클래스의 속성	43
표 IV-12. 기록물 클래스 설계 명세표	44
표 IV-13. 문헌 클래스의 속성	44
표 IV-14. 시청각 클래스의 속성	44
표 IV-15. 음악 클래스 설계 명세표	45
표 IV-16. 음악 클래스의 속성	46
표 IV-17. 개념 클래스 설계 명세표	46
표 IV-18. 개념 클래스의 속성	47
표 IV-19. 웹 자원 클래스 설계 명세표	47
표 IV-20. 웹 자원 클래스의 속성	48
표 IV-21. 관계어 명세표	49
표 IV-22. 행위자 - 행위자 관계성	50
표 IV-23. 행위자 - 사건 관계성	51
표 IV-24. 행위자 - 기록물 관계성	52
표 IV-25. 행위자 - 개념 관계성	52
표 IV-26. 행위자 - 웹 자원 관계성	53
표 IV-27. 사건 - 각 클래스 관계성	53
표 IV-28. 기록물 - 각 클래스 관계성	54
표 IV-29. 노드 데이터 분석 대상자원	57
표 V-1. <이억길 사건> 인물 관계표	60

표 V-2. 카시오 케이조 활동표	71
표 V-3.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 인물 관계표	78
표 V-4. 오케레코드 발행 주요 군국가요	98
표 V-5.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 지식 요소의 예시	102

그림 목 차

그림 I-1.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 대문 페이지	5
그림 I-2. 한국유성기음반 검색시스템 대문 페이지	7
그림 I-3.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 대문 페이지	9
그림 I-4. 마크업 구현 비교	10
그림 I-5.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11
그림 III-1. 이철의 연희전문 학적부	35
그림 III-2. 이철의 가족사진(1934년)	35
그림 IV-1.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 개요도 및 사건 예시	36
그림 IV-2. 조선악극단 제1회 일본 순회공연	39
그림 IV-3. RDF 그래프	48
그림 IV-4.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순서도	56
그림 IV-5.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56
그림 V-1. <이억길 사건> 디지털 큐레이션	58
그림 V-2. <이억길 사건> 인물 관계망	61
그림 V-3. 안동교회하기아동성경학교(1926.8.19.)	63
그림 V-4. 안동교회유년주일학교(1930.5.4.)	63
그림 V-5. <오케레코드 설립> 디지털 큐레이션	64
그림 V-6. 카시오 케이조와 <오케레코드> 관계망	68
그림 V-7. 일본 오케 음반	73
그림 V-8. 대만 오케 음반	73

그림 V-9. 한국 오케 음반	73
그림 V-10. 오케레코드 사무실	74
그림 V-11. 현영운과 비서	74
그림 V-12. <오케 조선어교육 레코드> 디지털 큐레이션	75
그림 V-13. 이윤재 관계망	79
그림 V-14. 조선어교육레코드 광고	82
그림 V-15. 조선어 교육 레코드 취입 제작의 경과	82
그림 V-16. <조선악극단> 디지털 큐레이션	83
그림 V-17. <조선악극단>의 성립과정 관계망	84
그림 V-18. 조선악극단 나고야공연 전단지	92
그림 V-19. <思ひつき夫人> 영화출연 후 기념촬영	92
그림 V-20. <군국가요 제작> 디지털 큐레이션	93
그림 V-21. <군국가요 제작> 관계망	95
그림 V-22. 미나미 지로와 이철	99
그림 V-23. <충후국민훈> 가사지	99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 오케레코드 사장 이철을 중심으로 -

김광우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의 대중예술 활동을 다각적으로 조망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당대의 대표적인 대중예술인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다양한 예술 활동과 작품, 사회적 배경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관한 지식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한다.

이철(李哲, 1903~1944)은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흥행 사업가이다. 1944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기에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은 12년에 불과했지만, 당대의 누구보다 큰 성공을 경험했고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철의 인적 교유는 학교와 교회, 예술계 등 광범하게 진행되었기에 이를 온톨로지 설계에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방적 환경에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주요한 사건과 인적 교유는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탐구주제이면서 일반인의 관심 또한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잘못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결과가 마치 사실처럼 인용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올바른 교훈과 발전적인 극복의 방안을 얻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중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래스를 구성하는 각 데이터의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웹 자원을 제시했다. 기존의 웹 자원이 빈약할 때는 수집된 자료를 새로운 웹 자원으로 구성해서 공개했다. 온톨로지 설계는 이철의

생애에서 주요한 변곡점이 되는 다섯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 맥락을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섯 가지 주요사건은 <이억길 사건>, <오케레코드 설립>, <조선어교육 레코드 제작>, <조선악극단 운영>, <군국가요 제작>이며, 각 사건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상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철과 주변 인물들의 복합적인 관계망을 하나의 틀 안에 구성하는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델은 일제강점기와 대중예술인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각 인물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 향후 일제강점기를 주제로 하는 관련 연구자의 협업을 통해 점차 영역이 확장될 것이며, 산업적으로 유용한 콘텐츠의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이철, 오케레코드, 이억길사건, 조선어교육레코드, 조선악극단, 군국가요, 일제강점기, 대중예술인, 온톨로지, 디지털 큐레이션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의 대중예술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당대의 대표적인 흥행사 이철(李哲, 1903~1944)의 활동을 표본으로 삼아, 시맨틱 데이터베이스¹⁾의 시각화를 통한 디지털 큐레이션²⁾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근대의 기록 매체인 유성기음반이 디지털기술에 의해 복원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³⁾ 문헌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당대의 감성을 유성기음반은 생생하게 재현하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유성기음반과 당대의 대중예술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전통음악과 국문학 분야에 집중되었고,⁵⁾ 상대적으로 대중음악 분야는 미진했다. 연구자의 수가 부족한

- 1) 데이터베이스란 “다수의 응용시스템이 사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편성,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이며, 데이터들이 “의미적으로 유관하게 연결”된 것을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라 한다. 곧 “다수의 응용시스템이 사용하기 위한 시맨틱 데이터의 집합”이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다. 김현·임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147~190쪽; 김현, 「인문정보데이터베이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수업자료(2017) 참조, <https://onedrive.live.com/?authkey=%21AKxpiltYAIVGtMQ&cid=B299B775C5A7E723&id=B299B775C5A7E723%212254&parId=B299B775C5A7E723%212252&o=OneUp>
- 2) 알렉스 풀(Alex H. Poole.)에 의하면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정보를 목적에 맞추어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방향성을 가진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김지명,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126쪽 재인용; Alex H. Poole. “Forging Our Cultural Commonwealth : the importance of Digital Curation in the Digital Humanities”,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 2015.10. 17쪽 참조
- 3) 신나라레코드는 <관소리 5명창>(음반번호 SEL-RO 595, 성음/신나라)을 발매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관소리와 민요, 대중가요를 망라하여 총 110여 장의 CD 음반을 발매했다. 1993년부터는 서울음반에서 유성기음반의 원반을 이용한 복원 음반을 발행했고, 1995년 이후로 LG미디어에서도 콜럼비아 원반의 복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대 이후로는 동호회 중심으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업용으로 제작되진 않았지만 옛가요사랑 모임 ‘유정천리’에서 50장 이상의 CD가 복원되었다.
- 4) 특히 전통음악의 경우 유성기음반은 당대의 음악적 특징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라진 전통문화의 원형으로 소환되면서 드물지 않게 복원연주가 시도되고 있다.
- 5) 유성기음반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석지훈, 「1930년대 조선악의 근대적 기획과 보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7쪽 참조

탓도 있겠지만, 이미 유행이 지나간 대중음악에 관한 낮은 관심 또한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오히려 영화와 드라마를 생산하는 산업계에서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에 관한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⁶⁾ 영화 자체의 주제보다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역사성이 관객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아픈 상처이고, 진행 중인 현재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점을 찾고자 한다. 상처를 드러내야 치유할 방법을 찾을 수 있듯이, 당대의 자료에 대한 공유와 소통은 존재했던 사실의 올바른 평가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자료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각각 분산되어 있고, 대학과 기업의 유용한 정보는 폐쇄적이다. 어렵게 접근하더라도 시스템의 운용방식이 이용자에게 불편하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맨틱 데이터 설계를 통해 연관된 스토리를 이용자가 흥미롭게 쫓아갈 수 있는 디지털 큐레이션을 제안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운영되던 음반회사는 대부분 일본의 자본이 지배하는 제국의 질서 아래 있었지만, 한편으론 한국인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예술인의 발굴과 음반의 기획 등을 한국인 문예부장에게 일임했기 때문이다.⁷⁾ 한국인 문예부장들은 1930년대에 민족적인 성향의 음반을 기획하기도 했으나,⁸⁾ 1930년대 후반 이후에 검열과

6) 「일제강점기 영화 ‘흥행 참패 징크스’ 쫓까」 한겨레신문, 2015년 7월 22일 자 참조,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701454.html>

7) 야마우치는 이를 제국 질서에 의한 경제적 편입으로 보며, 원반권의 장악에 의한 구조적인 무관심으로 해석했다. 원반권의 장악은 음반의 생산과 복제를 통해 이윤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판매시장의 속성을 잘 아는 한국인이 기획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제국질서와 미시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203~224쪽 참조

8) 석지훈은 이 시기의 한국인 문예부장은 민족주의 및 민족문화의 핵심적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 보급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구 지향적인 개량론적 부르주아 민족주의 입장에서 조선악을 기획했다고 해석했다. 석지훈, 석사학위 논문, 2017. 28~47쪽 참조

통제가 강화되면서 대부분 일제에 협력하게 된다.

이철은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대중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개척하던 흥행사였고, 반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의 모순을 안고 있었던 체제의 협력자였다.

이철이 운영했던 오케레코드는 타 회사보다 늦은 시기에 사업을 개시했으나, 대중의 취향에 맞는 참신한 기획과 인기가수의 스카우트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단기간에 음반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새로운 형식의 유행가를 선도했고 민족의 전통을 보존하는 음반제작에도 의욕적이었다. 하지만 이철은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일제에 협력하는 길을 택한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음악, 무용 분야의 대중음악가는 총 18명이며, 이 중에서 흥행사업가는 이철이 유일하게 포함되었다.⁹⁾

본 연구는 이철 개인의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에 관한 결론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당대 대중예술 활동의 가장 중심에 있던 한 인물의 조망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

2. 선행 연구 및 과제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과 당대의 대중예술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었다.¹¹⁾ 초기에는 문헌연구를 통한 논문 활동에 집중되었지만, 인터넷이 정착된 2000년대 이후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는 간략하게 개요를 살피고,

9)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에는 대중음악가 18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165명이 수록되었다. 이철은 ‘조선연예협회’의 회장으로 일제의 전쟁에 협력한 이력이 있다.

10) 디지털 인문학은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다. 하나의 사실에 대한 유관 데이터의 집합은 분야가 다른 관련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공동창조(co-creation)를 지향한다. 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에 대한 글은 홍정욱, 「디지털기술 전환 시대의 인문학-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을 통한 고찰」 『인문콘텐츠』 38, 인문콘텐츠학회, 2015. 참조

11) 유성기음반 동호인을 중심으로 1989년에 결성된 ‘한국고음반연구회’는 1991년부터 학술지 『한국음반학』을 발행하고 있다. ‘한국고음반연구회’에 관한 정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웹페이지 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2515>

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상당한 연구 결과를 산출하였으나, 전통음악 분야와 국문학 분야에 집중되었다.¹²⁾ 2019년에는 배연형에 의해서 지난 30년간의 일제강점기의 유성기음반 연구가 집대성되었다.¹³⁾ 대중음악 분야의 연구로는 주관적인 시선이 개입된 업계 종사자의 구술이나 에세이류를 제외하면, 1989년에 발표된 박찬호의 『한국 가요사』가 그 시초로 평가되고 있다.¹⁴⁾ 2000년 이후로는 신진 연구자의 등장으로 일제강점기 음반산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⁵⁾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을 주제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는 세 가지의 주목되는 성과가 보인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¹⁶⁾, 배연형의 책임연구로 진행된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

-
- 12) 석지훈은 그동안의 유성기음반에 관한 연구는 음악적 분석에 치중하거나 ‘식민지 근대성’ 혹은 ‘이식·번역된 근대’로서의 유행가 및 대중희곡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석지훈, 석사학위 논문, 2017. 7쪽 각주 28, 29) 참조
 - 13) 배연형은 1989년부터 ‘한국고음반연구회’를 결성하여 유성기음반을 본격적으로 탐구하였으며, 그동안 발표한 논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유성기음반 문화사』(지성사, 2019)를 출판했다. 그러나 스스로 고백했듯이 판소리 연구자로서 전통음악 분야에 집중했기에 미진한 대중음악 분야는 후배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겼다.
 - 14) 재일한국인인 박찬호가 1987년에 일본어로 출판한 『韓國歌謠史』는 『이 한 장의 명반』 시리즈를 집필한 청주대 교수 안동립의 번역으로 1992년에 한국에 소개됐다. 『한국가요사』의 번역출판은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에 관한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된다. 이 책은 1992년 이후 두 번의 개정판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출판되었다. 朴燦鎬, 『韓國歌謠史』, 東京: 晶文社, 1987; 박찬호·안동립 옮김, 『한국가요사』, 현암사, 1992; 박찬호·안동립 옮김,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朴燦鎬, 『韓國歌謠史』, 東京: 邑樂舎, 2018
 - 15) 야마우치 후미타카(山内文登)와 이준희의 연구가 주목된다. 야마우치는 일본인으로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을 주제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준희는 일제강점기 대중음악에 관한 전방위적인 연구로 활발하게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야마우치, 『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역사적 고찰 : 구한말·일제강점기 창가와 유행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대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제국질서와 미시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이준희,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이준희, 「일제시대 군국가요(軍國歌謠) 연구」 『한국문화』 4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이준희, 「‘대중가요’ 아리랑의 1945년 이전 동아시아 전과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6,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10; 이준희, 「1945년 이전 일본 대중가요 음반에 나타난 조선인의 활동」 『대중음악』 7, 한국대중음악학회, 2011
 - 16) 2009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였으며 콘텐츠 전반에 관한 실무는 김광우와 이준희가 담당하였다.

연구단의 ‘한국유성기음반 검색시스템’¹⁷⁾, 그리고 최귀목의 책임연구로 진행된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¹⁸⁾이다.

1)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은 광복 이전에 발행된 오케레코드 관련 인물과 음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이미지와 동영상, 오디오, 텍스트를 포함해 4,202건의 콘텐츠로 구성했다.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 연관목차보기 ▾



개요

20세기 초반의 대중음악태동기에 국내 최고의 흥행단체인 '조선악극단'과 '오케레코드'를 중심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대중예술인들의 삶과 작품을 재현하여 한국어와 일본어로 구성하였습니다.

과제소개

20세기 초반은 일제시기이면서 근대문명이 활발하게 유입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음반회사가 일본의 주도로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중음악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유일하게 '오케레코드'만이 한국인 사장이 이철의 주도로 설립되고 고복수, 이난영, 남인수, 김정구, 박항림, 이화자, 장세장, 학년섭 등의 불멸의 스타가 나타납니다. 오케레코드는 단순히 국내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악극단'을 조직하여 중국, 일본 등 활발한 해외활동을 벌여 한류의 시초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내는 물론 일본현지에서 다양한 시간과 영상, 음원 등 풍부한 자료를 발굴하여 재현하였으며 출판, 드라마, 뮤지컬 등의 향락소재로 활용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획의도

일제강점기에 등장했던 레코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중 음악문화는 조상들의 숨결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전주대학교와 엔터쇼, 다우기술이 손을 잡고 이 소중한 문화적 자산들을 디지털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의 숨결과 조상들의 숨결이 맞닿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제작기관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락처 : 063-220-3190

그림 I-1.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 대문 페이지

2009년에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으로 개발된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은 충실한 고증과 풍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오케

- 17)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두 차례로 진행된 사업이다. ‘한국 유성기음반 관련 자료수집·정리와 DB구축 연구’(2006~2007), ‘한국 유성기음반 해제와 정보 웹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2008~2011), <http://www.sparchive.co.kr/v2/index.php>
- 18)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으로 3년간 진행된 사업이다. ‘형성기 근대 대중가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2014~2017),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12>

레코드와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출처는 대부분 이 사업에서도 출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애초부터 이용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콘텐츠 이용방식을 유료서비스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10여 년의 사업성으로 22만 건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했다. 전통문화에서 창작의 아이디어를 찾는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를 통한 접근성의 개선으로 일반 이용자의 활용도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안하는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선언과는 달리 유료서비스라는 장벽으로 인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방해받고 있다.¹⁹⁾ 비교적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범위는 웹상에 표현된 텍스트 정보이고, 나머지 멀티미디어 정보는 유료 서비스로 구성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

2) 한국유성기음반 검색시스템

‘한국유성기음반 검색시스템’은 광복 이전에 발행된 전체 유성기음반을 대상으로 방대한 자료를 목록화 했으며, 수록 작품의 유형별 분류와 관련 문헌 정보를 망라한 종합정보 시스템이다.²⁰⁾ 총 12,615면의 유성기음반을 분석했으며 이미지와 음향자료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19) 문화콘텐츠닷컴에 표현된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우수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원형을 발굴하고 현대적 기술로 복원, 미래 가치의 마중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는 애니메이션·만화·음악·공연·게임·영화·방송 등 다양한 영역의 창의성과 기술을 통해 제작되어 누구나 쉽게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 되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http://www.culturecontent.com/html/htmlPage.do?page=info/business.html> 참조

20) 문헌 정보는 음반의 라벨(label)과 신문광고, 음반회사에서 발행한 가사지(歌詞紙)를 중심으로 하며 문헌 정보와 관련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음향자료는 일부 자료에 한정해서 유성기음반에서 추출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I-2. 한국유성기음반 검색시스템 대문 페이지

이 시스템의 기초자료 수집방식은 실물자료를 우선했고 실물자료가 없으면 신문광고 등의 문헌 자료에 의존했으며,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울 때는 추정하여 음반 번호를 부여했다.²¹⁾ 충실한 기초자료의 목록화로 당대 유성기 음반 자료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밝혔다. 그러나 몇 가지 개선점도 발견할 수 있다. 기초자료의 입력은 충실했으나 검증이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신문광고를 참조한 경우에는 인명의 한자 오독²²⁾과 음반의 수록 작품이 중복²³⁾되어 기록되기도 한다. 시스템의 활용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체계적으로 분류된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정보의 단순

- 21) 가령 1번과 10번의 음반이 확인되었다면 그 중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9번 자료를 가정하여, ‘한국유성기음반검색시스템’에서는 자료 미발견으로 인한 추정 음반의 수량을 537면으로 기록하고 있다.
- 22) 신불출(申不出, 1907~1969)의 예처럼 이름의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채 신불출과 신부출로 정리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 23) 시에론레코드에서 1933년에 제12회 신보로 발매된 <범벅타령>(이진봉, 음반번호 127, 1933년)은 실물음반이 없어 신문광고를 참조해 정리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면의 정보가 광고에는 기록되지 않아 A면과 B면을 모두 같은 곡으로 정리했으며 이런 예는 다수가 발견되고 있다.

나열 방식을 취하고 있어 연관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가령 판소리 고수이자 무용가인 한성준(韓成俊, 1875~1941)을 검색했을 때 한성준이 참여한 음반은 판소리, 창극 등 유형별로 어떤 곡이 있으며 기획자의 역할을 한 음반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관계와 사승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색어는 띄어쓰기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더구나 IE²⁴⁾ 환경을 기본으로 설계되었기에 크롬 등 기타 웹브라우저와 호환성이 없는 점도 커다란 불편이다. 이 시스템이 전통음악에 중점을 두고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예명(藝名)을 여럿 사용하는 대중음악 관련 인물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동명이인이 많은 여성 명창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3)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는 19세기부터 일제강점기인 1945년까지 발행된 문헌 300여 종과 유성기음반 450여 종에 수록된 11,066건의 작품을 수집해서 가사 및 기본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 전환기 대중가요의 3대 갈래인 잡가, 창가, 신민요를 집대성함으로써 대중가요가 지닌 미학적 특성과 문화적 위상을 입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²⁵⁾ 더불어 이 DB 아카이브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25)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 연구과제 소개, http://waks.aks.ac.kr/rsh/dir/rwork_view.aspx?rshID=AKS-2014-KFR-1230012&activRshID=AKS-2014-KFR-1230012



그림 I-3.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 대문 페이지

이 연구는 대중가요의 본질적인 특성이 음악이라는 것을 간과하거나 과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음악을 너무 텍스트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가요의 3대 갈래를 잡가와 창가, 신민요로 규정하는 것이 학계의 공통견해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각각의 분류기준을 보면 텍스트에 의존한 결과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신민요는 유성기음반으로 발표된 곡 중에서 곡종(曲種)을 신민요로 표기한 작품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연형은 신민요를 ‘창작자가 있으나 전통음악 명창들이 부른 것’으로 정의하며, 음반에 신민요로 표기했다라도 대중가수가 부른 것은 대중민요로 분류했다.²⁶⁾

한편 이 연구의 차별성 가운데 하나로 텍스트의 마크업 언어 구현을 들고

26) 배연형의 정의에 따르면 “전통 민요나 민요 어법으로 창작된 가요를 대중가요 가수들이 부르는 것”을 대중민요라 했다. 이에 따르면 음반에 곡종이 신민요로 표기됐더라도 대중민요에 해당하는 곡이 많으며,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에서 분류한 신민요는 대부분 대중민요에 해당한다. 배연형은 광복 이전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신민요와 대중민요의 수량을 각각 239곡과 678곡으로 분류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배연형, 앞의 책, 지성사, 2009. 655~657쪽 참조

있다. 개발방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웹상에 나타나는 설계방식으로 살펴보면 문중요소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로서의 활용에 제약이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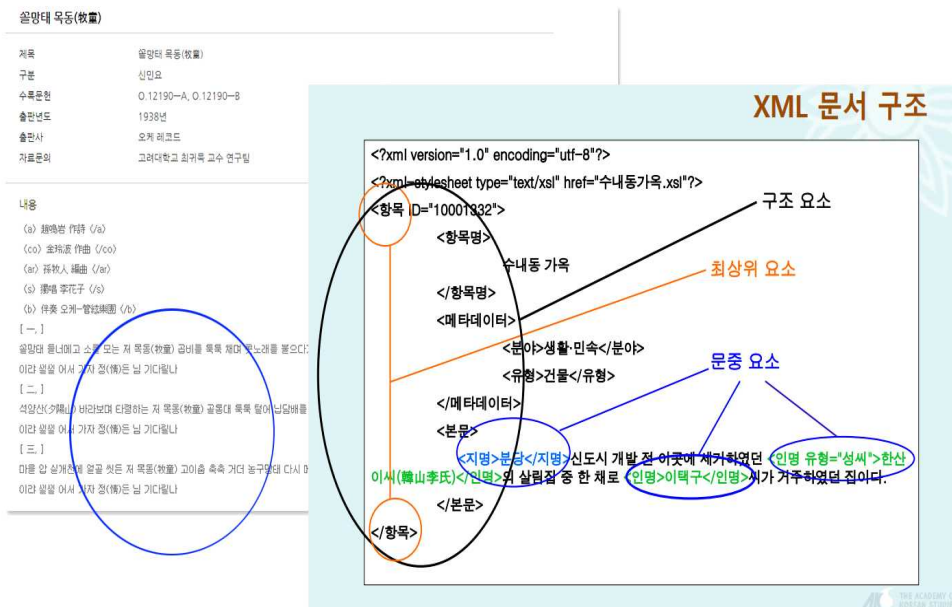


그림 I-4. 마크업 구현 비교²⁸⁾

좌측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꽃명태 목동), 우측 김현, 「XML의 이해」, '전자문서와 하이퍼텍스트' 수업 자료 (2018) 갈무리

상기 그림에서 비교하는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마크업 언어 구현방식은 '조명암'이라는 인명과 '작시'라는 개념이 한데 묶여 있다. 인명, 작품명, 개념 등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맨틱 데이터로서의 확장에 제한이 있다.

27) “본문 텍스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를 정보요소화 하는 방법은 키워드 하나 하나에 대해 XML 태그를 부가하는 것이다. <인명>, <지명>, <서명>, <기관>과 같은 본문 속의 고유명사 요소를 ‘문중요소’(文中要素, In-Text Element)로 분류한다.” 김현, 「향토문화 하이퍼텍스트 구현을 위한 XML 요소 처리 방안」 『인문콘텐츠 9』, 인문콘텐츠학회, 2007. 96쪽 참조

28) XML의 기본이해에 대한 자료는 김현, 「XML의 이해」, '전자문서와 하이퍼텍스트' 수업 자료(2018), 참조, <http://digerati.aks.ac.kr/DhLab/2018/101/tutorial/X3-XML의이해.pdf>

3. 연구방법 및 대상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김현이 제안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적용할 것이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데이터베이스를 중개자로 삼아 수많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실물 정보들이 의미적 관계를 좇아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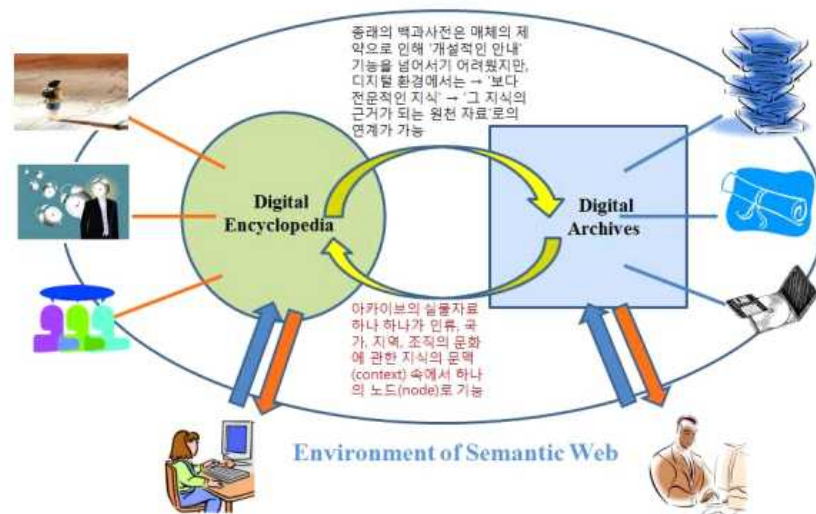


그림 I -5.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디지털 백과사전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융합³⁰⁾

일제강점기의 신문과 잡지, 관보 등의 다양한 실물자료는 각급 기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³¹⁾ 형태로 구축되어 공개되고 있다. 당시의 인물과 사건을

29)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clopedic Archives, Encyves)’는 인문지식의 ‘원천자료’이자 그 지식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인 ‘실물자료’(기록물, 유물 등) 데이터가 광대한 인문 지식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김현 외, 앞의 책, 2016. 204~208쪽

30) 김현 외, 앞의 책, 2016. 206쪽

31) 공공분야의 정보시스템에서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란 ‘1차 자료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정리,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콘텐츠를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김현 외, 앞의 책, 2016. 192쪽 각주 38 참조

탐구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동일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콘텐츠가 국립중앙도서관³²⁾이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³³⁾ 등 각각의 정보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일목요연하게 살피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유관하지만 분산된 콘텐츠를 의미를 좇아 연결되게 하는 것이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방법론이다.

이철의 대중예술 활동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법은 우선 기존에 구축된 각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에서 시작한다. 가령 조선악극단의 상업등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수록되어 있고, 조선악극단의 활동은 신문과 잡지에 언급되어 있다.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원문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잡지 ‘삼천리’에 언급된 내용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전 생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따라서 이철과 관련된 사건 중 일제강점기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에 중점을 두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기타 새롭게 발견되는 사건은 추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제 II장에서는 디지털 큐레이션 주제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일제강점기 음반산업과 이철이 운영했던 오케레코드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국권을 잃은 식민지 상황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이 주도한 한국의 음반산업은 국내 상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제국주의 질서 아래 식민지의 음반산업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살피고, 이철과 오케레코드의 입지와 대처방법을 조망한다.

제 III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일제강점기 음반산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대상자원에 대해 분석한다. 주제선정은 이철의 생애에서 변곡점이 되면서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하며, 각 사건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고려한다. 각 사건과 관련되는 대상자원은 수집된 음반 자료와 문헌 자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IV장에서는 디지털 큐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32)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자료는 관보(1884~1948)와 연속간행물 귀중본, 신문(~1955)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http://www.nl.go.kr/nl/dataSearch/data_wm.jsp

33) 연속간행물의 원문 텍스트를 제공한다. <http://koreanhistory.or.kr/>

구현을 다룬다. 각 클래스의 분류 및 속성과 관계성을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구현을 제시한다.

제 V장에서는 디지털 큐레이션을 통해 이철과 관련한 각 사건의 스토리를 추적한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지식의 발견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연구대상

이철(李哲, 1903~1944)의 관계망을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대상 기초자료는 일제강점기 발행된 유성기음반과 문헌 자료, 사진이다. 유성기음반은 총규모에서 오케레코드를 제한적으로 살피며, 문헌 자료는 일제강점기 발행 자료와 근래 자료를 함께 고증할 것이다. 사진 자료는 조선악극단의 연주 여행과 가족사진 등을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한국어 유성기음반의 총 수량은 약 6,500종으로 추정되며 불확실한 일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목록이 밝혀졌다.³⁴⁾ 유성기음반에 대한 기초자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I-1.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 관련 기초자료 현황

수집처	유형	수량	비고
한국유성기음반 검색시스템 ³⁵⁾	웹	12,615면	전통음악 상세
직접 수집 ³⁶⁾	실물, 디지털 자료	6,842면	대중음악 상세

상기 표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19,457면³⁷⁾의 유성기음반 수록 작품과

34) 중복되지 않는 음반 1장을 1종으로 본다. 유성기음반의 총목록은 김점도 편저, 『유성기음반총람자료집』, 신나라뮤직, 2000; 배연형 외(한국음반아카이브 엮음), 『한국 유성기음반』 (전5권), 한결음더, 2011. 참조

35) 한국유성기음반 검색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 자료의 목록을 참조하였음. <http://www.sparchive.co.kr/v2/index.php>

36) 직접 수집하거나 국내외 애호가가가 소장한 유성기음반, 또는 방송국과 박물관 등에서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이다. 이 과정에서 음악학자 이준희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37) 유성기음반 1종은 2면으로 구성된다. 각 면에 하나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행위자 1,902명을 서로 비교하여 불확실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한국유성기음반 검색시스템’의 처리방침을 준수하여 미확인으로 처리했다.

일체강점기 유성기음반에서 이철과 직접 연관되는 오케레코드 발행 음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2. 오케레코드 발행 유성기음반 현황

분류	유형	수량	비고
작품		2,598	유성기음반 수록 작품 전체
행위자 ³⁸⁾	주연	229	목소리, 연주 포함
	작사	81	구성 포함
	작곡	62	편곡 포함
	반주	22	

오케레코드 발행 음반에 수록된 작품은 총 2,598건이며 행위자는 394건이다. 행위자는 소속된 음반회사를 변경하는 때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케레코드에 한정해서 분석할 것이다.

음반 자료와 더불어 살펴볼 문헌 자료는 당대의 신문과 잡지 등 간행물, 조선총독부의 관보 등이다.³⁹⁾ 기타 각급 학교의 학적부와 호적부, 동료가 기록한 일기 등 문서자료가 그 대상이다.⁴⁰⁾ 사진의 내용은 학교생활, 회사 업무, 가족 행사와 연주 여행 등이며 사진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 또는

38) 행위자는 인물과 단체를 포함하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 일부 중복된다.

39) 이 부분의 자료를 살피는 데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및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유용하다. 각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시스템에도 일체강점기 잡지 등의 자료를 많이 공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http://www.nl.go.kr/nl/dataSearch/data_wm.jsp;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koreanhistory.or.kr>

40) 이철의 유족 자료 제공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철의 3녀 이영미와 오사카에 거주하는 김성흠의 1남 김영재이다. 자료의 내용은 사진과 문헌 자료이며 이철과 관련 단체의 활동이 기록된 사진 및 인적사항이 기록된 제적부, 학적부 등이다. 동료의 기록은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서 발행한 소장자료집 제2권 『트럼펫 연주자 현경섭』(2015)이 바탕으로 한다. 오케레코드의 트럼펫 연주자로 활동한 현경섭의 자료집에는 사진 및 일기, 각종 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정의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기타 각 데이터에 대한 부가자료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백과사전류를 참조할 것이다.⁴¹⁾

4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겨레음악대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hn?cid=60486&categoryId=60486>
한국전통연희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hn?cid=56785&categoryId=56785>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kr/main>
오케레코드와조선악극단,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Main.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8&cp_code=cp090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

II. 일제강점기 음반산업과 대중예술인

이 장에서는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대의 음반 산업을 개괄하고, 본 연구의 주제인 이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은 당대 예술가들의 활동이 기록된 대표적인 자료 이면서, 당대 대중에게 가장 파급력이 높은 매체였다.⁴²⁾ 유성기음반의 전성시대는 1932년 무렵부터 1937년까지를 이르며, 이 시기는 6대 음반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시작한 때부터 중일전쟁으로 인한 음반의 검열과 통제가 강화되기 직전까지를 말한다.⁴³⁾ 이철(李哲, 1903~1944)은 소규모 신생 음반회사를 일으켜 거대자본의 다국적음반사와 경쟁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유행가라는 새로운 음악을 선도하면서 유성기음반의 전성시대를 열었고, 음반산업의 통제가 강화된 1940년대에도 가장 활발하게 흥행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사망했기에 오히려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에 관한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다.

1. 일제강점기 음반산업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문물인 유성기는 경이로운 충격과 강력한 흡입력으로 대중을 유인했다. 유성기를 생산하던 음반회사는 팽창하던 제국주의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발 빠르게 세계의 시장을 개척했다. 같은 계열이던 미국의 빅타(Victor)⁴⁴⁾와 영국의 그라모폰(Gramophone)은 1903년에 세계 음반 시장을 분할하는 협정을 체결해서, 미주대륙과 동아시아는 미국의 빅타가 관장하고 유럽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영국의 그라모폰이 맡기로 했다.⁴⁵⁾ 그 결과 미국의 빅타 관계자가 1906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최초의

42) 배연형, 앞의 책, 2019. 535~542쪽; 이준희,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참조

43) 배연형, 앞의 책, 2019. 590쪽 참조

44) 서구의 음반회사인 빅타(Victor, 1927년), 콜럼비아(Columbia, 1928년), 폴리돌(Polydor, 1927년)은 1920년대 후반에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명이 붙지 않은 빅타, 콜럼비아, 폴리돌은 일본 현지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45) 배연형, 앞의 책, 2019. 50~51쪽 참조

현지 녹음을 진행한다.⁴⁶⁾ 그보다 앞선 1906년 2월에는 미국의 콜럼비아(Columbia)가 일본 현지 녹음을 진행하면서, 한국 전문음악인을 오사카로 초빙하여 소리를 녹음했다. 미국 콜럼비아에서 1907년 1월에 발표한 음반이 한국인의 소리가 녹음된 최초의 상업용 음반이다.⁴⁷⁾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음반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도 일본계 음반회사로 변하게 된다. 오사카를 기반으로 설립된 일축(日本蓄音器商會)이 1911년부터 한국음반을 발매하면서, 1920년대 중반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했다. 1920년대 말에는 비약적으로 음질을 향상한 전기식 녹음 방식과 저가형 유성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음반회사의 전성시대가 열린다. 이 무렵인 1928년에서 1933년 사이에 소위 6대 음반사 체제가 완성되었다.⁴⁸⁾

한국에 진출한 음반회사의 경영진은 서양인이나 일본인이었지만, 문예 부장은 한국인을 기용해서 음반의 기획과 예술가 발굴에 일정한 자율 권한을 주었다.⁴⁹⁾ 1933년경 한국은 유성기의 총 보급 대수가 30만 대를 넘었고, 연간 음반 판매량 역시 외국어 음반을 포함하긴 했으나 거의 100만 장에 이르렀으며, 1937년에는 연간 음반 판매량이 200만 장에 달할 만큼 음반 시장이 성장했다.⁵⁰⁾ 음반 시장의 양적 팽창은 음반회사의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음반의 기획 및 다양한 상품의 구성으로 저가의 보급형 음반이 등장했다.⁵¹⁾ 음반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던 1933년에 조선

46) 1906년 12월에 윌리엄 가이스버그(1878~1918)에 의해 총 101매의 음반이 녹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인 선교사 험버트(Homer Hulbert, 1863~1949)가 중개자 역할을 했다. 이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논문, 2009. 64~68쪽; 배연형, 앞의 책, 2019. 110~112쪽 참조

47) 이때 참여한 녹음자는 한인오(韓寅五), 최홍매(崔紅梅) 등 5인이며, 배연형의 주도로 2007년에 CD로 복각되었다.

48) 빅타(Victor), 콜럼비아(Columbia), 폴리돌(Polydor), 태평(Taihei), 시에론(Chieron), 오케(Okeh)를 지칭한다. 192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하는 빅타, 콜럼비아, 폴리돌은 서구의 자본이 투입되었지만 모두 일본 현지법인이다. 이들 6대 회사가 광복 이전에 한국에서 발매된 총 유성기음반의 80% 이상을 점유했다.

49) 야마우치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음반산업 특징을 제국 질서와 미시정치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음반회사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한국인 중개자를 제한적으로 포섭했으며, 원반권의 장악을 통해 구조적으로 통제했다고 본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 논문, 2009. 149~152쪽 참조

50) 석지훈, 석사학위 논문, 2017. 34~35쪽 참조. 근거자료는 「레코-드 取締 規則을 發表」 『동아일보』 1933년 5월 23일자; 「레코-드 販賣 年 二百萬枚, 風俗壞亂과 治安妨害 等 取締 規則 制定 中」 『조선중앙일보』, 1933년 5월 10일자.; 京畿道警察局 編, 『昭和 13年 京畿道警察局 治安現況』, 京畿道警察局, 1938.을 분석했다.

총독부에서 일찍부터 검토되던 음반의 통제정책이 시행되었다.⁵²⁾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에는 음반검열이 더욱 강화되면서, 기존의 치안방해와 풍속 괴란(壞亂) 외에도 전시체제에 부정적인 내용까지 단속대상으로 삼았다. 전시체제 이후 한국의 음악은 일본제국의 하위문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문예부장 등 음반 기획을 주도하던 지식인들도 식민지배의 논리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했다.⁵³⁾ 1941년에는 ‘조선연예협회(朝鮮演藝協會)’가 결성되면서 대중예술 전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12월에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음반사들도 적극적으로 전쟁협력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⁵⁴⁾ 태평양전쟁이 격화되면서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과 물자의 수탈이 심해지자, 1943년 12월 이후에는 음반의 생산도 중단되었다.⁵⁵⁾ 1907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한국어 유성기음반은 1943년에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총 6,500여 종이 발행되었다.⁵⁶⁾

2. 이철과 오케레코드

1) 이철

이철(李哲, 1903~1944)은 일제강점기 오케레코드(Okeh Record)⁵⁷⁾, 조선

-
- 51) 이준희,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168쪽; 「六大會社 레코드戰」, 『삼천리』, 1933년 10월호.
- 52) 일본에서는 1924년부터 음반의 추천제도를 통하여 음반의 검열을 모색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고, 한국에서 1933년 5월에 조선총독부령 제47호로 ‘蓄音機レコード取締規則’이 제정된다. 야마우치는 일본보다 1년 먼저 한국에서 검열정책이 실행된 원인으로 독자적인 법체계를 들었다. 법령의 통과를 위한 의회의 가결이 필요한 일본과 달리 총독부령이 바로 법으로 통하는 식민지 상황의 차이로 해석했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논문, 2009. 159~167쪽 참조
- 53) 석지훈, 석사학위 논문, 2017. 67~73쪽 참조
- 54) 1년 반 정도 유지됐던 조선연예협회의 회장은 조선악극단 운영자 이철이 맡았으며 군인을 위한 위문 공연 및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이 시기에 각 음반사에서 전쟁에 협력하는 군국가요를 본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준희, 「일제시대 군국가요(軍國歌謠) 연구」 『한국문화』 4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152~154쪽 참조
- 55) 현재까지 확인된 광복 이전 마지막 음반은 1943년 12월에 발매된 오케레코드의 음반번호 T31215이며, 조명암 작사, 남촌인 작곡, 백년설 노래인 <추억의 수평선>과 <희망마차>이다.
- 56) 중복되지 않는 음반 1장을 1종으로 본다. 배연형, 앞의 책, 2019. 651쪽 참조
- 57) 오케레코드, 일본 오케축음기상회 경성 임시영업소, 일본 오케축음기상회 경성지점, 제국 축음기주식회사 경성영업소는 모두 동일한 조직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칭을 정확히 밝혀야

악극단, 조선녹음주식회사를 운영한 흥행사업가이다. 본명은 이억길(李億吉)이며 일찍부터 이철을 예명으로 사용하다 1938년에 개명했다.⁵⁸⁾ 창씨개명한 이름은 아오야마 테츠(青山哲)이다.⁵⁹⁾

충청남도 공주 출신이며, 여러 번 학교를 중단했던 것으로 미루어 가정 환경은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주공립보통학교, 공주공립간이농업학교를 졸업했다. 공주영명학교에서 1년간 수학하다 공주공립고보로 옮겼으나 중도에 그만두고 청주성경학원 교무계에서 근무했다. 공주영명학교 재학 시 이 학교를 운영하던 이익모 목사와 인연이 되어 두 아들인 이인선, 이유선과 오랫동안 교유관계를 유지했다.⁶⁰⁾ 청주성경학원에 재직 중일 때는 함태영 목사와 인연이 되었으며, 함태영은 훗날 이철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이억길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철은 1925년에 상경하여 배재고보 3학년으로 편입했고, 이 무렵부터 안동교회에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배재고보 편입 시 이철의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기에, 학자금 보증인으로 양부 이인규가 등장했다.⁶¹⁾ 1926년에는 코리안재즈밴드(Korean Jazz Band)⁶²⁾에 참여했으며, 1927년에는 음악

할 경우가 아니면 모두 ‘오케레코드’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58) 1926년 8월 윤심덕 사망기사의 인터뷰와 1927년 4월 음악출판사 백장미의 설립 기사, 1933년 발행된 오케레코드 가사지에 이철이란 이름이 등장한다. 「玄海灘激浪中에 靑年男女의 情死」 『동아일보』, 1926년 8월 5일자; 「白薔薇第一輯發行」 『동아일보』, 1927년 2월 5일자; 「국수 한 사발」 가사지, 『오케레코드』, 1933년 8월 15일. 참조

59) 「이철 제적부」 참조, 2009년 8월에 이철의 3녀 이영미의 제보로 이철의 「제적부」, 「배재고보 학적부」, 「연희전문 학적부」 등을 입수했다. 「제적부」의 발급일 부분은 빠져 있다.

60) 이인선(李寅善, 1907~1960), 이유선(李宥善, 1911~2005)은 형제 성악가다. 두 형제 모두 공주영명학교와 연희전문에서 수학한 이철과 동문 관계이며 오케레코드에서 성악 음반을 발행했다. 이인선은 이철의 후원으로 성악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 유학을 다녀왔다. 이철 3녀 이영미 증언, 2009년

61) 이철과 이인규의 인연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철의 「배재고보 학적부」에 따르면 이인규는 이철의 양부이며 직업은 군수, 주소지는 경성부 안국동 31번지이다. 안동교회 자료에는 이인규가 홍숙자 권사의 배우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후손인 이효중 장로는 이인규가 황해도 지역 군수를 역임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다른 안동교회 자료에는 홍숙자를 이철의 수양어머니로 기록하고 있다. 류금주, 『도표와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여전도회, 2015, 69쪽; 『안동교회 90년사』, 안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2001, 118쪽; 「배재고보 학적부」 참조

62) 밴드의 멤버는 이철, 홍난파, 이인선, 홍재유, 최호영, 백명근, 김성준, 한옥 등이다. 이철은 배재고보(培材高普) 재학 중인 1926년 3월에 코리안재즈밴드의 종로 청년회관 공연에 참여했다. 코리안재즈밴드는 1928년 9월에 이철이 속한 안동교회 선교모임 시온회의 주최로 추석연주회를 열었다. 「仲秋佳節에 嘉俳音樂大會」 『조선일보』, 1928년 9월

출판사 백장미사를 설립했다.⁶³⁾ 1928년 1월에 안동교회의 선교모임인 시온회⁶⁴⁾에 참여했으며, 여기에서 윤치오(尹致昨, 1869~1950)⁶⁵⁾의 부인이자 대한제국의 고위직을 역임한 현영운(玄暎運, 1868~1939)⁶⁶⁾의 차녀인 현송자(玄松子, 1899~1978?)를 만났다. 4월에는 연희전문 상과에 입학하고 배구자 음악무용회를 개최했다.⁶⁷⁾ 9월에는 안동교회 추석 대연주회와 10월에는 전조선현상가무회를 개최했으며, 이 무렵 연희악대에 참여했다.⁶⁸⁾ 1929년 하반기에 주변에서 이철과 현송자의 만남을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한 것 같다. 1930년 2월에 이철은 연희전문에서 정학당하고 여름에는 안동교회에서 쫓겨나더니, 11월에는 연희전문에서도 퇴학당했다.⁶⁹⁾ 같은 시기에 현송자 또한 가정에서 축출되었다. 이철과 현송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발생했던 이 사건을 안동교회에서는 ‘이역길 사건’으로 규정했고, 교회 안팎으로 영향을 미친 큰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⁷⁰⁾

28일자; 「한국재즈 100년의 역사」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60487&docId=5663538&categoryId=60488>

- 63) 「白薔薇第一輯發行」, 『동아일보』, 1927년 2월 5일자. 참조
- 64) 1928년 1월에 13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안동교회 선교 모임이다. 국어학자 이윤재가 회장을 맡았고, 이철과 현송자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안동교회 90년사』, 108쪽 참조
- 65) 일제강점기 중추원 부찬의, 찬의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교육자다. 윤치호(尹致昊, 1866~1945)의 사촌 동생이다. 「윤치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2636>
- 66) 육군참장(參將)과 농상공부협판(協辦)을 역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황실극장인 협률사(協律社)의 운영에도 간여했다. 협률사는 1902년 고종의 재위 40주년 경축의식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예인을 모아 전속단체를 조직해 명창 김창환이 대표를 맡았다. 조영규, 『協律社와 圓覺社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2006. 참조
- 67) 이철이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시온회의 회원이었던 현송자와의 관련성이 커 보인다. 배구자는 배정자의 조카로 알려져 있고, 현송자는 배정자의 의붓딸이다. 배구자음악무용회 관련 소식은 「隱退하였든 裴龜子孃 劇壇에 再現」 『동아일보』, 1928년 4월 17일 자. 참조
- 68) 1928년에 창단된 것으로 보이는 연희악대(延禧樂隊, College Chosen Christian Orchestra)는 이철이 주도했으며 현제명이 지도교수로 참여했다. 이철과 현제명은 교수와 학생으로 사제관계였지만 나이는 같았고, 외부 연주 활동도 함께 하곤 했다. 「仁川音樂의 밤」, 『조선일보』, 1930년 5월 24일 자. 참조
- 69) 이철의 학적부에는 ‘학칙 제27조에 의하여 소화 5년 2월 15일부터 1주간 정학, 1년간 근신을 명’하며, ‘소화 5년 11월 5일 학칙 제26조 제1호, 제27조, 제38조에 의하여 방교 처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학 조치 이후 성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이미 2월부터 학교에서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 「연희전문학적부」 참조
- 70) 안동교회의 기록사전에 나타난 이역길은 이미 연희전문에서 정학을 당한 상태에서도 5월까지 교회에 나가고 있었으나 8월경에 출교당한다. 연희전문에서도 11월에 퇴학당하자 이철은 그 원인을 안동교회의 출교 조치로 보고, 상부 기관인 경기노회에 출교

이철은 ‘이억길 사건’ 이후 현송자와 결혼하고, 1932년 무렵 ‘일본 오케축음기상회 경성 임시영업소’를 운영하게 된다. 이철이 오케레코드를 운영하게 된 것은 현송자의 조력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현송자는 경성고등여학교와 일본 메지로 대학을 졸업했으며,⁷¹⁾ 오케레코드 설립을 위해 이철과 일본 제축 간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한다.⁷²⁾ 오케레코드의 설립 경위와 자본의 구성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본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⁷³⁾

이철은 다국적 거대자본이 투입된 음반회사인 빅타, 콜럼비아, 폴리돌 등과 경쟁했지만, 대중의 취향을 읽는 참신한 기획⁷⁴⁾으로 오케레코드를 단기간에 6대 메이저 음반사로 성장시켰다. 이철이 직접 관여해서 배출한 대중예술계의 인물들은 신불출, 임방울, 김소희, 고복수, 이난영, 남인수, 김정구, 장세정, 이화자, 박향림, 이인권 등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었다. 오케레코드 설립 초기부터 공연 활동을 중시해서 오케연주단을 구성했고, 이는 훗날 조선악극단으로 발전한다. 1935년에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당대의 타 음반회사 문예부장들도 시도하지 못했던 조선어교육에 관한 레코드를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제작했다.⁷⁵⁾

조치의 부당함을 제소한다. 이때 청주에서 인연을 맺었던 당시 연동교회 목사 함태영이 ‘이억길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나, 당회의 경유가 없었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장이 반려된다. 안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1. 118~120쪽;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10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2010. 49쪽 참조

71) 현송자의 경성고등여학교 졸업은 매일신보 기사에 등장하고, 메지로대학 졸업은 잡지 별건곤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현송자가 결혼할 때는 20살이었기에 대학 졸업은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尹致昨氏結婚」, 『매일신보』, 1919년 5월 14일자; 吳壽山, 「카페- 夜話, 한숨지는 孔雀들」 『別乾坤』 제55호, 1932.9.1

72) 황문평과 이동순은 현송자의 대학 동창 중에 제축 간부의 딸이 있어서 친구를 통해 서울에 지점을 내도록 강권했다고 한다. 조관희, 「사연따라 연예 반세기(演藝 半世紀)…그시절 그노래(8)」, 『선데이서울』 제228호, 1973.2.25.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14550001&spage=2>; 황문평, 『한국대중연예사』, 부르칸모츠, 1989, 168쪽; 이동순, 「일제시대 조국의 노래를 지켜냈던 이철의 삶과 예술 그리고 조국」 『월간조선』 2003년 7월호 참조

73) 이 부분은 V장. 오케레코드 설립에서 상세히 검증한다. 오케레코드 초기부터 이철이 책임자로 있었기에 다른 음반회사와 달리 한국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으나 야마우치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증했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논문, 2009. 143~149쪽 참조

74) 1933년 2월에 제1회 신보로 출판한 신불출의 <대머리(공산명월)>(음반번호 1518)부터 대단한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이준희,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168쪽 참조

1937년 초에 오케레코드는 제축으로 경영권이 이양되었고, 경영권에서 소외된 이철은 공연 활동에 매진하면서 1939년에는 오케그랜드쇼를 조선악극단으로 개편해 본격적인 해외공연을 추진했다. 조선악극단의 일본공연에서는 조선어와 조선 국기 사용이 문제가 되자, 책임자인 이철이 일주일 동안 구류를 당하기도 했다.⁷⁶⁾ 조선악극단은 일본, 중국, 만주 등지에서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으며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흥행단체가 되었다. 이철은 전시체제의 협력을 목적으로 1941년 1월에 조선연예협회의 결성을 주도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1940년대의 이철은 일제에 협력하는 조력자로서 군국가요 음반의 제작과 군부대의 위문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⁷⁷⁾

2) 오케레코드

오케레코드는 1933년 2월에 첫 음반을 발매한 후 1943년 12월에 마지막 음반을 발매했다.⁷⁸⁾ 12년간 활동하면서 1,300여 종의 음반을 생산했으며, 이는 광복 이전 음반 총생산건수의 20%에 달한다. 6대 회사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영업을 개시했지만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고, 생산한 음반의 양으로 보아도 4년 앞서 설립된 콜럼비아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왕성하게 활동했다.⁷⁹⁾

영업을 시작한 1933년 2월에는 ‘일본 오케축음기상회’의 ‘경성 임시영업소’였으나 곧 경성지점으로 변경됐고, 1937년 2월에는 ‘제국축음기주식회사

75) 조선어교육레코드는 1935년 한글날 시청회를 통해서 공개되었으며, 연말부터 지면을 통한 광고와 함께 판매되었다. 1930년대 음반회사의 문예부장을 맡았던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석지훈의 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한글날기념회」 『동아일보』, 1935년 10월 28일자; 金陵人, 「朝鮮語教育레코오드 吹入 製作의 經過」 『한글』 (3권 10호), 조선어학회, 1935. 495~499쪽; 석지훈, 석사학위논문, 2017. 28~47쪽 참조

76) 『현경섭의 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1939년 4월 24일~5월 3일 참조

77) 「이철」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6231>

78) 현재까지 확인된 음반은 1943년 12월에 발행한 음반번호 T31215이다. 1943년 9월까지 기록이 보이는 곳은 태평(음반번호 5086)과 콜럼비아(음반번호 40919)이며, 폴리돌(음반번호 19603)은 7월까지 확인된다.

79) 광복 이전 한국어 유성기음반의 총생산건수는 6,500여 종이며, 오케레코드의 생산 규모는 콜럼비아의 약 1,470종(전체생산량의 약 23%)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이다.

경성영업소'가 되었다.⁸⁰⁾ 이 과정에서 제축(帝畜)⁸¹⁾에서 파견한 이무라 료즈이(井村良瑞)가 경영을 맡았으며 이철의 회사 지배력은 약해졌다.⁸²⁾ 경영의 주체는 제축으로 변경되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상표는 계속 '오케'를 유지했다.

오케레코드는 높은 지명도에 비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설립 경위와 상표사용,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관한 내용이다. 설립 경위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는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설립 경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잡지에 언급된 간략한 정보에 불과할 만큼 매우 빈약하다.⁸³⁾ 공통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오케레코드 설립을 위해서 이철이 제축의 간부를 만났다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오케레코드와 제축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⁸⁴⁾ 두 번째로 '오케(Okeh)'라는 상표는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철이 독자적으로 제안했거나 제축의 한국 현지 상표 또는 외지 전용 상표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⁸⁵⁾ 마지막으로 오케레코드의 경영권에 관해서도 주장이 갈리는 부분이다.

80) 음반번호 1960번인 김정구와 이난영의 <연애특급> 가사지에는 '일본 오케축음기상회 경성지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음반번호 1961번 남인수의 <인생극장> 음반부터는 신문광고와 가사지에 '제국축음기주식회사'로 표기된다. 「인생극장」 광고, 『조선일보』, 1937년 3월 9일자; 「연애특급」 가사지, 1937년 2월 10일 발행

81) 제국축음기주식회사의 약칭이다. 1934년 2월에 제국축음기상회가 제국축음기주식회사로 전환됐다. 데이치쿠(帝畜, テイチク) 또는 데이코쿠(帝國, ていこく)로 지칭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축'으로 통일한다.

82) 1939년 이후에도 오케레코드 음반 가사지의 발행자 이름에 이철과 이무라가 혼재되어 있다. 「미녀도」 가사지, 1939.1.20.; 「오조」 가사지, 1940.1.1.; 『조선악극단 제1집』, 조선악극단기획부, 1940. 참조

83) 오케레코드가 영업을 개시한 지 불과 2년 후인 1935년의 잡지에 언급된 바로는 '우연한 기회에 제축의 간부를 만난 이철씨가 창시'했다는 기록이 있고, 1973년의 잡지에는 현송자가 '제국축음기에 부탁해서 서울에 지점을 내게 하고 남편을 사장으로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 聽又聽生, 「沈滯해가는朝鮮레코-드의 運命」 『朝光』 1935년 11월호. 159쪽; 조관희, 앞의 글, 1973.2.25.

84) 오케레코드의 설립에 관한 논의를 상세하게 다룬 글로는 야마우치 후미타카의 논문이 있으며, 대부분 다른 연구자의 주장도 유사하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논문, 2009; 박찬호, 『한국가요사』, 현암사, 1992. 449쪽; 박찬호,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449쪽; 朴燦鎬, 『韓國歌謠史』 I, 東京: 邑樂舎, 2018. 328쪽; 황문평, 앞의 책, 1989, 168쪽

85) 김정구는 제국이라는 어감이 한국인에게 거부감이 있어서 이철이 독자적으로 '오케'라는 상표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대만에도 '오케'라는 상표가 존재했다는 야마우치의 논증으로 김정구의 증언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야마우치는 '오케' 상표를 일본을 제외한 외지 전용 상표로 해석한다. 박찬호,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449쪽;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 논문, 2009. 189~190쪽 참조.

1936년 혹은 1937년 이후로 경영권을 뺏겼다는 의견과 적어도 1939년 이후로는 다시 이철이 경영에 복귀했다는 의견으로 대비되고 있다.⁸⁶⁾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 연구를 수용하면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 결과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없었던 의미 있는 해석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V장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86) 전자는 이동순의 의견이고 후자는 야마우치의 의견이다. 야마우치는 이동순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증했다. 한편 이준희는 이철의 영향력이 1937년 이후로도 어느 정도 유지됐다고 판단하지만 완전한 복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이동순, 앞의 글, 『월간조선』 2003년 7월호;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 논문, 2009. 148~149쪽 참조

Ⅲ. 디지털 큐레이션 주제 및 대상자원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대상자원을 사건과 시간, 공간을 배경으로 분석했다.

이철의 대중예술 활동에 관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각 사건은 이철의 생애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고 서로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졌다. 사건과 관련되는 대상자원은 당대의 문헌 자료와 후대의 다양한 자료를 망라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 인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사건의 종합적인 재구성을 위해서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데이터도 지식자원에 반영했다.

1. 이철의 생애와 환경

오케레코드를 설립하기 이전의 이철은 음악적 재능과 친화력이 뛰어났지만 성실한 종교 생활에 매진하는 평범한 인물이었다. 어쩌면 평범한 생활인으로 일생을 보냈을지 모르는 이철이 안동교회에서 발생한 ‘이억길 사건’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음반회사를 운영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억길 사건’을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활동과 교회 활동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자원을 수집해서 사건을 재구성했다. 지식자원의 수집은 대부분 교회와 학교자료에 기초했으며, 기초자료의 보완은 당대의 문헌 자료를 참조했다.⁸⁷⁾

사건의 진행순서에 따른 관련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87) 교회 자료는 안동교회에서 출판한 단행본에 의지했으며, 학교자료는 주로 학적부를 참조했다. 『안동교회 90년사』, 안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2001;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10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2003; 류금주, 『도표와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여전도회, 2015; 「배재고보 학적부」; 「연회전문 학적부」; 각종 신문과 잡지류 참조

88) 이철의 안동교회 출입 시기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추정해볼 근거로

표 III-1. 이억길 사건 대상자원 분류

사건	시간	공간	대상자원
배재고보 편입	1925.9	배재고보	「학적부」
안동교회 출입 ⁸⁸⁾	1925.9	안동교회	『안동교회 90년사』 「학적부」
하기 성경학교	1926.8	안동교회	『안동교회 90년사』
시온회 창립	1928.1	안동교회	『안동교회 90년사』
배재고보 졸업	1928.3	배재고보	「학적부」
연희전문 입학	1928.4	연희전문	「학적부」
연희악대 설립	1929	연희전문	연희전문 사진 자료, 유족 사진 자료
연희전문 정학	1930.2	연희전문	「학적부」
안동교회 출교	1930.8	안동교회	『안동교회 90년사』
연희전문 제적	1930.11	연희전문	「학적부」
경기노회 제소	1930.12	경기노회	『안동교회 90년사』
경기노회 반려	1930.12	경기노회	『안동교회 90년사』
이억길 사건 기록	2001.8	안동교회	『안동교회 90년사』
이억길 사건 사진	2010.3	안동교회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100년』
이억길 수양어머니	2015.10	안동교회	『도표와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년사』

표 III-2. 이억길 사건 관련 데이터 예시

명칭	구분	내용
이억길 연희전문학적부	문헌자료	신상정보 및 성적, 상벌 사항 등 기재
기본사항	인적정보	이름/생년월일/호주/본적
		이억길/1903년 6월 9일/ 이억석(형)/충청남도 공주군 공주면 본정 294
	학업정보	입학/입학전학력
		1929년 4월 10일(연희전문 상과)/공주공립보

배재고보 편입 시 보증인으로 등장한 양부 이인규의 존재가 주목된다. 이인규의 처는 안동교회 권사인 홍숙자인데, 『안동교회 90년사』(118쪽)에 의하면 홍숙자는 이철의 수양어머니였고 이철은 홍숙자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통학교졸업, 공주간이농업학교졸업, 공주영명 고등학교 1년 수업,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2년 수업, 청주성경학원 교무계근무, 배재고등보통 학교 3년 입학졸업
관련정보	인물	학비보증인
		이인규(관리, 부), 이억석(회사원, 형)
	단체	학교, 교회
		연회전문 등
	사건	상벌
		정학(1주일), 방교(퇴학)
	장소	주소
		이인규(경성부 안국동 31번지), 이억석(인천부 송현리 97-3)
시간	사건 발생시간	
	정학(1930.2.15.), 퇴학(1930.11.5.)	

2. 오케레코드 설립과 음반제작

오케레코드의 설립에는 현송자의 조력설이 유력하게 통용되고 있다. 이철이 일본 제축과 연관될 수 있었던 것은 현송자가 제축의 간부인 일본인 친구의 아버지를 소개했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검토하고, 다양한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는 새로운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표 III-3. 오케레코드 설립에 관한 대상자원 분류

사건	시간	주요공간	대상자원
배구자음악무용회	1928.4	장곡천교회당	신문자료
연회전문 제적	1930.11	연회전문	「학적부」
호주사망, 상속	1931.6	인천	「제적부」
첫째 딸 출생	1931.10	남대문	「제적부」

현송자, 카페종업원	1932.9	트로이카	『별건곤』 제55호
현송자, 절세미인구성안	1932.9	경성	『만국부인』 제1호
일본오케 음반발매	1932.9	오사카	「靈界通信」(No 1006)
일본오케 관련	1932~1934	상해, 오사카	樞尾慶三 「履歷書」
일본 제축관련설	1932	경성, 오사카	『朝光』(1935.11)
현송자 조력설	1932	경성	『선데이서울』(1973.2)
일본오케경성지점장	1933.2	경성	오케 제1회 신보(동아일보)
제축 설립	1934	오사카	제축 「회사사」
배정자 관련	1934	경성	사진자료
현영운 관련	1906~1939	경성	사진자료, 「협률사」 보도자료
오케 상호 관련	1992	경성, 대만	김정구 증언, 奧稽唱片公司(オーケー臺灣唱片)

표 III-4. 오케레코드 설립 관련 데이터 예시

명칭	구분	내용
선데이서울 228호	문헌자료	오케레코드 관련 인물, 사건 소개
기본사항	주제	손목인(작곡가)의 예술활동
		작곡: 타향살이 등 연주: 오케그랜드쇼, 조선악극단
관련정보	인물	고복수, 김정구, 이난영, 김해송, 이철, 현송자 오케 3총사(손목인, 김해송, 박시춘)
	단체	학교, 오케레코드, 조선악극단
	사건	학력/오케레코드 설립/오케 상호
		손목인(경신고보, 일본고등음악학교), 현송자(메지로대학), 이철(연희전문)/오케레코드 설립(현송자 조력)/오케 상호(현송자 동창생이 작명)

오케레코드의 음반제작은 1,300여 종에 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케레코드의 조선어교육 레코드를 살펴보았다. 오케레코드의 조선어교육 레코드는 조선어학회, 조선음성학회, 조선음악교육협회, 조선음악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일한 조선어교육 레코드였다.

이 사건에 관한 대상자원은 당대의 문헌 자료와 음반 자료 및 후대의 복원 자료를 포함했다.

표 III-5. 조선어교육 레코드 제작에 관한 대상자원 분류

사건	시간	주요공간	대상자원
일본 오케 경성지점장	1933.2	경성	가사지, 신문자료
제주민요 채집	1934.3	제주	「별오돌독」
상업적 성공	1933~1935	경성	「공산명월」 「노들강변」 「타향」 「목포의 눈물」
조선어교육 레코드 녹음	1935. 여름	경성	오케 가설 스튜디오
제주민요 채집	1935.9	제주	「이어도」
한글날 시청회	1935.10	경성	조선어학회, 『한글』
조선어교육 레코드 발매	1935.12	경성	조선어학회, 조선음성학회 등
CD복원	2004	고양	고양문화재단 등

표 III-6. 조선어교육 레코드 관련 데이터 예시

명칭	구분	내용
오케 조선어교육 레코드 조선일보 광고전단	문헌자료	조선어교육 레코드 관련 정보
기본사항	음반구성	12매 1조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권6 취입
관련정보	인물	참여인물
		독법지도 심의린, 작곡 및 음악지도 이종태, 음성지도 정인섭, 취입 경성사범부속보통학교야동,

		경성여자사범부속보통학교아동, 경성여자사범학교보습생도
기타		전조선 보통학교상황
		학교 수 2,100개, 교원 수 10,222인, 아동수 561,920인
시간		1936년 1월 1일

3. 일제강점기의 대중예술 활동

일제강점기의 대중예술 활동은 공연 활동과 음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철과 관련된 활동으로 조선악극단과 군국가요 음반제작을 살펴보았다. 두 가지 사건이 이철의 생애와 당대 대중예술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악극단은 오케레코드사의 설립 당시부터 운영되던 오케연주단을 모체로 시작되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만주 등에서 수백 회 이상의 공연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흥행단체로 성장했다. 대중매체로서 유성기음반이 급성장하고 있었으나 예술인을 직접 볼 수 있는 공연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오케레코드는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 설립 초기부터 오케연주단을 구성했고, 대도시와 지방을 순회하면서 연주 활동을 벌였다.

1937년 2월경에 오케레코드사의 경영권이 제축으로 이양되는 사건이 발생했다.⁸⁹⁾ 이 사건으로 회사 경영에서 소외된 이철은 사업의 영역을 음반의 녹음 및 공연 활동으로 정한 것 같다. 1938년에는 조선녹음(주)을 설립하면서, 경영권 보호를 위해 현송자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로 임원진을 구성했다.⁹⁰⁾ 일본의 요시모토 흥행과 제휴를 통해 일본공연이 추진되면서

89)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제축은 1937년 1월에 자본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며 새로이 오사카 영업소를 개설했고,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1937년 2월 10일에 발행된 남인수의 <인생극장>(음반번호 1961번) 부터는 이전의 '일본 오케축음기상회 경성지점'이라는 표기가 '제국축음기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논문, 2009. 147쪽 참조

90) 1936년 말에 오케레코드 본사가 위치한 남대문동 1정목 104번지에 녹음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37년부터 오케레코드사의 음반은 조선인에 의해 편곡과 연주의 전 과정이 녹음되었다. 1938년에 설립된 조선녹음은 '축음기레코드 취입 녹음

오케그랜드쇼는 조선악극단으로 개편되었다. 1939년 3월부터 일본공연을 시작한 조선악극단은 만주와 중국까지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흥행단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1944년 6월에 갑자기 이철이 사망한 후 조선악극단은 동력을 잃고 쇠락하고 말았다.

표 III-7. 조선악극단 운영에 관한 대상자원 분류

사건	시간	주요공간	대상자원
오케연주단 조직	1933	경성	신문, 광고, 사진 자료
일본 순회공연	1936	교토 외	신문, 광고, 사진 자료
오케 경영권 이양	1937.2	경성	제측 「회사사」, 가사지
조선녹음(주) 설립	1938.1	경성	관보
오케그랜드쇼단	1938		신문, 광고, 사진 자료
요시모토흥행제휴	1938		신문, 광고자료
조선악극단 개편	1939.3		신문, 광고자료
1회 일본 순회공연	1939.3~1939.5	도쿄, 오사카	『현경섭 일기』
조선국기사용 구류	1939.4.24	오사카	『현경섭 일기』
<思ひつき夫人> 출연	1939.5	동보촬영소 (교토)	『현경섭 일기』
2회 일본 순회공연	1939.11~1940.2	도쿄, 교토	『현경섭 일기』 『조선악극단』 제1집
1회 중국 순회공연	1940.4~1940.5	북경, 상해	『현경섭 일기』
1회 만주 순회공연	1940.8.~1940.9	신경, 하얼빈	『현경섭 일기』
조선연예(주)로 변경	1941.2	경성	관보
2회 만주 순회공연	1941.4	봉천, 대련	신문, 광고, 사진 자료
3회 만주 순회공연	1942.5	안동, 연길	신문, 광고, 사진 자료
4회 만주 순회공연	1943.1	하얼빈	신문, 광고, 사진 자료

기타 그것에 관한 일체의 업무 및 부대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했다. 대표이사 이철과 감사역 현송자, 그리고 이사는 매제 김성흠, 모친 박영순, 누나 이억지(이억원)였다. 「주식회사설립-상호 조선녹음주식회사」 『조선총독부관보』 제3354호, 1938년 3월 25일자

3회 일본 순회공연	1943.2~1943.6	도쿄, 고베	신문, 광고, 사진 자료
5회 만주 순회공연	1943.11~1943.12	봉천, 훈춘	신문, 광고, 사진 자료
2회 중국 순회공연	1944.6~1944.9	상해, 소주	신문, 광고, 사진 자료

표 III-8. 조선악극단 관련 데이터 예시

명칭	구분	내용
조선악극단 나고야극장공연 광고전단	문헌자료	조선악극단 나고야극장 공연 정보
기본사항	공연정보	内鮮一體の豪華公演 朝鮮樂劇團 ハントウのシヨウポート 春鶯賦
관련정보	인물	스텝/예술가
		연출 김용호, 조명, 김흥기, 작곡 손목인, 편곡 박시춘, 음악지휘 손목인, 의상 경성 로즈테라 / 고복수, 장세정, 김정구, 남인수, 이난영, CMC밴드, 조영숙, 김능자, 최인순, 이화자, 이인권
	프로그램	春鶯賦 十二景
		豊年頌, 北京の夢, 連絡船は出る 외
	장소	名古屋劇場
名古屋中區萬松寺新天地 電話 一〇五三番		
시간	1939년 3월 22일~28일	

일제의 전쟁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군국가요⁹¹⁾는 1937년 10월에 처음으로 나온다. 1938년 1월까지 발표된 초기의 군국가요 음반제작은 메이저 음반사가 거의 참여했지만, 5대 회사 중에서 오케레코드만이 유일하게 군국가요를 발표하지 않았다.⁹²⁾ 그러나 오케레코드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91) 군국가요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 가운데 상업적인 유행가의 생산, 유통과정을 거쳐 유포된 것’을 말한다. 이준희,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유행가, ‘군국가요’ 다시보기(1)」 『오마이뉴스』 2003년 6월 9일자. <http://omn.kr/42av>

92) 1930년대 초반에 6대 회사에 속하던 시에론레코드는 1937년 무렵 사업을 중지한다. 이후로 조선의 음반사는 5대 음반회사 체제로 변하게 된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논문, 2009. 142~143쪽 참조

동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확인된 오케레코드의 첫 군국가요는 1941년 8월에 발표되었지만 1941년 6월에 이미 조선총독의 훈화문을 녹음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39년 3월에는 내선일체를 표방한 조선악극단의 공연이 나고야에서 진행되었다.⁹³⁾ 이철은 1941년 1월에 조선연예협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더욱 일체에 협력하게 되었다.

표 III-9. 일체 협력행위에 관한 대상자원 분류

사건	시간	주요공간	대상자원
음반검열 및 통제	1933.6	조선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
음반검열 및 통제	1937.6	조선	필름 레코드 인정규정
군국가요 제작	1937.10~ 1938.1	조선	콜럼비아, 빅타, 폴리돌, 태평레코드 음반
위문공연	1939~1940	일본, 만주	『조선악극단』 제1집
조선연예협회회장	1941.1	경성	신문자료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위원	1941.1	경성	신문자료
부여신궁 참배	1941.2	부여	신문자료
부여회상곡 기획	1941.5	경성	『국민신보』 제113호
총후국민훈 녹음	1941.6	경성	조선총독부, 음반자료
군국가요 음반발매	1941~1943	경성	오케레코드
조선신궁 참배	1941.9	경성	신문자료
이동극단제2대대표	1942.8	경성	신문자료
「가미가제」(명랑극) 총지휘	1943	부민관	신문자료

93) 1939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나고야극장에서 공연된 조선악극단의 <춘앵부> 공연은 '내선일체의 호화공연'을 표방했다. 1941년 6월 7일에는 미나미(南次郎) 조선총독이 銃後國民訓(음반번호 K5037)을 녹음했고, 1941년 8월에는 오케레코드의 첫 군국가요인 '지원병의 어머니'(음반번호 31052, 장세정 노래)가 발표됐다. 「春鶯賦」 『內鮮一體の朝鮮樂劇團』, 名古屋劇場, 1939년 3월; 「銃後國民訓」(朝鮮總督 南次郎), 오케레코드, 1941년 6월; 「지원병의 어머니」(조명암 작사, 고가마사오(古賀政男) 작곡, 장세정 노래), 오케레코드, 1941년 8월

표 III-10. 일제 협력행위 관련 데이터 예시

명칭	구분	내용
혈서지원	음반자료	오케레코드 발행 군국가요
기본사항	참여자	작사 조명암, 작곡 박시춘
		노래 백년설, 남인수, 박향림
	음반번호	Okeh 31193
관련정보	단체	조선총독부
		오케관현악단
	사건	조선징병제
		음반부제: 해군특별지원병제도 실시를 축하하며
시간	194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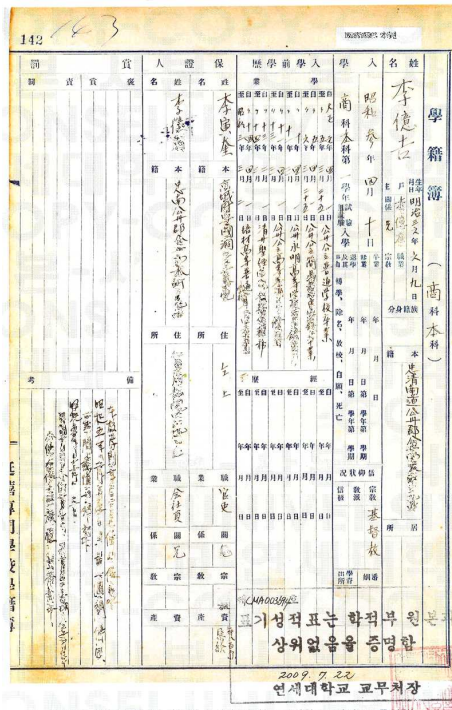


그림 III-1.

이철의 연희전문 학적부

<그림 III-1. 설명>

이철의 학력 사항과 학자금 보증인 및 상벌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III-2. 설명>

1934년 이철의 1남 돌잔치 사진이다. 앞줄 맨 왼쪽의 모자 쓴 여자가 배정자이며, 맨 오른쪽은 현송자이다. 뒷줄 맨 오른쪽 남자는 이철이고, 가운데 아이를 안은 남자가 이철의 사업 동료이자 매제인 김성흠이다.



그림 III-2. 이철의 가족사진

배정자와 현영운은 약 7년간을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⁹⁴⁾ 무슨 이유인지 배정자는 이혼한 지 27년 만에 현송자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했다. 이철의 호적 부에 의하면 배정자와 현송자는 혈연관계가 없다.

94) 「괴물 배정자」, 『매일신보』, 1916년 12월 18일 자 참조

IV. 데이터 모델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현

데이터 모델 설계는 온톨로지 설계를 기반으로 했다. ‘온톨로지’란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전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 기술 체계이다.⁹⁵⁾ 온톨로지의 구성 원소는 클래스(Class), 관계(Relation), 속성(Attribute), 개체(Individual)를 포함하며,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온톨로지 설계이다.⁹⁶⁾ 본 연구의 온톨로지 설계방식은 한국문화 엔사이브 온톨로지(EKC)를 참조했다.⁹⁷⁾ 본 연구에서 설계한 온톨로지 모델의 명칭은 OKEH로 정했다.



Event :
조선악극단 제1회 일본공연
Actor :
요시모토 흥행, 김정구 외
Time :
1939.3~1939.5
Place :
오사카, 교토, 동경, 나고야 외
Record :
동아일보(1939.5.13)
webResource : url
Concept : 제휴
Music: 돈바람 분다

그림 IV-1.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 개요도 및 사건 예시

95) 온톨로지 설계는 대상 자원을 클래스(Class)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Individual)들이 공통의 속성(Attribute)을 갖도록 하고, 그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과 맺는 관계(Relation)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김현 외, 앞의 책, 2016. 164쪽 참조

96) 김지명,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88쪽 참조

97) 2016~201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교실에서 수행한 『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 및 『문화유산 속의 인물에 관한 시각적 스토리텔링 자원개발』 연구의 결과물로 설계된 데이터 모델이다. 김현규, 『3.1운동에 관한 개방적 연계 데이터 구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52쪽 참조,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EKC_Data_Model-Draft_1.1

1. 클래스 및 속성 설계

클래스(Class) 설계는 대상자원의 문맥 요소를 파악하여 유사한 성격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자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상 세계를 일정한 체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속성(Attribute) 설계는 각각의 개체(Individual)들이 어떤 속성을 갖는지를 살피고, 이 속성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⁹⁸⁾

본 연구의 온톨로지 설계에 있어 클래스의 분류는 행위자, 사건, 시간, 공간, 기록물, 음반, 개념, 웹 자원으로 분류했다. 각각의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Sub Class)를 둘 수 있으며, 확장과 통합을 고려하였다.

표 IV-1. 클래스 설계표

클래스	한글	설명
Actor	행위자	구체적인 행위의 주체, 객체를 포함한다.
Event	사건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한 일의 명칭을 지칭한다.
Place	공간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한 장소로 포괄적인 도시명을 포함한다.
Time	시간	구체적인 행위가 진행된 시간으로 선후를 포함한다.
Record	기록물	구체적인 행위가 기록된 기록물로 기록형태로 구분한다.
Music	음악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모든 작품으로 기타 장르를 포함한다.
Concept	개념	추상적인 내용을 포괄한다.
webResource	웹자원	인물과 사건 등을 기록한 웹 자원이다.

속성(Attribute) 설계는 데이터타입 속성(Datatype Property)과 오브젝트 속성(Object Property)으로 구분된다. 오브젝트 속성 설계는 관계성 설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타입 속성을 다룬다. 데이터 타입 속성 설계는 개체와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Object Property)을 담기 위하여 틀을 짜는 것이다.

98) 김현 외, 앞의 책, 2016. 164~174쪽 참조

속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서술 어휘를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의된 어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적합한 어휘가 없을 때는 새롭게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오브젝트 속성과 데이터 타입 속성의 기존 어휘는 RDFS⁹⁹⁾, Foaf¹⁰⁰⁾, Geo¹⁰¹⁾, OWL-Time¹⁰²⁾, MF¹⁰³⁾ 를 참조했다.

표 IV-2. 공간 클래스의 속성 예시

속성	설명
rdfs:label	동보촬영소(東宝撮影所, とうほうスタジオ)
mf:oldAddress	京都
mf:currentAddress	東京都世田谷区成城1丁目4-1
mf:siteType	영화촬영소
mf:currentStatus	영업중
mf:statusDescription	개축(2008~2011)
geo:lat	35.634667
geo:long	139.604167
okeh:infoUrl	https://www.tohostudio.jp/
okeh:iconUrl	http://www.art-annual.jp/wp/wp-content/uploads/2015/02/b95bed9ec7c2ceb494b6485163537978.jpg

공간 클래스를 활용하여 조선악극단의 제1회 일본 순회공연 노정을 지도로

99) RDFS(RDF Schema): RDFS는 RDF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한 어휘를 제공하며, 기본 RDF 어휘의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w3.org/TR/rdf-schema/>

100) Foaf(Friend of a friend): Foaf는 '친구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어휘 체계로서 인물간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http://xmlns.com/foaf/spec/>

101) Geo는 WGS84(세계측지계) 기준 위도, 경도, 고도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어휘이다. <https://www.w3.org/2003/01/geo/>

102) OWL-Time은 디지털 자원의 시간 속성을 나타내는 온톨로지 모델로서 개체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 및 포함관계를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https://www.w3.org/TR/owl-time/>

103) 2019년 김현규가 '3.1운동에 관한 개방적 연계 데이터 구축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http://dhlab.aks.ac.kr/~pinocchio/wiki/index.php/3.1운동_데이터_모델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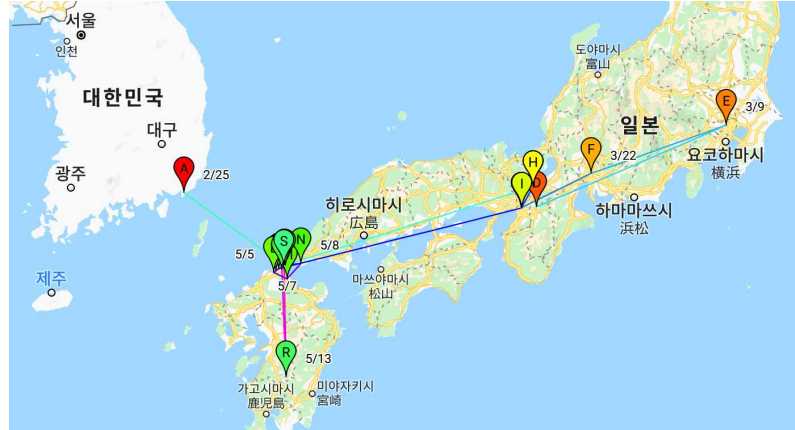


그림 IV-2. 조선악극단 제1회 일본 순회공연¹⁰⁵⁾

1) 행위자(Actor)

행위자 클래스는 인물과 단체를 포함한다. 각 인물과 단체는 범주별로 하위 클래스를 가진다. 인물은 가수, 작사가, 작곡가, 배우, 언론인 등 총 23개의 하위 클래스로 구성했다.¹⁰⁶⁾ 단체는 교육관련, 상호, 예술, 정치, 종교, 체육 등 6개의 하위 클래스로 구성했다.

표 IV-3. 행위자 클래스 설계 명세표

클래스	서브클래스	개체 예시
Actor	인물	이철, 현송자, 홍난파, 현제명 등
	단체	오케레코드, 조선악극단, 안동교회, 연희전문 등

104) 구글맵을 이용했다.

105) 1939년 3월부터 1939년 5월까지 63일 동안 총 204회의 공연을 했다. 1939년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교토(京都) 동보촬영소(東宝撮影所, とうほうスタジオ)에 일본영화 『思ひつき夫人』 출연장면을 촬영했다. 이 영화는 1939년 5월에 개봉했다.

106) 대중예술 활동의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세분화했다. 가수, 관료, 교육자, 국악가창, 극작가, 무용가, 배우, 사업가, 성악가, 소설가, 언론인, 연주가, 예술가, 예술 기획자, 음악가, 의사, 작곡가, 작사가, 정치인, 종교인, 활동가, 회사원, 기타로 구분했다.

인물 클래스는 8개의 속성을 가진다. rdfs:label은 인물의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외국어 이름, 다른 이름을 연결한다. 각각의 이름들은 (@ko), (@ch), (@other)와 같은 표식으로 구분했다.¹⁰⁷⁾

일제강점기 대중예술가들은 예명과 창씨개명 등을 통해 많은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¹⁰⁸⁾ 작품에 사용한 예명은 개별 노드 데이터로 정리하여 관계어로 연결하며, 창씨개명 등 기타 이름은 인물 클래스의 속성에 반영했다. 인물에 따라서 본적과 현주소 등은 정보의 유무 편차가 심하지만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인물 정보와 인물 사진은 웹에 공개된 백과사전류 정보를 연결했다.

표 IV-4. 인물 클래스의 속성

속성	설명
rdfs:label	라벨(한글 이름, 한자 이름, 외국어 이름, 다른 이름)
foaf:gender	성별
mf:birth	출생년/월/일
mf:death	사망년/월/일
mf:familyRegister	본적
mf:currentAddress	현주소
okeh:infoUrl	설명 웹 자원
okeh:iconUrl	이미지 웹 자원

단체 클래스는 7개의 속성을 가진다. 단체 클래스의 속성 설계는 인물 클래스를 참조하였다.

107) 김현규, 앞의 글, 2019. 59쪽 참조

108) 작사가 조명암(趙鳴岩, 191~1993)의 본명은 조영출(趙靈出)이며 김다인(金茶人), 김운탄(金雲灘), 김호(金湖), 남려성(南麗星), 부평초(浮萍草), 산호암(珊瑚岩), 양훈(楊薰), 이가실(李嘉實), 함경진(咸璟進) 등 10여 개의 예명을 사용했다.

표 IV-5. 단체 클래스의 속성

속성	설명
rdfs:label	라벨(한글 이름, 한자 이름, 외국어 이름, 다른 이름)
okeh:firstDate	설립년/월/일
okeh:lastDate	해산년/월/일
okeh:firstAddress	설립주소
mf:currentAddress	현주소
okeh:infoUrl	설명 웹 자원
okeh:iconUrl	이미지 웹 자원

2) 사건(Event)

사건 클래스는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성격을 세분화하여 서브 클래스로 구분했다. 서브 클래스 ‘정치사회’는 이철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며,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이런 예로 ‘부여회상곡’은 내선일체를 표방한 정치적인 작품이지만, 이철이 기획한 무용극이라 ‘예술활동’으로 분류했다.

표 IV-6. 사건 클래스 설계 명세표

클래스	서브클래스	개체 예시
Event	일반사건	윤치오, 현송자 결혼, 이억길 사건
	정치사회	고종 퇴위, 조선어학회 사건
	예술활동	조선악극단 국내공연, 부여회상곡
	회사관련	오케레코드 제1회 신보

사건 클래스는 3개의 속성을 가진다. 사건의 발생 장소는 공간 클래스, 발생 및 종료 시간은 시간 클래스와 연결했다.

표 IV-7. 사건 클래스의 속성

속성	설명
rdfs:label	라벨(명칭, 별칭)
okeh:firstDate	사건 발생일
okeh:lastDate	사건 종료일
okeh:infoUrl	설명 웹 자원
okeh:iconUrl	이미지 웹 자원

3) 공간(Place)

공간 클래스는 지명이나 단체 등의 중복을 피하고 활동반경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명으로 분류했다. 속성 설계에서 위도와 경도 값을 포함하였다.

표 IV-8. 공간 클래스 설계 명세표

클래스	서브클래스	개체 예시
Place	한국	경성 부민관, 동양극장 등
	일본	도쿄 제국극장, 나고야 극장 등
	중국	북경, 상해 등
	만주	봉천, 신경 등

공간 클래스는 10개의 속성을 가진다.¹⁰⁹⁾

표 IV-9. 공간 클래스의 속성

속성	설명
rdfs:label	라벨(명칭, 별칭)
mf:oldAddress	사건 발생 당시의 주소
mf:currentAddress	현재 주소
mf:siteType	유형(교회, 학교 등)
mf:currentStatus	현재 상태
mf:statusDescription	상태 설명

109) 김현규의 분류를 따른다. 김현규, 앞의 글, 2019. 60쪽 참조

geo:lat	위도
geo:long	경도
okeh:infoUrl	설명 웹 자원
okeh:iconUrl	이미지 웹 자원

4) 시간(Time)

시간 클래스는 광복 이전 전 기간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날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연도를 표기하며, 정보가 없을 때는 시기 미상으로 분류했다.

표 IV-10. 시간 클래스 설계 명세표

클래스	서브클래스	개체 예시
Time	1925년	1925년, 1925년 9월 등
	~1944년	1944년 6월 등

시간 클래스는 8개의 속성을 가진다. 일제강점기의 특성상 일본력을 포함했다.

표 IV-11. 시간 클래스의 속성

속성	설명
rdfs:label	라벨(명칭, 별칭)
time:year	연
okeh:japanTime	일본력
time:month	월
time:day	일
okeh:unknownTime	시기 미상
okeh:infoUrl	설명 웹 자원
okeh:iconUrl	이미지 웹 자원

5) 기록물(Record)

기록물 클래스는 문헌과 시청각으로 분류한다. 시청각은 영화와 연극, 음악 등이며, 음반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적인 음악을 포함했다.

표 IV-12. 기록물 클래스 설계 명세표

클래스	서브클래스	개체 예시
Record	문헌	조선총독부 관보, 연희전문 학적부, 동아일보 등
	시청각	思ひつき夫人 등

문헌 클래스는 6개의 속성을 가진다.

표 IV-13. 문헌 클래스의 속성

속성	설명
rdfs:label	라벨(한글 명칭, 한자 명칭, 외국어 명칭, 다른 명칭)
okeh:publishingCompany	발행처
okeh:publishingPlace	발행장소
okeh:publishingDate	발행일
okeh:infoUrl	설명 웹 자원
okeh:iconUrl	이미지 웹 자원

시청각 클래스는 6개의 속성을 가진다.

표 IV-14. 시청각 클래스의 속성

속성	설명
rdfs:label	라벨(한글 명칭, 한자 명칭, 외국어 명칭, 다른 명칭)
okeh:productionCompany	제작사
okeh:productionCountry	제작국

okeh:release	개봉일
okeh:infoUrl	설명 웹 자원
okeh:iconUrl	이미지 웹 자원

6) 음악(Music)

음악 클래스는 유성기음반으로 발행된 음악, 극, 연설 등 모든 유형의 작품을 포함한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작품은 기타분류의 하위 클래스인 미분류에 적용했다. 서브 클래스는 음반에 수록된 구체적인 작품의 유형으로 구분했다.¹¹⁰⁾ 작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했다. 전통음악은 가사, 경기무악, 경기민요, 경기잡가, 고사덕담, 남도민요, 남도잡가, 단가, 대중민요, 독서성, 독주, 동부민요, 범패화청, 병창, 서도무악, 서도민요, 서도잡가, 수궁가, 시조, 심청가, 연희소리, 재담소리, 적벽가, 창극, 창작판소리, 춘향가, 풍류기악, 합주, 홍보가의 29개 하위 클래스로 구분했다. 대중음악은 유행가, 만요, 신민요, 정책가, 경음악, 외국음악의 6개 하위 클래스로 구분했다. 구술음향은 교육, 구연, 연설의 3개 하위 클래스로 구분했다. 극음반은 가요극, 근대극, 영화설명, 만담의 4개 클래스로 구분했다. 서양음악은 근대가곡, 근대기악, 동요, 외국음악의 4개 하위 클래스로 구분했다. 기타분류는 나니와부시, 미분류의 2개 하위 클래스로 구분했으며, 음반번호와 연주는 별도의 하위 클래스를 두지 않았다.

표 IV-15. 음악 클래스 설계 명세표

클래스	서브클래스	개체 예시
Music	전통음악	쑥대머리, 추풍감별곡 등
	대중음악	애수의 소야곡 등
	구술음향	조선어교육(제1학년용) - 해, 아버지와 아들 등
	극음반	어머님전상백, 서울구경 등
	서양음악	희망의 속삭임, 아베마리아 등

110) 배연형의 유성기음반 분류를 참조하여 재분류하였으며 음반 번호는 따로 추가하였다. 배연형, 앞의 책, 2019. 655~657쪽 참조

	기타분류	백제의 칼 ¹¹¹⁾ , 미분류 등
	음반번호	Okeh 100, Okeh 1500 등
	연주	관현악, 단소, 대금 등

음악 클래스는 7개의 속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음악 온톨로지를 설계하지 않았으므로 음악의 가창, 작사, 작곡 등 인물과 관련된 속성은 관계어 (Object Property)로 간소화했다.¹¹²⁾

표 IV-16. 음악 클래스의 속성

속성	설명
rdfs:label	라벨(한글 명칭, 한자 명칭, 외국어 명칭, 다른 명칭)
okeh:tradeMark	상표
okeh:productionCompany	제작사
okeh:recordingNumber	녹음번호
okeh:recordingDate	녹음일
okeh:infoUrl	설명 웹 자원
okeh:iconUrl	이미지 웹 자원

7) 개념(Concept)

개념 클래스는 추상적인 내용을 지칭한다.

표 IV-17. 개념 클래스 설계 명세표

클래스	서브클래스	개체 예시
Concept		독주, 합주, 다방, 조선 귀족 등

111) 나니와부시(浪花節, なにわぶし)로 창작된 음악이다. 나니와부시는 일본의 전통음악 장르이다. 로쿄쿠(浪曲, ろうきょく)라고도 한다.

112)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에 집중했기에 음악의 작사, 작곡 등에 해당하는 속성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관계어 'isRelatedTo'로 정의했다.

개념 클래스는 3개의 속성을 가진다.

표 IV-18. 개념 클래스의 속성

속성	설명
rdfs:label	라벨(한글 명칭, 한자 명칭, 외국어 명칭, 다른 명칭)
okeh:infoUrl	설명 웹 자원
okeh:iconUrl	이미지 웹 자원

8) 웹 자원(webResource)

웹 자원 클래스는 기록물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 URL을 연결한다. 기록물 클래스를 제외한 기타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 URL은 클래스의 속성으로 설계하였다.¹¹³⁾ 문헌 자료와 시청각자료를 하위 클래스로 두며, 기존 웹 자원이 없으면 필요한 경우 신규로 생성했다.

표 IV-19. 웹 자원 클래스 설계 명세표

클래스	서브클래스	개체 예시
webResource	문헌자료	尹致昨氏 結婚 (每日申報, 1919.5.14.) 등
	시청각자료	노래조선 스틸 이미지 (1936) 등

웹 자원 클래스는 4개의 속성을 가진다.

113) infoUrl, iconUrl

표 IV-20. 웹 자원 클래스의 속성

속성	설명
rdfs:label	라벨
dc:source	원자료의 출처
okeh:firstDate	원자료 발행일
mf:sourceProvider	웹 자원 제공처
okeh:infoUrl	URL주소(정보)
okeh:iconUrl	URL주소(아이콘, 대표사진)

2. 관계성 설계

관계성 설계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Relation)를 기술하는 것이다. 개체 사이의 관계성을 표시해 주는 방법은 RDF 구문이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다.¹¹⁴⁾ 가령 ‘A’라는 텍스트와 ‘B’라는 인물 사이에 ‘~의 저자는 ~이다’라는 관계성을 서술어로 부여하는 RDF 문의 모양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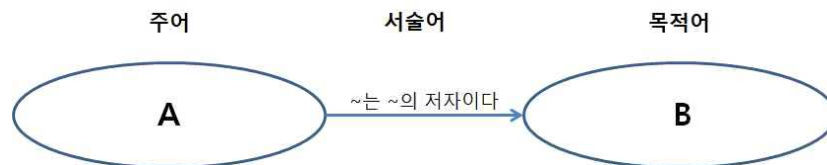


그림 IV-3. RDF 그래프¹¹⁵⁾

본 연구에서는 개체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인 어휘의 사용을 배제하도록 노력했다. 부자 관계처럼 가족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일상적인 인간관계는 시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우호

114) RDF(the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월드와이드웹 자원의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형식이다. 2004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권고안이 제시 되었으며, 시맨틱 웹 활동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다. RDF가 기술하는 웹 자원의 속성은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읽고 해석하기 위한 것이며, 인간을 대신하여 지능적인 정보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http://www.w3.org/RDF/> 김현 외, 앞의 책, 2016. 153쪽 인용

115) 김현 외, 앞의 책, 2016. 153쪽 인용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서로 관계가 있다(isRelatedTo)’라는 어휘로 단순화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어 어휘는 총 24개이며 EKC¹¹⁶⁾, NDRM¹¹⁷⁾을 참조했다. 관계어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21. 관계어 명세표¹¹⁸⁾

relation	Domain(X)	Range(Y)	설명
hasWife	A	A	X는 Y를 아내로 두다
hasConcubine	A	A	X는 Y를 첩으로 두다
isSonOf	A	A	X는 Y의 아들이다
hasDaughter	A	A	X는 Y를 딸로 두다
hasBrother	A	A	X는 Y를 형제로 두다
hasCousin	A	A	X는 Y를 사촌으로 두다
hasNephew	A	A	X는 Y를 조카로 두다
hasStepMothter	A	A	X는 Y를 계모로 두다
hasAdoptedHeir	A	A	X는 Y를 양자로 두다
hasFosterSon	A	A	X는 Y를 수양아들로 두다
hasFatherInLaw	A	A	X는 Y를 양부로 두다
knows	A	A	X는 Y와 잘 알고 있다
sameAs	A	A	X는 Y와 동일인이다
isMemberOf	A	A	X는 Y의 멤버이다
hasPart	A	A	X는 Y를 포함한다
supported	A	A	X는 Y를 지지했다
workedFor	A	A	X는 Y를 위해 일했다
graduatedFrom	A	A	X는 Y를 졸업했다
studiedAt	A	A	X는 Y에서 공부했다
hasPosition	A	C	X는 Y의 지위에 있다

116) 2016~201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교실에서 수행한 모델이다.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EKC_Data_Model-Draft_1.1

117) 2018년 김지명이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http://dh.aks.ac.kr/~joanne20/wiki/index.php/관계_데이터

118) 관계어 명세표에서 사용한 Domain과 Range의 클래스 약어는 다음과 같다. A(Actor), C(Concept), E(Event), P(Place), T(Time), R(Record), M(Music), W(webResource)이다.

isMainPersonOf	A	E	X는 Y의 주요인물이다
isMentionedIn	A, E	R, W	X는 Y에 언급되었다
isRelatedTo	A, C, E, M, R, W	A, C, E, P, T, R, M, W	X는 Y와 관계가 있다
isReportedIn	A, E, R	W	X는 Y에 보도되었다

1) 행위자 - 행위자 관계(Actor - Actor)

행위자 클래스는 인물과 단체를 서브 클래스로 둔다. 인물 클래스의 관계성은 가족관계를 세분화하고 일반관계는 단순화했다.

표 IV-22. 행위자 - 행위자 관계성

relation	Domain	Range	설명
hasWife	인물	인물(가족)	~를 아내로 두다
hasConcubine	인물	인물(가족)	~를 첩으로 두다
isSonOf	인물	인물(가족)	~의 아들이다
hasDaughter	인물	인물(가족)	~를 딸로 두다
hasBrother	인물	인물(가족)	~를 형제로 두다
hasCousin	인물	인물(가족)	~를 사촌으로 두다
hasNephew	인물	인물(가족)	~를 조카로 두다
hasStepMothter	인물	인물(가족)	~를 계모로 두다
hasAdoptedHeir	인물	인물(가족)	~를 양자로 두다
hasFosterSon	인물	인물(가족)	~를 수양아들로 두다
hasFatherInLaw	인물	인물(가족)	~를 양부로 두다
knows	인물	인물(일반인)	~와 잘 알고 있다
sameAs	인물	인물(일반인)	~와 동일인이다
isRelatedTo	인물	인물(일반인)	~와 관계가 있다
isMemberOf	인물	단체	~의 멤버이다
supported	인물	단체	~를 지지했다
workedFor	인물	단체	~를 위해 일했다

graduatedFrom	인물	단체	~를 졸업했다
studiedAt	인물	단체	~에서 공부했다
isRelatedTo	인물	단체	~와 관계가 있다
hasPart	단체	단체	~를 포함한다
isRelatedTo	단체	단체	~와 관계가 있다

2) 행위자 - 사건 관계(Actor - Event)

행위자와 사건의 관계는 주요당사자 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이역길 사건’에서 주요당사자는 이철과 현송자이며, 나머지 인물과 단체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V-23. 행위자 - 사건 관계성

relation	Domain	Range	설명
isMainPersonOf	인물	사건	~의 주요인물이다
isRelatedTo	행위자	사건	~와 관계가 있다

3) 행위자 - 공간, 시간 관계(Actor - Place, Time)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발생한 시간과 공간은 모두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로 단순화했다.

4) 행위자 - 기록물 관계(Actor - Record)

행위자는 특정한 기록물에 기록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표 IV-24. 행위자 - 기록물 관계성

relation	Domain	Range	설명
isMentionedIn	행위자	기록물	~에 언급되다
isRelatedTo	행위자	기록물	~와 관계가 있다

5) 행위자 - 음악 관계(Actor - Music)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주제로 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온톨로지를 설계하지 않았다. 각 행위자의 작사, 작곡, 가창, 공연 등 모든 행위를 관계성으로 설계할 수 있으나 이는 다음 연구로 기약한다. 따라서 행위자와 음악의 관계도 모두 ‘~와 관계가 있다(isRelatedTo)’로 통일하였다.

6) 행위자 - 개념 관계(Actor - Concept)

개념은 추상적인 내용을 지칭하며, 행위자와 개념의 관계성은 단순하다. 행위자는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특정한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표 IV-25. 행위자 - 개념 관계성

relation	Domain	Range	설명
hasPosition	인물	개념	~의 지위에 있다
isRelatedTo	행위자	개념	~와 관계가 있다

7) 행위자 - 웹 자원 관계(Actor - webResource)

본 연구에서는 ‘~에 언급되다(isMentionedIn)’와 ‘~에 보도되다(isReportedIn)’를 구분해서 설계했다. 신문과 잡지에 기록된 모든 사항은 ‘~에 보도되다’로 했으며, 기타 문서와 서적류 등의 문헌 사항에 속하는 내용은 ‘~에 언급되다’로 통일했다. 신문과 잡지에 보도된 사항은 가능하면 모두 웹 자원으로 구성했다.

표 IV-26. 행위자 - 웹 자원 관계성

relation	Domain	Range	설명
isMentionedIn	인물	웹 자원	~에 언급되다
isReportedIn	행위자	웹 자원	~에 보도되다

8) 개념 - 행위자, 개념, 사건, 음악 관계(Concept - Actor, Concept, Event, Music)

추상적인 개념은 특정한 클래스와 모두 ‘~와 관계가 있다(isRelatedTo)’로 단순화했다.

9) 사건 - 기타 클래스 관계(Event - Actor, Event, Place, Time, Record, Music, Concept, webResource)

사건은 모든 클래스와 ‘~와 관계가 있다(isRelatedTo)’로 단순화했다. ‘이억길 사건’은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와 관련이 있고, 안동교회라는 공간과 1930년이라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각종 문헌류에 언급되거나 보도되었다.

표 IV-27. 사건 - 각 클래스 관계성

relation	Domain	Range	설명
isRelatedTo	사건	행위자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	사건	사건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	사건	공간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	사건	시간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	사건	음악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	사건	기록물	~와 관계가 있다

isMentionedIn	사건	기록물	~에 언급되다
isRelatedTo	사건	웹 자원	~와 관계가 있다
isMentionedIn	사건	웹 자원	~에 언급되다
isReportedIn	사건	웹 자원	~에 보도되다

10) 음악 - 기타 클래스 관계(Music - Music, Time, webResource)

음악 클래스는 각 클래스와 ‘~와 관계가 있다(isRelatedTo)’로 단순화했다.

11) 기록물 - 각 클래스 관계

기록물 클래스는 각 클래스와 ‘~와 관계가 있다(isRelatedTo)’로 단순화했다. 신문과 잡지류에 보도된 사항만 따로 구성했다.

표 IV-28. 기록물 - 각 클래스 관계성

relation	Domain	Range	설명
isRelatedTo	기록물	행위자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	기록물	사건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	기록물	기록물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	기록물	음악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	기록물	음악	~와 관계가 있다
isRelatedTo	기록물	웹 자원	~와 관계가 있다
isReportedIn	기록물	웹 자원	~에 보도되다

12) 웹 자원 - 기록물 관계

웹 자원 클래스는 기록물 클래스와 ‘~와 관계가 있다(isRelatedTo)’로 단순화했다.

3. 데이터베이스 구현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 구현 방법은 데이터의 시각화 기술을 적용했다.¹¹⁹⁾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김현이 제안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Semantic Database Visualization)’ 기술을 따랐다.¹²⁰⁾ 이 기술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MS-Excel을 이용하여 사건의 최소 단위가 될 노드(Node)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맥 요소를 파악하여 클래스를 분류한다. 노드(Node) 데이터와 이들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Link) 데이터를 추출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에 적재한다.¹²¹⁾ 데이터 테이블과 링크 테이블로 구분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SQL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각 노드의 계층적 분류와 관계를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한다.¹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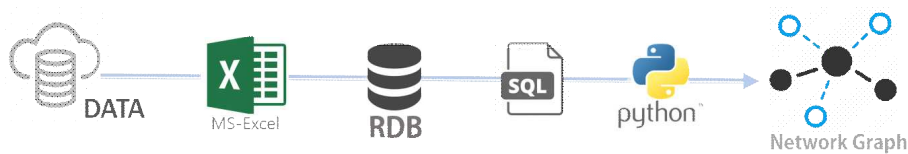


그림 IV-4.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순서도

119) 시각적 인문학의 한 분야는 인문학 지식으로 의미를 갖는 데이터의 관계망이나 통계적 수치를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김현 외, 앞의 책, 2016. 136쪽 참조

120) 김현이 개발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전공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2019’ 수업과정에서 적용하였다.

12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MS-SQL server 2017을 이용했다.

122) Semantic Database Visualization의 튜토리얼과 SQL Script 샘플은 위키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Semantic Database Visualization 튜토리얼, http://dh.aks.ac.kr/Edu/wiki/index.php/Semantic_Database_Visualization; SQL Script 샘플, http://dh.aks.ac.kr/Edu/wiki/index.php/Semantic_Data_SQL_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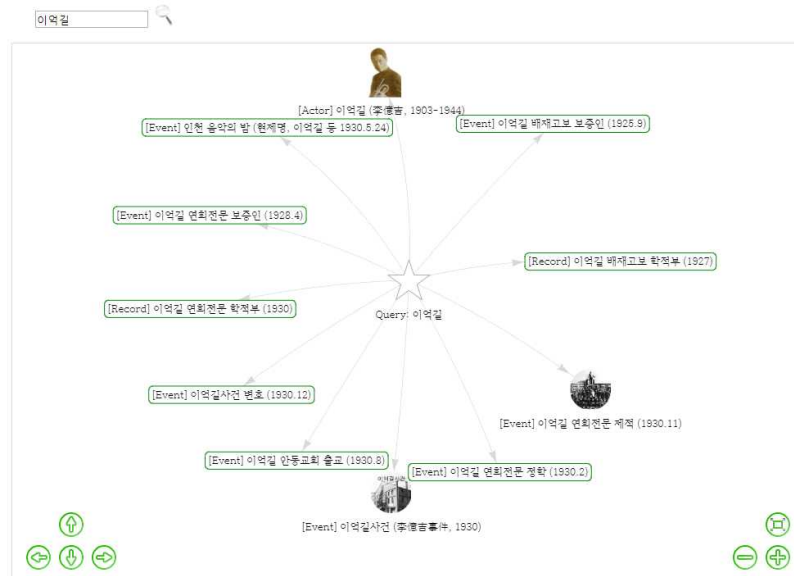


그림 IV-5.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노드 데이터의 총 수량은 4,986건이다. 음악 클래스의 노드 데이터는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작품 2,586개 외에 연주와 음반번호를 추가했다.¹²³⁾ 본 연구에서 구현된 클래스¹²⁴⁾와 데이터의 총 수량은 다음과 같다.

표 IV-29. 노드 데이터 분석 대상자원

클래스	내역	총량
인물	대중예술인, 관료, 종교인 등	519
단체	예술, 정치, 교육, 상호 등	121
사건	사회, 일반, 예술 등	48
공간	도시, 극장, 교회 등	56
시간	일제강점기	143
기록물	문서, 서적, 신문, 잡지 등	32

123) 음악 연주에 사용된 25개의 악기와 음반번호 1,291개이다.

124) Actor(행위자) 클래스는 편의상 서브 클래스인 인물과 단체로 구분하여 수량을 계산했다.

음악	오케레코드 발매 음반의 수록 작품 관련	3,902
개념	행위, 지위 등	48
웹 자원	당대 문헌 자료, 시청각자료 등	52
합계		4,921

표 IV-29를 바탕으로 구성된 링크 데이터의 수량은 총 14,042건이다.

V. “이철과 오케레코드” 디지털 스토리텔링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통해 학문적 연구와 산업적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다양한 조건 검색을 통하여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견하고, 사건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과 산업 콘텐츠로서의 가치창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장의 서술이 최종 결론이 아닌 다양한 시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해석은 진실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방법이기도 하다.¹²⁵⁾

1. 이억길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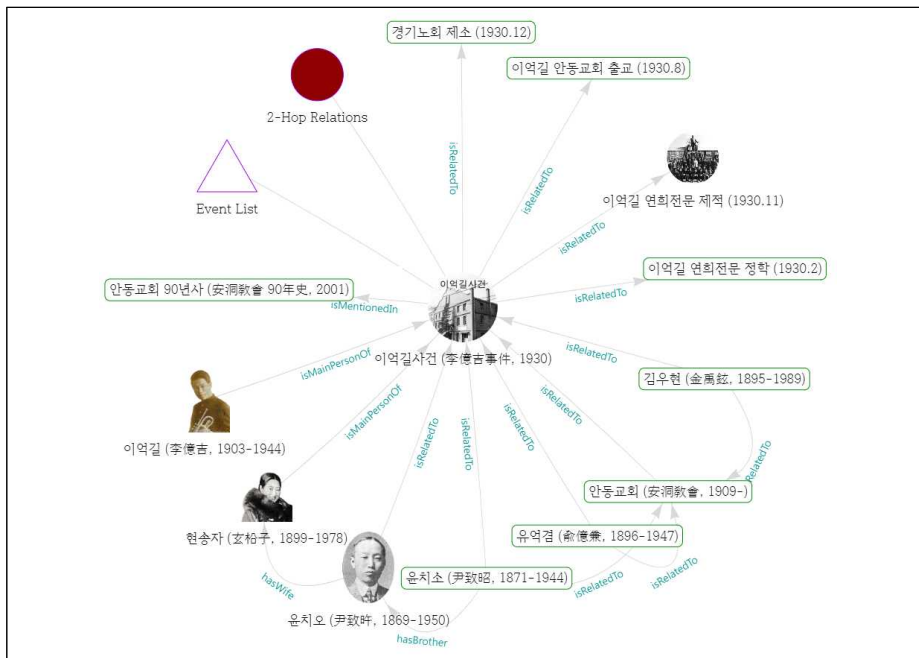


그림 V-1. <이억길 사건> 디지털 큐레이션

125) 역사학자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는 엄격한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은 없고, 역사가가 그것을 본인이 구상한 플롯(Plot)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라 말한다. 김지명, 박사학위 논문, 2018. 17쪽 재인용

이억길(李億吉, 1903~1944)은 이철의 본명이며, ‘이억길 사건’은 사건의 발생 장소인 안동교회의 역사편찬위원회에서 부여한 명칭이다.¹²⁶⁾ ‘이억길 사건’은 1930년 초부터 1930년 말까지 1년간 진행된 이철과 현송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다.¹²⁷⁾ 이 사건으로 인해 이철은 연희전문과 안동교회에서 쫓겨났으며, 윤치오의 부인이었던 현송자 또한 가정에서 쫓겨난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던 이철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원인으로 보이는 여러 차례의 학업중단을 겪으면서도 정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철의 신앙심과 교회의 지원이 예상되는 부분이다.¹²⁸⁾ 연희전문 학생이던 이철은 찬양대 지휘자, 주일학교 교사, 선교 모임 회원 활동 등으로 안동교회에서 매우 신망받고 있었다.¹²⁹⁾ 현송자(玄松子, 1899~1978)는 가세가 기울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버지 뻔인 윤치오에게 시집을 갔지만,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안동교회 유치원의 보모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과 유부녀로 서로 인연이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안동교회에서 만난 후로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¹³⁰⁾ 두 사람은 ‘이억길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오케레코드 설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6) 1908년에 설립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를 말한다. 『안동교회 90년사』(안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2001)에서 ‘이억길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127) 당시 연희전문학생 이철과 윤치오의 부인 현송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사건이다. 안동교회에서 사건이 표면화된 것은 1930년 여름이었지만, 이미 1930년 2월에 이철은 연희전문에서 정학을 당한다. 정학 이후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연말까지 사건이 진행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1년간 진행된 사건을 통틀어 ‘이억길 사건’으로 보았다.

128) 공주간이농업학교 이후에 이철이 수학한 학교는 공주영명학교,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 연희전문학교이다. 공주고등보통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독교 계통의 학교다.

129) 안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1. 118쪽 참조

130) “부모님의 명령으로 김중배 집으로 시집간다는 심순애의 처지와 가티 송자(松子)는 아버지의 곤경을 구하기 위하여 그보다도 강박에 못 익여 나히가 20년이나 틀니는 윤치오씨에게 시집을 간 것이다. 중략. 그는 늦기게 된 것이다. 레배당 출입에서 인연이 매져서 대상으로 나타난 것이 연전학생의 리(李)모군이다. 새로 맞보는 사랑, 그 사랑이 꿀맛 가트나 먹지 안호면 그 사랑의 에네르기도 삭아져 버리는 것이다. 그들도 이것을 절실히 늦기는 시기에 도달한 것이었다.” 1869년생인 윤치오와 1899년생인 현송자의 실제 나이 차이는 30년이다. 吳壽山, 「카페- 夜話, 한숨지는 孔雀들」 『別乾坤』 제55호, 1932.9.1. 참조.

본 연구의 디지털 큐레이션 결과 드러난 ‘이억길 사건’의 인물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1. <이억길 사건> 인물 관계표

구분	인물	인물 이력
안동교회	김우현	안동교회 목사
안동교회	윤치소	안동교회 장로, 현송자의 시동생, 윤보선 아버지
안동교회	유억겸	안동교회 집사, 연희전문 학감, 유길준 아들
안동교회	유성준	안동교회 장로, 유길준 동생, 유억겸 숙부
안동교회	홍숙자	안동교회 권사, 이철 양모, 이인규 처
시온회	이운재	안동교회 선교모임 시온회 회장, 한글학자
시온회	이억길	시온회 회원, 연희전문 학생
시온회	현송자	시온회 회원, 윤치오 처
현송자	윤치오	현송자 남편, 정치인, 윤치소 형, 윤치호 사촌동생
현송자	현영운	현송자 아버지, 고위 관료 역임
현송자	배정자	현송자 계모, 밀정, 배구자 고모
이억길	함태영	연동교회 목사, 민족대표 48인, 이억길 변호
이억길	현재명	연희전문 교수, 연희악대 지도교수
이억길	이인규	양부, 전직 관료, 홍숙자 남편

안동교회에서 1930년 여름에 표면화된 이철과 현송자의 이른바 ‘이억길 사건’은 당대 사회의 복잡한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치부이면서 많은 사람의 진로에 영향을 준 중대한 사건이었다.

안동교회는 서울 북촌에 거주하는 양반을 중심으로 1909년에 세워진 상류층 교회였다. 안동교회의 설립 이면에는 양반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세워 자존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그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을 계몽한다는 자부심이 깔려 있었다.¹³¹⁾ 그 교차점에 교육입국을 목표로 설립된 연희

131)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일상

전문학교가 있다.¹³²⁾ 이런 인연 때문인지 안동교회와 연희전문 사이에는 공통으로 관련된 인물이 유난히 많다. ‘이역길 사건’ 또한 안동교회와 연희전문이 밀접하게 관련된 복잡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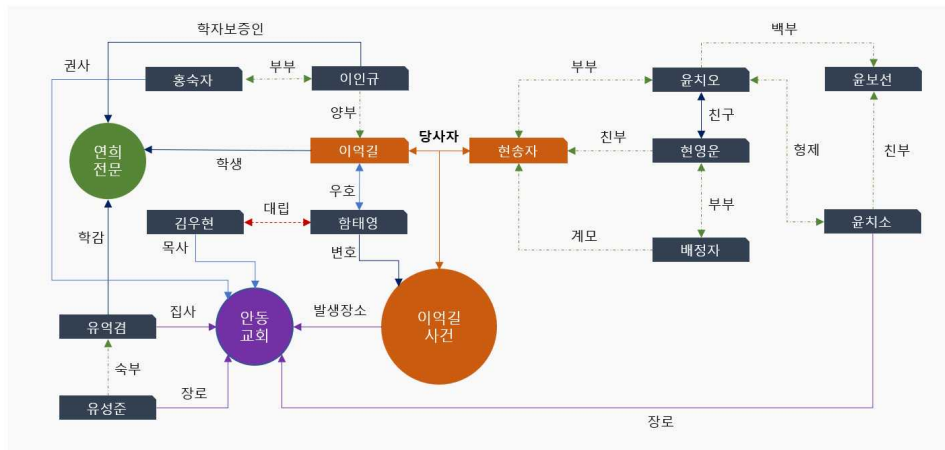


그림 V-2. <이역길 사건> 인물 관계망

‘이역길 사건’의 당사자인 현송자는 윤치오의 부인이며, 대한민국 4대 대통령 윤보선의 백모이다. 그리고 대한제국 육군참장을 역임한 현영운의 2녀이며, 일본의 밀정인 배정자의 의붓딸이다. 현영운은 대한제국 시기 황실 전용 극장인 협률사를 운영하면서 광대와 기생 등 대중예술인을 관리하기도 했으며, 배정자는 한국 최초의 근대무용가 배구자의 고모이기도 했다. 이철의 변호를 맡은 함태영은 3.1운동 민족대표 중 한 사람이며, 종교인이자 대한민국 3대 부통령을 역임했다. 이철이 연희전문에서 퇴학당하는 과정에 개입한 유억겸은 개화사상가 유길준의 아들이며, 연희전문 학감과 안동교회 집사를 맡고 있었다. 이철이 연희전문에서 퇴학당하는 이유로 밴드부의 악기를 자의적으로 처분한

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심했다. 북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근의 교회에 양반들이 출입하고 있었으나 특권의식이 강했던 그들은 일반인들과 차별화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안동교회는 상인들의 출입이 많아 어울리길 꺼렸고, 승동교회는 소실과 백정의 출입이 많아서 ‘첩장교회’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안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1. 19~21쪽 참조

132) 조선기독교대학이 모체인 연희전문은 설립 당시 YMCA 건물을 임시로 사용했는데, 이곳은 상류층 회합의 장소로 창설되었던 곳이었다. 류금주, 「연희전문학교와 서울 안동교회의 묘한 관련」 『한국장로신문』 2016년 6월 4일 자 참조. <http://www.jangro.kr/Jmissions/detail.htm?aid=1464661544&PHPSESSID=acdudfkr>

사건이 거론되었는데,¹³³⁾ 이 사건에 등장하는 밴드부 연희악대에는 현제명이 지도교수로 있었다. 이억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양반이나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애초부터 다툼이 성립되기 어려운 차별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교회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1년간이나 계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억길과 현송자의 퇴출은 물론 시온회의 와해를 불러왔고 나중에는 김우현 목사 또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해야 했다.¹³⁴⁾ 이 사건에서 당대의 저명한 음악가이자 연희악대의 지도교수인 현제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철은 사업적인 성공을 이룬 이후에도 현제명의 음반은 제작하지 않았다.

‘이억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 계급갈등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억길 사건’으로 인해 청년회원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한글 강습은 물론 역사교육과 연주회 개최 등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던 선교 모임 시온회는 와해하고 말았다. 청년들이 떠난 이유는 “유산계급(부르주아)을 두호해서 프롤레타리아인 가난한 청년을 쫓아낸다.”라는 항의가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¹³⁵⁾ 양반교회로 설립된 안동교회에서 ‘이억길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 관계는 젊은이들에게 아직도 진행 중인 사회의 차별적인 단면으로 각인되었던 것 같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은 없다’라는 헤이든 화이트의 서술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디지털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본인이 구상한 플롯에 따라 서술’하는 창작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 ‘이억길 사건’의 본질이 불륜이었는지, 아니면 계급갈등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살펴본 이 사건은 근대 시기의 다양한 모습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억길 사건’은 학교와 종교의 긴밀한 관련성은 물론 신분제의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던 양반과 평민의 봉건적 계급갈등 요소까지 포함한 근대의 풍경을 집약한 사건이었다.

133) 구체적인 내막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다. 안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1. 119쪽 참조

134) 안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1. 118~120쪽 참조

135) 안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1. 108쪽 참조



그림 V-3. 안동교회 하기 아동 성경학교(1926.8.19.)



그림 V-4. 안동교회 유년 주일학교(1930.5.4.)

<사진설명> 위쪽 사진 원안의 인물은 이철이고, 아래쪽 사진 원안의 인물은 이철과 현송자이다. 사진출처, 『안동교회 90년사』 136)

136) 안동교회역사편찬위원회, 『안동교회 9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2001

2. 오케레코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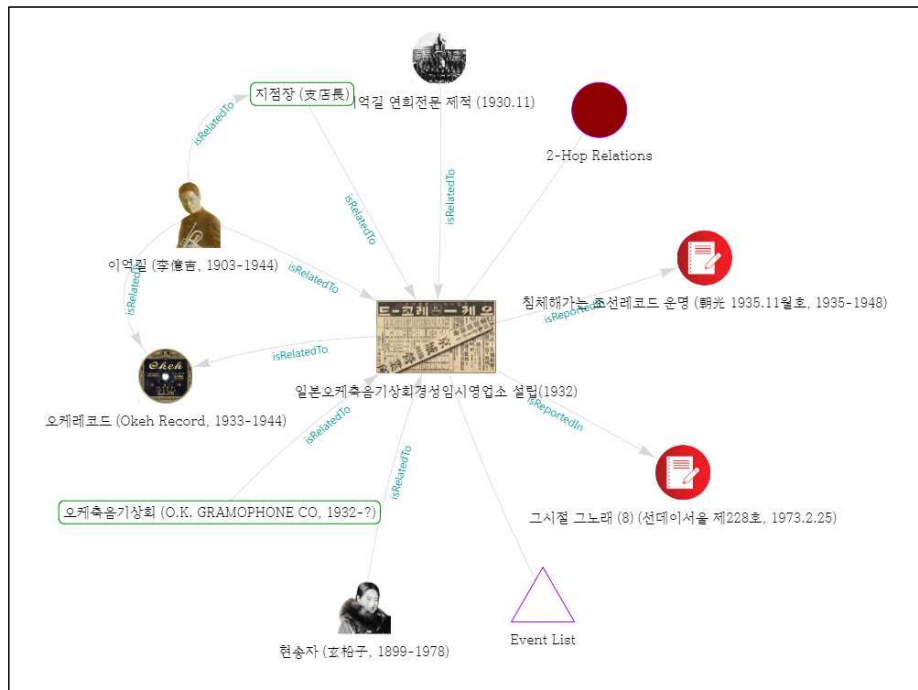


그림 V-5. <오케레코드 설립> 디지털 큐레이션

오케레코드는 1933년 2월에 첫 음반을 발행했다.¹³⁷⁾ 그때 사용한 회사의 정식 명칭은 ‘일본 오케축음기상회 경성 임시영업소’였고,¹³⁸⁾ 1933년 말경에 ‘일본 오케축음기상회 경성지점’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오케레코드의 설립 과정은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¹³⁹⁾ 선행 연구자들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당대의 자료를 찾지 못했기에, 업계종사자의 구술에 의지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억길 사건’ 이후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난 이철과 현송자는

137) “上海香港을 中心으로 數多한 東西 歌盤會社를 完全히 누르며 斯界의 人氣를 홀몰에 지고 가는 오케-레코-드가 一枚 定價 一圓이라는 奉仕의 廉價로 朝鮮에 出現하였습 니다.” 『동아일보』, 1933년 2월 1일 자 광고 참조

138) 日本オーケー蓄音器商會京城臨時營業所는 경성부 관철동 41번지에 주소를 두었다. 『동아일보』, 1933년 2월 1일자 광고 참조

139) 오케레코드가 한국에서 법인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구술자의 통설을 따라 설립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1930년 연말부터는 동거한 것 같다.¹⁴⁰⁾ 현송자는 한동안 카페의 여급으로 생활했기에 현영운이나 배정자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¹⁴¹⁾ 이철은 이 시기에 극장 무대 등에서 악사로 일했다고 알려졌다. 2년여간 방황하던 이철은 ‘우연한 기회에 제축의 간부를 만난’ 이후로 오케레코드를 설립하게 되었다.¹⁴²⁾

오케레코드의 설립 과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해석되지 않았던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오케레코드 설립 과정에서의 일본 제축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에서 사용한 ‘오케(Okeh)’라는 상호의 유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철의 경영권에 관한 문제이다.¹⁴³⁾

오케레코드는 제1회 신보를 발표하면서 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오케-레코-드 朝鮮盤이 新年의 太陽가치 半島에 出現!
上海香港을 中心으로 數多한 東西 歌盤會社를 完全히 누르며 斯界
 의 人氣를 홀몸에 지고 가는 오케-레코-드가 一枚 定價 一圓이라
 는 奉仕的 廉價로 朝鮮에 出現하엿습니다.
日本オーケ-蓄音器商會京城臨時營業所¹⁴⁴⁾

이 광고에 의하면 일본 오케축음기상회(日本オーケ-蓄音器商會)는 이미 상해와 홍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에 임시영업소를

140) 첫째 딸의 출생 시기는 1931년 10월이다.

141) 1932년 9월에 발행된 『별건곤』 제55호에는 카페 트로이카에서 일하는 현송자를 언급하고 있다. 현영운과 배정자는 1907년 이후 각종 사기 사건과 소송에 연루되어 신문에 보도되었다. 1907년 관직에서 물러난 현영운은 끊임없는 금전 관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수년간 사기와 송사 사건에 시달리던 끝에 마지막으로 1915년부터 1916년까지 금광에 관한 공유권 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1914년 경기도 양평군 양동에 67만 8천 평의 금광 소유권을 얻었지만, 이 소송 후 경매로 넘어갔다. 1930년 무렵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영운과 광송」 『매일신보』 1916년 5월 15일자; 吳壽山, 「카페- 夜話, 한숨지는 孔雀들」 『별건곤』 제55호, 1932. 42~43쪽 참조. http://db.history.go.kr/id/ma_015_0520_0250

142) 23쪽 각주 83번 참조

143) 배연형은 야마우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본에는 ‘오케(Okeh)’라는 회사도 상호도 없었으며, 대만에서 운영되던 ‘오케(Okeh)’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배연형, 앞의 책, 2019. 442쪽

144) 1933년 2월 오케레코드의 제1회 신보를 알리는 신문광고이다. 밑줄 필자 첨가. 『동아일보』, 1933년 2월 1일자; 『조선일보』, 1933년 2월 2일 자; 『매일신보』, 1933년 2월 2일 자 참조

개설해서 음반을 발매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신문광고의 회사 관련 문구를 사실 정보로 보지 않았기에 깊이 분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광고는 과장이 아닌 사실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에서 오케레코드가 설립되기 이전인 1932년에 일본에는 ‘오케(Okeh)’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O.K. Gramophone, 이하 ‘일본 오케’로 통일)가 존재했다.¹⁴⁵⁾ 이 회사의 운영자 카시오 케이조(樫尾慶三)가 작성한 자신의 이력서¹⁴⁶⁾와 일본과 중국¹⁴⁷⁾ 및 기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케레코드의 설립 과정과 ‘오케(Okeh)’라는 상호(商號)문제, 그리고 경영권 문제를 재구성해 본다.

카시오 케이조는 일본에서 유명한 녹음 기사였다.¹⁴⁸⁾ 1910년대에 혈연 관계로 추정되는 카시오 초에몬(樫尾長右衛門)이 사장으로 있는 오사카축음기 주식회사(大阪蓄音器株式會社, 1912~1920)의 이사로 재직했으나, 이 회사가 동양축음기주식회사(東洋蓄音器株式會社, 1912~1919)와 1919년에 합병된 후 활동거점을 중국으로 옮겼다.¹⁴⁹⁾ 카시오는 1922년 5월에 상해에서 상해 유성기공사(上海留声机公司)를 설립했으나, 1924년 9월에 중국유성기공사(中国留声机器公司)에 회사의 자산을 매각했다.¹⁵⁰⁾ 1927년에 중국유성기 공사는 대중화(大中华留声唱片公司)로 전환되었고 파테(百代), 빅터(勝利)와

145) 이때의 회사명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없으나, 일본 오케의 음반과 한국 오케레코드 신보 광고로 미루어보면 ‘오케축음기상회(オーケー蓄音器商會, Okeh Grmopohne)’로 짐작된다. 한국의 오케레코드가 설립되기 이전인 1932년 9월에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靈界通信」(淺野和三郎 외, 음반번호 1006-A, 1007-A)은 일본 오케에서 발매한 음반이다. 이 음반에 표시된 상표와 라벨(label)의 디자인은 한국과 대만의 오케레코드와 동일하다. 본문 73쪽 그림 V-7.V-8.V-9. 참조 바람

146) id:changpian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카시오 케이조(樫尾慶三)의 이력서 원본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수록했다. <http://changpian.hatenablog.com/entry/2012/02/07/105847>

147) 「樫尾庆三与上海留声机公司」 『孙中山及辛亥革命音频文献』, 由文心出版社 河南电子音像出版社, 2017

148) <https://www.weibo.com/ttarticle/p/show?id=2313501000014166115331826306>

149) 『蓄音器世界』에는 1918년에 합병한 것으로 나온다. 大阪蓄音機株式會社取締役樫尾慶三氏談과 東洋蓄音器合資會社々長木村德松氏談을 개재했다. 横田生, 「東洋、大阪兩蓄音器會社の合併談」 『蓄音器世界』, 蓄音器世界社, 1918년 4월, 4~5쪽;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 논문, 2009. 75~76쪽; id:changpian, 「大阪蓄音器と樫尾長右衛門」 『備考欄のようなもの』 블로그, 2012년 2월 4일자 참조, <http://changpian.hatenablog.com/entry/2012/02/04/195858>

150) <https://www.weibo.com/ttarticle/p/show?id=2313501000014166115331826306>

더불어 중국의 3대 메이저 회사가 된다. 카시오는 대중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929년 6월에서야 일본으로 돌아간다. 일본에서는 하나야시키(花屋敷)에 스튜디오와 프레스 공장을 갖추고 레코드 취입업(吹込業)을 시작했다.¹⁵¹⁾ 이곳에서 1932년에 제축(帝國蓄音器商會)의 첫 음반을 녹음했고,¹⁵²⁾ 조선과 대만¹⁵³⁾의 오케레코드 음반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카시오는 1934년 2월에 제축이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이사로 취임했다. 이때 오사카축음기의 사장이었던 카시오 초에몬은 감사역을 맡았다. 하나야시키에 있던 프레스설비는 나라(奈良)로 옮겨지고, 스튜디오의 제조담당자였던 사카모토 쿠마오(坂本久磨男)는 제축에 입사해서 나중에 공장장에 올랐다.¹⁵⁴⁾ 카시오가 제축에 합류한 이후에도 한국과 대만의 오케레코드는 제축에 합병되지 않은 것 같다.¹⁵⁵⁾

제축은 1931년 11월에 제국축음기상회로 설립되었다. 초대 대표는 요시카와(吉川島次), 보좌역에는 난코(南口重太郎), 그리고 오사카 영업소 주임은 이무라(井村良瑞)가 맡고 있었다. 카시오가 운영하는 하나야시키(花屋敷) 스튜디오에서 첫 녹음을 했으며 1932년 5월 이전에 음반을 발매했다.¹⁵⁶⁾

151) 「再び樞尾慶三について、そして朝鮮・台湾のオーケーレコード」; <http://changpian.hatenablog.com/entry/2012/02/07/105847> 참조

152)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 논문, 2009. 144쪽 참조

153) 興隆唱片公司(オーケー臺灣唱片, 오케 대만음반)에 관한 내용은 야마우치가 검증했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논문, 2009. 189쪽 참조, 국립대만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관련 음반을 살펴볼 수 있다. [http://cdm.lib.ntu.edu.tw/cdm/search/collection/78rpm./searchterm/Okeh\(%E5%A5%A7%E7%A8%BD\)](http://cdm.lib.ntu.edu.tw/cdm/search/collection/78rpm./searchterm/Okeh(%E5%A5%A7%E7%A8%BD))

154) ‘전직 테이치쿠 취입(吹込) 기사 미조타니 타케히토(溝谷武仁, 62)씨에 따르면 9년 2월(1934년 2월) 주식회사로서 재출발 이후 하나야시키(花屋敷)에 있던 프레스기 다섯 대가 나라(奈良)에 옮겨진다. 그때, 원래 소유자인 카시오 케이조(樞尾慶三) 씨가 이사로, 그 아버지나 형? 초에몬(長右衛門)씨는 감사역에 취임한 것 이외에 같은 스튜디오의 제조 책임자였던 사카모토 쿠마오(坂本久磨男)씨도 테이치쿠에 입사, 후에 공장장·이사에도 앉는다. 다섯 대의 프레스기는 합자회사(合資会社) 때의 대표를 지낸 요시카와(吉川島次) 씨 쪽 창고에 들어가고, 테이치쿠 나라 본사 공장의 태세가 갖추어질 때까지 이곳에서 레코드가 제조되었다.’고 한다 「レコード120年 埋もれた音と歴史」連載記事, 『神戸新聞』, 1999년 1월; 『備考欄のようなもの』 블로그, 2012년 2월 4일 자 재인용 번역, <http://changpian.hatenablog.com/entry/2012/02/04/195858>

155) 대만 오케는 1935년에 일동축음기에 합병되어 사라지고, 한국 오케는 1937년 이후에 제국축음기주식회사의 경성영업소로 편입된다. 그러나 한국 오케는 일제강점기 내내 제축과 별개로 독립적인 상표를 유지했다.

156) 난코는 1934년 2월에 제축이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대표를 맡는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 논문, 2009. 144쪽 참조

카시오는 녹음기술자로 활동하면서 제축의 음반생산에 관여했고, 이 일을 계기로 나중에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카시오가 제축에 참여한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프레스설비와 녹음 스튜디오를 이양하고 오케레코드의 음반에 대한 권리는 제축으로 이양하지 않은 것 같다. 또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애초부터 카시오에게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V-6. 카시오 케이조와 <오케레코드> 관계망

1935년 잡지에 언급된 이철이 ‘우연한 기회에 만난 제축의 간부’¹⁵⁷⁾는 카시오 케이조(樞尾慶三)가 분명해 보인다. 이철이 카시오를 만난 시기는 카시오가 제축에 합류하기 이전인 1932년 경이지만, 잡지 발행일인 1935년 당시의 직책을 반영하여 제축의 간부로 지칭한 것 같다. 오케레코드 신보 광고에 상해와 홍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회사라 밝힌 것은 카시오의 경력인 상해유성기공사와 대만 오케를 의도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만 오케는 한국의 오케레코드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빠른 시기에 설립되었다.¹⁵⁸⁾ 전술한 바와 같이 이철은 1930년에 ‘이억길 사건’을 겪었기에 카시오와 만난 시기는 1931년에서 1932년 사이일 것이다. 카시오가 상해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것은

157) 聽又聽生, 「沈滯해가는 朝鮮레코-드의 運命」 『朝光』 1935년 11월호. 159쪽

158)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 논문, 2009. 189쪽 참조

1929년으로 두 사람은 이전에 만날 기회가 없었기에, 제3의 인물이 매개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매개자가 이철의 부인인 현송자라는 설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현송자가 제축에 부탁해서 서울에 지점을 내고 이철이 사장을 맡았다는 것이다.¹⁵⁹⁾ 하지만 나이 차이나 활동 근거지로 보면 현송자와 카시오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 카시오가 현송자의 일본 유학 시절 친구의 아버지라는 설도 검증이 필요하다. 현송자 유학설 자체가 오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⁶⁰⁾ 오히려 현송자의 아버지인 현영운이나 계모인 배정자와의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해석의 가능성이 보이는 데이터로 배정자의 사진¹⁶¹⁾과 현영운의 말년 사진¹⁶²⁾이 있다. 이철의 호적에 의하면 배정자는 현송자와 혈연관계가 없지만, 현영운과 이혼한 뒤 27년이 지났는데도 현송자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했다. 현송자 또는 오케레코드와의 모종의 관련성이 추정된다. 그리고 1939년에 촬영된 현영운의 사진에는 의문의 남자가 등장한다.¹⁶³⁾ 이 남자는 오케레코드의 직원이고, 한편으로는 현영운의 비서라고 한다.¹⁶⁴⁾ 배정자는 무용가인 조카 배우자로 인해 대중예술과 인연이 있으며, 현영운 또한 대한제국의 황실극장인 협률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

‘오케(Okeh)’라는 상호에 관해서는 제국축음기(제국축음기상회 또는 주식회사)라는 어감이 한국인에게 거부감이 있어 이철이 독자적으로 사용했다는 김정구의 증언¹⁶⁵⁾과 현송자의 동창생¹⁶⁶⁾이 작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카시오가 늦어도 1932년부터 일본에서 사용한 상표였기에 이철이나 현송자의 동창생이 작명했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대만의 오케레코드(奧稽唱片公司)는 1932년에 설립되었고, 한국의 이철과 마찬가지로 현지인인 진방영(陳芳英)이 주관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콜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레코드를 생산했다.¹⁶⁷⁾ 카시오가 제축에 합류한

159) 조관희, 앞의 글, 1973.2.25.

160) 21쪽 각주 71번 참조 바람

161) 본문 35쪽 그림 III-2 참조 바람

162) 본문 74쪽 그림 V-2 참조 바람

163) 본문 74쪽 그림 V-11 참조 바람

164) 이철 3녀 이영미 인터뷰, 2009년

165) 박찬호,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449쪽 참조

166) 조관희, 앞의 글 참조

167) “この会社は当時の台湾人が経営するレコード会社の中でも規模は最も大きく、発行量も

1934년 이후에는 제축의 프레스 시설을 이용했으나,¹⁶⁸⁾ 1935년에 제축과는 무관한 일동(日東蓄音器株式会社)과 합병하면서 음반의 판권도 모두 일동으로 이관되고 ‘오케’ 상표는 사라지고 말았다.¹⁶⁹⁾ 이것은 카시오가 제축과 합류할 때 오케레코드에 대한 권리를 제축에 이양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진방영과 카시오의 공동의 경영권 또는 누군가의 독자적인 경영권이었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¹⁷⁰⁾

오케레코드의 경영권은 회사의 자본구성을 알 수 없어 분명하지 않으나 이철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여러 데이터가 증명한다. 1935년에 대만에서는 ‘오케(Okeh)’ 상표가 사라지지만 한국에서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존속된다. 1934년 2월에 카시오가 제축에 합류한 이후에도 1937년 2월까지 만 3년 동안 오케레코드 음반의 가사지에는 ‘일본 오케축음기상회 경성지점’이라는 상호가 사용되었다.¹⁷¹⁾ 카시오가 제축에 합류하면서 프레스 설비는 이양했지만, 일본의 오케축음기상회는 계속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상황이 마무리된 시점이 1937년 2월이고, 그 직전인 1937년 1월에 제축은 자본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며 판매망을 확장하고 있었다.¹⁷²⁾ 즉, 1937년에서야 카시오는 일본의 오케축음기상회에 대한 경영권을 제축에 완전히 이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에서야 주식회사 전환 이전부터 오사카 영업소 주임을 맡고 있던 제축의 이무라(井村良瑞)가 한국의 오케레코드에 지점장으로 파견되어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33년부터 계속 오케레코드의 음반 가사지에 발행인으로 등재되던 이철의 이름이 이무라로 변경되었다.¹⁷³⁾ 그렇다고 이철이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最も多かったが、その発行量と資本は日本人の経営する会社とは比べようもないものであった。” 이 회사는 당시 대만인이 경영하는 레코드 회사 중에서도 규모는 가장 컸고 발행량도 가장 많았지만, 그 발행량과 자본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http://changpian.hatenablog.com/entry/2012/02/07/105847> 인용, 徐麗紗, 『從日治時期唱片看臺灣的歌仔戲 上冊【探索篇】』, 國立傳統藝術中心, 2007. 87쪽

168) 輕輕行(음반번호 3220), MADE IN JAPAN TEIKOKU GRAMOPHONE CO, LTD. NARA

169) <http://changpian.hatenablog.com/entry/2012/02/07/105847> 인용, 徐麗紗, 『從日治時期唱片看臺灣的歌仔戲 上冊【探索篇】』, 國立傳統藝術中心, 2007. 87쪽

170) 대만 오케의 음반 가사지에는 발행자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 한국과는 달리 ‘오케’를 등록상표로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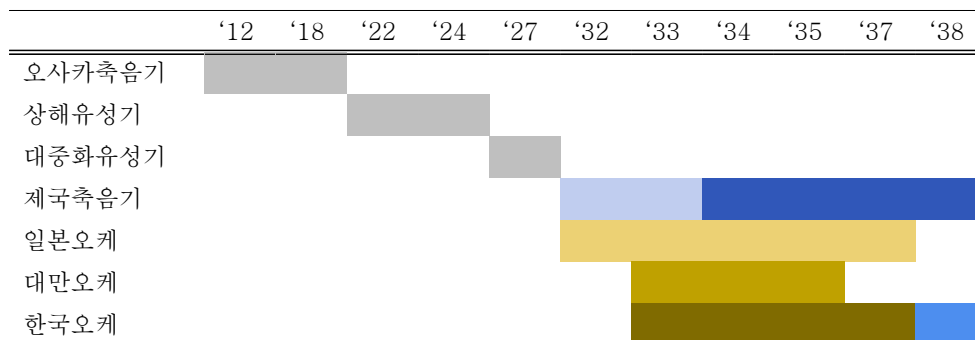
171) 23쪽 각주 80번 참조 바람

172) 야마우치 후미타카, 박사학위 논문, 2009. 147쪽 참조

173) 1939년 1월 20일 발행된 이화자의 <미녀도>(음반번호 12212번) 가사지에는 이철이

것은 아니었고 상표 또한 제축이 아닌 오케를 계속 사용했다.¹⁷⁴⁾ 일본에서 제축과 카시오의 경영권 이양이 끝났더라도 한국에서는 이철의 영향력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2. 카시오 케이조 활동표



이상의 근거를 종합하면 카시오는 늦어도 1932년 초에 오사카를 기반으로 ‘오케축음기상회’를 설립했으며, 이곳에서 주로 녹음과 음반 프레스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카시오가 운영하는 하나야시키의 취입소에서 제축의 첫 음반이 1932년 5월 이전에 녹음되었으며, 확인되는 독자적인 음반은 1932년 9월에 녹음되었다. 그리고 1932년 말 이전에 한국과 대만의 음반 관계자를 만나 합자 또는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대만 오케의 운영형태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국의 오케레코드는 지점 형태로 운영되었다. 카시오가 1934년에 제축과 합류한 이후에도 대만과 한국의 오케는 독립적인 오케 상표로 존속되었다. 다만 음반을 생산하기 위한 프레스 과정은 제축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야마우치는 1938년 1월에 설립한 조선녹음(주)의 업무로 인하여 잠시 경영권을 이양했던 이철이 이 무렵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1940년 1월 1일에 발행된 <오조>(음반번호 1829번) 가사지(채발매음반)에는 여전히 이무라가 발행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940년 2월 21일에 발행된 『조선악극단 제1집』에도 발행자는 이무라로 되어있다. 1938년 이후로 무슨 이유에선지 발행자의 이름에 이철과 이무라가 혼재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미녀도」 가사지, 1939. 1.20.; 「오조」 가사지, 1940.1.1.; 『조선악극단 제1집』, 조선악극단기획부, 1940. 참조

174) 현경섭 일기에는 1939년 이후에도 이철이 조선악극단의 공연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자로 구류를 살기도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점장 이무라와 상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현경섭, 『현경섭의 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1939년 4월 24일~5월 3일, 1940년 5월 25일 자 참조

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를 보면 카시오가 음반의 권리를 제축에 양도하지 않았거나, 지배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만 오케는 1935년에 제축과는 관련 없는 일동축음기로 합병되었고, 한국 오케는 1937년에서야 제축의 이름으로 음반을 발행한다. 한국에서 카시오의 영향력은 1937년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로도 한국의 오케 상표는 존속되었기에 이철이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살펴본 오케레코드의 설립 과정은 선행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철과 카시오를 중개한 인물이 현송자가 아닌 현영운 또는 배정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설로 알려진 오케레코드의 설립 과정에서 제축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며, 카시오 케이조와 일본의 오케축음기상회가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밝혔다. 오케레코드의 경영권도 카시오나 제축의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대만 오케의 예시로 짐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카시오 케이조라는 인물의 중요성이 새롭게 등장했다. 20세기 초부터 음반회사에 종사하면서 일본과 중국, 대만, 한국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림 V-7. 일본 오케 음반



<사진설명> 일본 오케레코드(O.K. GRAMOPHONE CO)에서 발매한 음반이다. 靈界通信(淺野和三郎 외, 음반번호 1006-A, 1007-A), 사진출처 毛利 眞人¹⁷⁵⁾



<사진설명>

대만 오케레코드(興隆唱片公司)에서 발매한 음반이다. 過去夢(麗鶯女士, 음반번호 F.3113-B)

그림 V-8. 대만 오케 음반



<사진설명>

한국 오케레코드(OK GRAMOPHONE CO)에서 발매한 음반이다. 대머리(신불출·윤백단, 음반번호 K.1518-A)

그림 V-9. 한국 오케 음반

175) <https://twitter.com/jazzrou/status/1033633895877468160>

그림 V-10. 오케레코드 사무실



<사진설명>

두 사진의 원안에 있는 인물은
동일인물이다. 이철의 3년 증언에 의하면
현영운의 비서로 추정된다. 아래 사진은
1939년 현영운이 사망하기 5개월 전이다.
오케레코드와 현영운의 관련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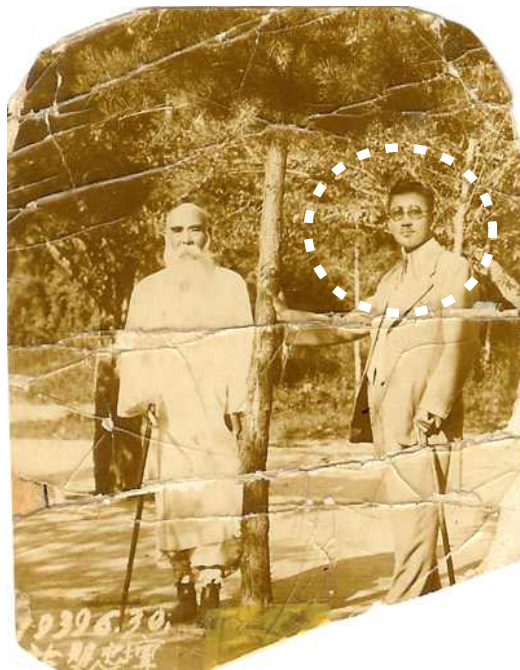


그림 V-11. 현영운과 비서

3.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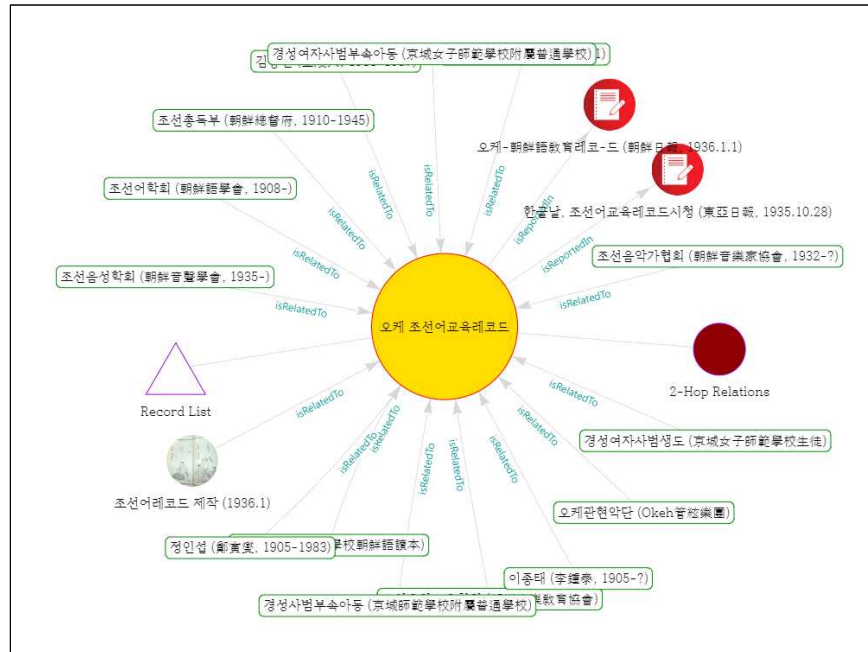


그림 V-12. <오케 조선어교육 레코드> 디지털 큐레이션

일제의 교육정책은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의 수탈을 위한 법적 토대로서 일본과 차별적으로 시행됐다.¹⁷⁶⁾ 조선총독부는 동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조선교육령의 공포를 통해 일본어 교육을 강조했다.¹⁷⁷⁾ 조선어의 민족적 성격을 탈각시키고자 조선어교육을 일본어 교육과 연결시켰으며,¹⁷⁸⁾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어 수호를 위한 조선어학회의 노력은 1936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176) 일본에서 시행한 교육제도와는 달리 식민지의 학교는 명칭도 다르게 정하고, 실질적인 교수 내용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시수나 졸업한 후 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차별했다. 오충신, 「강점기 언어정책에 대하여-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논문집』 2, 2010. 51~54쪽 참조

177) 조선교육령 설정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교육령의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4시기(1911년, 1922년, 1938년, 1943년)로 구분하거나 학교 시행규정 등의 공포와 개정 등으로 구분해 5~10시기로 나누기도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하야시야마 가오리, 『일제강점기 언어정책에 따른 초등 조선어 교과서 내용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0쪽 참조

178) 임동현, 「1930년대 조선어학회의 철자법 정리 통일운동과 민족어 규범 형성」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2014. 437~439쪽 참조

강력한 견제와 통제에 놓이게 된다. 1936년에 8월 10일에 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는 군국주의를 지상과제로 삼았던 인물이다. 1936년 8월 22일 동경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진정한 內鮮融和의 實을 거두어 一視同仁의 聖旨를 받드는 것’이라는 그의 신념이 잘 드러나 있다.¹⁷⁹⁾ 미나미 총독이 1938년에 실시한 제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이 일본국민이라는 자각을 철저하게 갖도록 하고, 학교에서 조선서 수업은 점차 없애도록 조치할 방침’ 아래 진행됐다.¹⁸⁰⁾

1935년에 제작해서 1936년 1월에 판매를 시작한 오케레코드의 ‘조선어 교육레코드’와 1936년 10월에 발표된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은 제3차 조선교육령이 있기 전에 시행된 매우 의미 있는 업적이었다. 오케레코드가 조선어교육레코드를 발행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1936년 1월 1일 자 조선일보에 부록으로 별지 4쪽의 광고¹⁸¹⁾를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하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朝鮮語文教育界의 太陽’이라는 문구는 문맹 퇴치를 위한 어문교육의 일환이라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고, ‘五萬朝鮮語敎員大動員’과 ‘初回發賣五萬枚突破’라는 문구는 실리를 취하려는 상업적 욕망이 드러난다. 회사로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이지만, 이철이 조선어교육 레코드를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확신하고 제작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다. 같은 시기 오케레코드보다 자본력과 판매망이 월등했던 콜럼비아, 빅타 등의 대규모 음반회사는 조선어교육 레코드 제작에 관심이 없었다. 더욱이 각 사의 문예부장은 민족주의 성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어교육 레코드 제작은 시도하지 않았다.¹⁸²⁾ 어쩌면 이철은 자신의 사업적

179) 임승관, 『일제강점기 3차 조선교육령(1938년도)의 시행과 성격』, 국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6쪽 재인용, 孫仁銖, 『韓國近代教育史』, 延世大學校出版部, 1971, p.236

180) 임승관, 석사학위 논문, 2008. 14쪽 참조. 極秘, 「國民教育ニ對スル方策」, 朝鮮總督府學務局, 1937년 8월, 『마이크로필름 陸海軍文書』

181) 「壯!! 오케-朝鮮語教育레코-드」, 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 자

182) 현실 타협적인 개량론적 부르주아의 한계가 있었으나 민족주의 및 민족문화의 핵심적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 보급 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석지훈, 석사학위 논문, 2017. 28~47쪽 참조

능력을 자신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명분을 앞세운 주위의 의견에 설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업을 기획했던 오케레코드 문예부장 금릉인은 1935년 『한글』 기고문¹⁸³⁾을 통해 오케레코드에서 제작한 조선어교육 레코드를 ‘朝鮮의 現下 焦眉 運動인 語文教育運動에 한 귀퉁이나마 寄與’하고 ‘兒童教育의 좋은 師友를 提供’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으며, ‘대중의 低級 趣味만 迎合하고 大衆의 質的 向上이 있을 때까지 健全한 레코드의 生産을 保留한다면 그것도 또한 큰일’이기에 ‘悲壯한 勇斷’을 내어 ‘犧牲을 覺悟하고 珠盤을 뛰어넘어서 좀 더 큰 利益을 도모’하고 ‘大衆의 要求’보다 ‘大衆의 質的 向上’을 꾀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어교육 레코드의 목적이 ‘어문교육운동’에 있으며 상업적인 희생을 각오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만 오케레코드는 조선어교육 레코드 제작을 결정하고도 한동안 망설였다. 이철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결국 제작을 강행했다. 수익성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정말 상업적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었는지, 또는 ‘어문교육’에 관한 신념이 투철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간접적인 정황을 해석하고 이철의 내면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조선어교육 레코드는 1935년 여름에 녹음을 마치고 10월 28일 한글날을 맞아 조선어학회 주최로 레코드 시청회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는 ‘標準語音敎會의 最初의 具體的試驗’으로 ‘蓄音機의 試聽’이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여 알리고 있다.¹⁸⁴⁾ 조선어학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이 레코드는 1935년 12월 5일에 신년 특별 신보로 발행된다. 당시 광고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突然!! 發賣!! 朝鮮語文敎育界의太陽 오케-敎育레코-드
各學校나家庭에서 이레코-드一組式을 具備치안코는 兒童을愛護한
다말나

<조선어교육 레코드 광고>¹⁸⁵⁾

183) 金陵人, 「朝鮮語敎育레코오드 吹入 製作의 經過」 『한글』 (3권 10호), 조선어학회, 1935. 496쪽 참조

184) 「한글記念會合」 『동아일보』, 1935년 10월 28일자

185) 『삼천리』 1936년 1월호, 밑줄 강조 필자

동아일보사는 전국규모의 문맹 퇴치 운동을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진행했다.¹⁸⁶⁾ 이런 상황에서 ‘어문교육운동’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오케레코드의 조선어교육 레코드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익을 좇는 상업회사에서 영업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한편으로는 아동을 사랑한다면 레코드를 구매하라며 상업적인 목적도 강조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지만 애초부터 수익성은 염려스러웠고, 이를 감당하기로 작정한 이철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황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표 V-3. <조선어교육 레코드 제작> 인물 관계표

구분	인물	인물 이력
시온회	이억길	시온회 회원, 연희전문 수학, 오케레코드 설립
시온회	이운재	안동교회 선교모임 시온회 회장, 조선어학회, 한글학자
조선어학회	이희승	조선어학회, 한글학자
연희전문	정인섭	조선음성학회 회원, 조선어학회, 연희전문 교수
연희전문	금릉인	오케레코드 문예부장, 문맹퇴치 운동, 민요채집
경무국	왕희필	경무국 도서과, 검열업무

조선어교육 레코드는 조선총독부의 관권소유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을 교재로 사용했기에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금릉인에 의하면 총독부가 민간회사의 상업용 음반제작에 교과서를 허가해준 전례가 없었지만 의외로 쉽게 해결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어학회, 조선음성학회, 조선음악교육협회, 조선음악가협회 등 조선어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았으며, 지도 선생으로는 독법지도에 경성여자사범학교 심의린, 작곡 및 음악지도에 중앙불교전문학교 이종태, 음성지도에는 연희전문학교 정인섭이 참여했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외의 인물들도 있었다.

186) 농촌 계몽운동의 하나로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러시아어인 ‘브나로드(v narod) 운동’으로도 불린다. 「브나로드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5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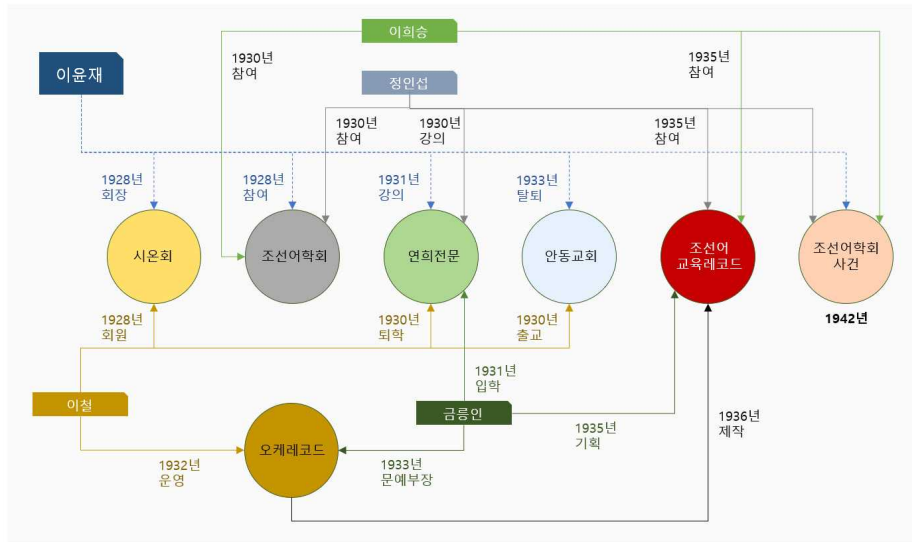


그림 V-13. 이윤재 관계망

이윤재(李允宰, 1888~1943)는 조선어교육 레코드에 관여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정확상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인물이다. 이윤재는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 운동가이자 한글학자, 역사학자이다.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부터 참여했으며, 기관지인 『한글』의 편집 및 발행의 책임을 맡았다. 안동교회에 출입하면서 청년학습과 선교 모임인 ‘시온회’를 이끌었다. 1928년 1월에 조직된 ‘시온회’는 회장 이윤재와 이억길(이철), 현송자 등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시온회는 선교 모임이었지만 각종 강습회와 코리안재즈밴드(Korean Jazz Band)¹⁸⁷를 초빙한 연주회도 열었다. 이윤재는 ‘시온회’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한글에 대한 강연을 여러 차례 했기에 이철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이철이 ‘이억길 사건’으로 안동교회와 연희전문에서 쫓겨난 후 이윤재 또한 목사와의 갈등으로 1933년에 안동교회를 떠난다. 이윤재는 1931년 4월부터 연희전문에서 강의를 맡았기에 이철과 학연으로도 맺어진다. 이윤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어학회의 1935년 한글날 회합을 알리는 동아일보 기사에는, 조선어교육 레코드 시

187) 밴드 멤버는 이철, 홍난파, 이인선, 홍재유, 최호영, 백명근, 김성준, 한옥 등이다.

청회를 알리는 글과 ‘한글 창제의 고심’이라는 이운재의 기고문이 나란히 게재되어 있어 이철과의 연관성을 예상할 수 있다.¹⁸⁸⁾ 이운재는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 갇혀 지내다 고문 후유증으로 1943년에 옥사했다.

이희승(李熙昇, 1896~1989)은 한글학자로 조선어학회의 주축 인물이다. 1930년에 조선어학회에 참가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1933년 완성)과 ‘표준어사정(標準語査定)’(1937년 완성)사업에 매진했다. 오케레코드에서 조선어교육 레코드를 제작할 때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격려했다.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 갇혔다.

정인섭(鄭寅燮, 1905~1983)은 아동문학자, 영문학자, 한글 운동가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주로 아동문학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¹⁸⁹⁾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1930년 무렵부터 조선어학회에 참가했다. 조선어교육 레코드에 참여해서 음성지도를 담당했다.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 갇혔다.

금릉인(金陵人, 1911~1937)의 본명은 승응순(昇應順)이고 고복수가 부른 <타향살이>의 작사가이다. 오케레코드의 설립 초기부터 문예부장을 맡았고, 우리 민요의 채집을 위해 제주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조선어교육 레코드를 기획하고 실무를 맡았다. 금릉인은 1926년부터 동시 창작활동을 했으며, 1931년 4월에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를 다니다 중퇴했다.¹⁹⁰⁾ 이철과는 연희전문 동문이다. 이운재와 정인섭은 금릉인과 사제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이운재가 연희전문에 출강한 시기와 금릉인의 입학 시기가 일치하고, 정인섭은 연희전문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아동문학 활동을 열심히 했기에 동시 작가였던 금릉인과는 친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왕희필(王熙弼, ?~?)은 조선어교육 레코드와 관련한 인물 중에서 가장 의외의 인물이다. 일제강점기의 경찰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서

188) 이운재, 「한글創製의苦心」 『동아일보』, 1935년 10월 28일자 참조

189) 한정호, 「정인섭의 아동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년. 298~305쪽 참조

190) 민경탁, 「작가 금릉인(金陵人)의 음악 인생과 가요사적 업적」 『대중음악』 10, 한국대중음악학회, 2012. 103-105쪽 참조

검열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¹⁹¹⁾ 레코드 검열과 허가 관련하여 오케 레코드와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금릉인의 기고문에 따르면 허가 과정 이전부터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왕희필이 ‘조선어교육 레코드 제작을 계획’하도록 힘써 주었다고 특별히 감사를 표했기 때문이다.¹⁹²⁾ 왕희필이 검열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 조선어교육 레코드의 계획 단계부터 관련된 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9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왕희필>

192) 金陵人, 「朝鮮語教育레코오드 吹入 製作의 經過」 『한글』 (3권 10호), 조선어학회, 1935. 498쪽 참조

그림 V-14. 조선어교육레코드 광고



<사진설명> 별지 4쪽으로 구성된 광고이다. 『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자, 사진출처 코베이(www.kobay.co.kr)

<사진설명>

조선어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글』 3호에는 오케레코드에서 제작한 조선어교육레코드 관련 글이 3편 게재되었다. 기획자 금릉인의 「조선어 교육레코드 취입 제작의 경과」와 심의련의 「독법 낭독법에 대하여」, 그리고 정인섭의 「언어교육과 축음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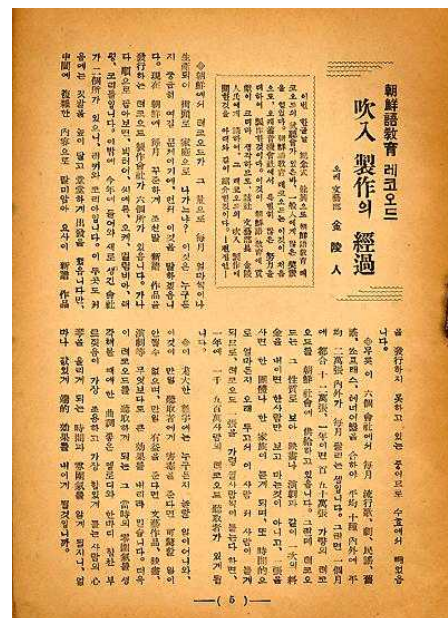


그림 V-15. 조선어 교육 레코드 취입 제작의 경과

4. 조선악극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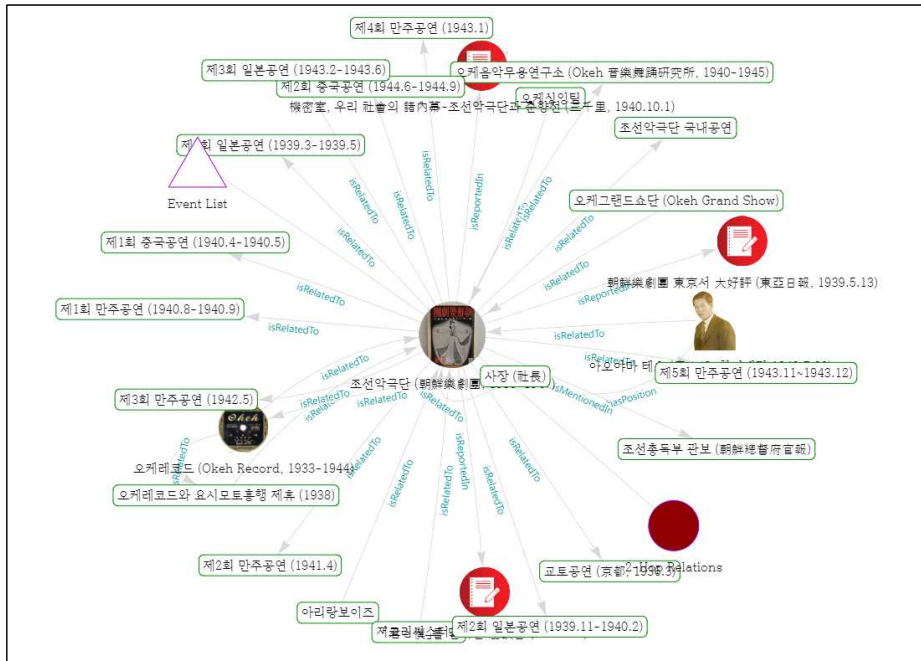


그림 V-16. <조선악극단> 디지털 큐레이션

KBS 10대 기획의 하나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19일까지 방영된 <한국의 유산>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다.¹⁹³⁾ 한민족의 우수성을 재조명한다는 취지로 매주 한 편씩 우리의 유산을 1분간의 함축적인 영상으로 편집해서 소개하였다. 2012년 2월 19일에는 <조선악극단>이 소개되었고 ‘조선악극단,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린 한류의 시작입니다.’로 마무리했다. 이 프로그램의 영상은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홍보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삭제되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조선악극단’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린 한류의 시작이었지만, 한편으로 일제에 협력한 공연 활동 때문에 친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광복 74주년이 지났으나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며, ‘친일’의 낙인은 지울 수 없는 천형과 같다. 그렇다고 1939년부터 이철이 사망할

193) <https://namu.wiki/w/한국의 유산>

때까지 진행된 조선악극단의 수많은 전쟁협력 공연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조선악극단은 일제강점기 한국을 대표하는 흥행단체로 한국과 일본, 중국, 만주를 활동무대 삼아 높은 인기를 누렸다. 당대 최고의 대중예술인들이 소속되어 활동했으며, 한국적인 향토색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악극단의 활동은 대중의 열렬한 갈채 뒤편으로 시대의 어둠이 깊이 투영된 부끄러운 흔적이 각인되어 있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전쟁의 한복판에서 활동했기에 전시체제의 통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제에 대한 조선악극단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본 연구의 주제는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에 관한 것으로 조선악극단의 공연과 ‘친일문제’를 회피하고선 연구주제를 살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조선악극단의 전쟁협력 행위에 관한 동기를 추적해볼 것이다.

오케레코드와 달리 조선악극단은 이철의 독립적인 사업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 공식적인 상업등기는 물론 공연 활동에서 드러난 이철의 행적 등을 근거로 사업체의 대표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데이터 상호 간의 연결점에서 조선악극단을 이철의 독자적인 운영체제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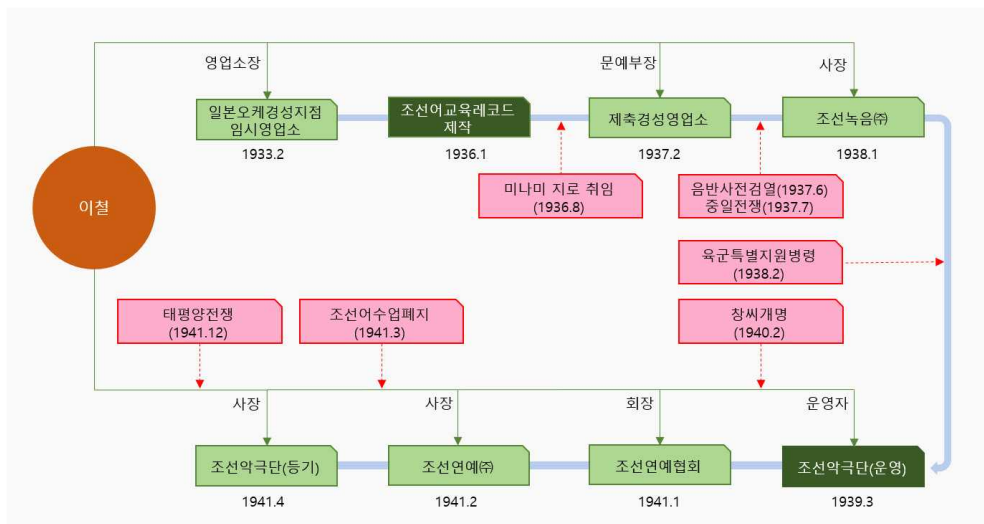


그림 V-17. <조선악극단>의 성립과정 관계망

1936년 1월 민족주의적인 조선어교육 레코드를 발표했던 오케레코드는 1937년 2월경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된다. 기존의 ‘일본 오케축음기상회 경성지점’에서 ‘제국축음기주식회사 경성영업소’로 전환되면서, 오케레코드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제축으로 변경되었다.¹⁹⁴⁾ 이는 이철의 경영권 약화를 의미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1937년 2월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는 제축 본사에서 파견한 이무라 료즈이(井村良瑞)가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이철은 문예부장으로 강등되어 역할이 축소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정치 사회적인 주요한 사건도 잇달았는데, 1936년 8월에는 미나미 지로가 제7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내선일체 정책이 추진되었고, 1937년 6월에는 총독부령으로 ‘필름레코드 인정규정’이 제정되면서 음반의 사전검열이 강화되자 음반제작 환경이 매우 경직되었다. 더구나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은 문화 예술 전반의 통제를 본격화시켰다.

이철은 지점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문예부장으로서 여전히 오케레코드의 한국어 음반제작 기획 및 예술가 발굴에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나 문예부장으로서 이철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오케레코드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자 음반의 취입 및 녹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녹음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⁹⁵⁾ 하지만 음반회사의 이익 구조는 원반의 소유권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수익은 대부분 제축에 귀속되었고,¹⁹⁶⁾ 이철은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음반제작이 아닌 공연 활동에 주목한 것 같다. 이철은 회사의 경영권에서 소외되고 음반제작에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공연수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오케그랜드쇼를 확대 개편한 조선악극단은 1939년 2월에 일본공연을 결정했다.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조선악극단의 제1회 일본공연은 이철에게 시련과 영광을 함께 주었다. 연주 여행 중에 발생한 출연료 분쟁 등으로 일부 단원은 조선악극단을 떠나고 공연 중에 사용한 조선어와 조선국기 때문에 일주일간 구류를 당하기도 했지만,¹⁹⁷⁾ 한편으론

194) 23쪽 각주 80번 참조 바람

195) 1938년 1월 1일 자로 설립된 조선녹음주식회사의 임원진 전체가 이철의 가족으로 구성됐다. 30쪽 각주 90번 참조 바람

196) 2쪽 각주 7번 참조

공연에 대한 호평과 영화출연 등으로 흥행 사업에 자신감을 얻은 계기가 되었다.¹⁹⁸⁾ 조선악극단의 공연은 한국인만을 관객으로 하지 않았기에 폭넓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양악 밴드를 강화한 것이었고,¹⁹⁹⁾ 조선의 향토색과 양악 밴드의 연주를 조화롭게 배치한 실험적인 공연은 대중에게 호감을 얻었다.²⁰⁰⁾ 하지만 조선악극단의 제1회 일본 순회공연의 첫 번째 공연(1939년 3월 9일)이 동경의 육군병원 연주회였다는 것은 향후 조선악극단의 진로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군국가요는 음반사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당국의 압박으로 비롯되었고, 이 시기에 오케레코드에서 발행한 음반의 수록곡에는 일체에 협력하는 노래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육군병원 공연은 이철의 자발적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전시체제 아래서 조선인으로 구성된 흥행단체의 일본 현지 공연은 예상하지 못한 불상사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군 위문 공연이 불상사를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해결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케레코드의 경영에서 소외된 이철이 조선악극단 운영에 전념한 이 무렵부터 음반제작과는 무관하게 일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육군병원의 위문 공연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보름 후 나고야극장에서 진행된 공연을 살펴보면 대강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조선악극단 공연 안내지에는 내선일체를 표방한 공연 프로그램이 실려 있다. 고유한 조선의 복색을 갖추고 조선 춤을 추고 조선말로 노래했지만,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어색한 공연이었다. 광고전단에 실린 공연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고야극장 공연 프로그램>²⁰¹⁾

ハントウのシヨウポート 春鶯賦

197) 이유성, 김생려, 남인수가 탈퇴했으며, 오사카 공연에선 조선어와 조선 국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철이 구류를 살았다. 『현경섭의 일기』 참조. 1939년 3월~5월

198) 1939년 4월 14일에 교토의 도호촬영소에서 영화『思ひつき夫人』 출연장면을 촬영했다.

199) 손목인 지휘하는 CMC밴드와 김해송, 박시춘 등이 구성한 아리랑보이즈는 주로 화려한 연주에 집중했었다.

200) 『현경섭의 일기』에 의하면 아침부터 관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939년 3월 11일 자

201) 「内鮮一體の朝鮮樂劇團」전단, 名古屋劇場, 1939년 3월

内鮮一體の豪華公演 朝鮮樂劇團

名古屋劇場 名古屋中區萬松寺新天地 電話 一〇五三番

吉本・名劇が力一杯に放つての行動!

今週のプログラム 自三月二十二日 至三月二十八日

春鶯賦 十二景

構成 朝鮮樂劇團 文藝部

演出 金用浩

照明 金興基

作曲 孫牧人

編曲 朴是春

音樂指揮 孫牧人

衣裳 京城 ローズテラー

- 1 豊年頌 - 全員
- 2 北京の夢 - 高福壽
- 3 連絡船は出る - 張世貞
- 4 行こうよ大地へ - 金貞九
- 5 大陸世代 - 南仁樹
- 6 別れの船唄 - 李蘭影
- 7 ジャズ メモリーショウ - CMCバンド
- 8 景福宮打鈴 - 趙英淑
- 9 曇後晴 - 南仁樹, 金綾子
- 10 娼婦打鈴 - 趙英淑
- 11 僧舞 - 崔仁順
- 12 金剛山牧童, アリラン - 李花子
- 13 厥男厥女 - 趙英淑, 金綾子
- 14 トラヴィアータ - 張世貞
- 15 満洲娘 - 金綾子
- 16 私夜店のワンタン屋 - 金貞九
- 17 あゝそれなのに小原節 - 李蘭影
- 18 愛馬進軍歌 - 李寅權

- 19 緑の地平線, 父よあなたは強かった - 南仁樹, 李蘭影, 李寅權, 張世貞
 20 愛國行進曲 - 全員

1939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나고야극장에서 진행된 이 공연은 첫날부터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었다. 절대로 조선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까지 받았지만, 이철이 교섭하여 둘째 날부터는 조선어로 공연할 수 있었다.²⁰²⁾ 나고야극장의 공연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부분에는 대표 가수의 히트곡을 배치하고 중간에는 한국의 민요와 전통무용을 선보임으로 한국적인 특색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군국주의 성향의 노래로 내선일체와 전시체제에 부응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공연의 구성을 바꿀 때는 재즈 밴드와 오페라 아리아로 장면 전환의 극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이런 구성은 일제 말까지 조선악극단 위문 공연 프로그램의 기본 틀로서 계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된 조선악극단의 제2차 일본공연은 1차 공연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준비된 공연이었다. 공연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홍보를 위한 별도의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²⁰³⁾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의 향토색을 강조하고 양악기를 이용한 조선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²⁰⁴⁾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함인지 공연안내 전단과 홍보 책자에는 공연기록을 상세히 안내했다. 조선악극단과 그 전신인 오케연주단의 공연기록은 다음과 같다.

<공연기록>²⁰⁵⁾

昭和八年度：京城，平壤，釜山

昭和九年度：京城，平壤，釜山，南朝鮮，西朝鮮，北朝鮮 一帶

202) 『현경섭의 일기』 1939년 3월 23일 자

203) 『조선악극단 제1집』, 조선악극단기획부, 1940년 2월 18일 발행

204) 郷土色も豊かな半島古典藝術を洋樂器により巧みにアレンジされた歌と踊とジャズのグランドショウ. 「오케-總動員 조선악극단」 공연 전단, 동경극장, 1939.12

205) 『조선악극단 제1집』, 조선악극단기획부, 1940년 2월 18일 발행; 「오케-總動員 조선악극단」 공연 전단, 동경극장, 1939.12

- 昭和十年度：京城，平壤，釜山，東京，大阪，京都，名古屋，神戸，南朝鮮，西朝鮮，北朝鮮 一帶
- 昭和十一年度：京城，平壤，釜山，東京，大阪，京都，名古屋，南朝鮮，西朝鮮，北朝鮮 一帶
- 昭和十二年度：京城，平壤，釜山，安東，奉天，新京，ハルピン，牡丹江，延吉，北滿，南朝鮮，西朝鮮，北朝鮮 一帶
- 昭和十三年度：京城，平壤，釜山，安東，奉天，新京，ハルピン，牡丹江，延吉，北滿，南朝鮮，西朝鮮，北朝鮮 一帶
- 昭和十四年度：京城，平壤，釜山，東京，大阪，京都，名古屋，九州，四國，北滿，中部朝鮮，北朝鮮，西朝鮮 一帶
- レコード吹込：テイチレコード，オーケレコード(朝鮮語盤)
 - ラヂオ放送：京城中央放送局，牡丹江放送局，咸興放送局，新京放送局，清津放送局，大阪放送局
 - 戦傷勇士慰問演奏：京城龍山衛生病院，小倉第一陸軍病院，東京軍醫學校病院，第二陸軍病院大藏分院，名古屋第一陸軍病院
 - 映畫出演：思ひつき夫人(東寶映畫)
 - 映畫製作：歌ふ朝鮮

이상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오케연주단은 오케레코드 설립 시기인 1933년(소화 8년)부터 대도시 공연을 시작했고, 1935년부터는 일본에 진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공연기록에서 밝혔듯이 일본군의 위문 공연도 중요한 일정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악극단은 일본과 중국, 만주 등지에 조선의 향토색을 널리 전파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일제의 전시체제에 협력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의 운영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단체에 소속된 예술인은 중복되었으나 각각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제축과 이철의 오케레코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현경섭이 1939년부터 1940년까지 2년간 기록한 일기에는 조선악극단의 공연기획과 자금관리 전반을 이철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⁶⁾ 현경섭의 일기에서 사용한 지점장이라는 호칭은 때에 따라서 이철과 이무라를

각각 지칭하지만, 이철에게는 전임자의 호칭으로 사용한 것 같다. 이무라의 이름은 재계약 등의 사안이 있을 때 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오케레코드의 경영권은 제축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것 같다. 이철이 주력하고 있던 조선악극단도 제축의 간섭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정황은 남인수 사건과 공연홍보물 등에서 살필 수 있다. 1939년 4월에 조선악극단을 탈퇴한 남인수는 복귀와 탈퇴를 반복했고,²⁰⁷⁾ 1940년 5월의 재입사는 이철의 단독결정이 아닌 이무라와 상의한 결정이었다.²⁰⁸⁾ 1940년에 발행된 조선악극단의 홍보용 책자인 『조선악극단 제1집』의 발행인도 이철이 아닌 이무라인 것을 보면, 조선악극단은 이철의 독립적인 운영체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²⁰⁹⁾

이철은 1940년 무렵 아직 체계가 정해지지 않았던 조선악극단의 운영형태를 본격적인 사업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다.²¹⁰⁾ 조선악극단의 독립을 위한 이 계획은 1941년에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 이철은 1938년에 설립했던 조선녹음주식회사를 1941년 2월 1일 자로 조선연예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흥행 사업을 추가한다. 김성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임원진에서 모두 퇴임시키고 전문 인력을 영입하였고,²¹¹⁾ 사업장 주소를 자신의 집 주소에서 오케레코드의 주소지로 이전한다. 같은 사무실에 두 개의

206) 『현경섭의 일기』 1939년 3월 8일 자

207) 남인수는 1939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경극장에서 열린 조선악극단의 공연에도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현경섭의 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1939년 3월~5월 참조; 「오케-總動員 조선악극단」 전단, 東京劇場, 1939년 12월

208) 현경섭은 남인수 재입사 과정에서 “이무라 지점장과 이철씨와 말이 잇는가” 다시 계약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이 시기 전후에도 남인수의 음반은 계속 오케레코드에서 발행되고 있었기에 재입사 대상은 조선악극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조선악극단은 독립적인 사업체가 아니었기에 재입사 형식은 회사가 아닌 공연의 출연 계약이었을 것이다. 현경섭, 『현경섭의 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1940년 5월 25일 자 참조

209) 『조선악극단 제1집』, 조선악극단기획부, 1940년 2월 18일 발행, 편집 겸 발행 인쇄인 井村良瑞

210) 私達の理想は、この劇團がよりよき生活力を持ち、舞臺の人達を立派な社會人に造りあげることでありまして、そのためには現在のいは白紙状態にあるものを事業の形態にまで發展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へて居ります。‘우리들의 이상은, 이 극단이 보다 좋은 생활력을 갖고, 무대 사람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현재의 이를 태면 백지상태에 있는 것을 사업의 형태로까지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 인사말, 『조선악극단 제1집』, 쪽수 표기 없음

211) 朴永順(모), 玄松子(처), 李億三(누이, 李億之, 李億元 동일인)을 퇴임시키고 河東聖采, 德山義民, 延山聖次를 임명한다. 「조선녹음주식회사변경-상호 조선연예주식회사」 『조선총독부관보』 제4261호, 1941년 4월 9일 자

회사를 공존시킨 것은 조선악극단과 오케레코드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이철의 적극적인 의지표현으로 추정된다. 조선녹음주식회사를 조선연예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직전인 1941년 1월 말에는 일제의 전시체제에 협력하기 위한 조선연예협회가 결성되고 이철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²¹²⁾ 마치 조선연예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회사로 조선연예주식회사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조선악극단에 대한 경영권확보가 목적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다. 이철이 두 달 뒤에 취한 또 다른 조치를 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이철이 1941년 4월 5일 자로 취한 두 번째 조치는 조선악극단이란 상호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설정한 것이다.²¹³⁾ 조선악극단의 공연 전반에 관한 업무와 자금관리는 이철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1940년까지도 오케레코드의 산하 단체처럼 운영되었기에 제축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업등기의 의미를 독립적인 경영권확보로 본다면 오히려 뒤늦은 행동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철이 오케레코드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조선악극단을 느슨하게 운영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로 발견되는 조선악극단의 전쟁협력 공연 배경에는 제축과 이철의 오케레코드 경영권 갈등이라는 주요한 동기가 작용한 것 같다. 이철은 사업의 성장기에는 조선어교육 레코드를 제작하면서 명분을 좇아 손해를 걱정하던 민족주의자의 일면을 보였으나, 사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조선악극단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고 일제에 협력하는 길을 택했다.

212) ‘연예의 건전한 발달과 연예인의 실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41년 1월 26일에 조선연예협회가 결성되고 이철이 회장으로 선임된다. 연예단의 경영자, 각본작가, 연출가, 작곡가, 연주가, 무용가, 미술가, 기타 연예단 소속원으로 연예 또는 연기자 사무에 종사하는 이들로 조직된 조선연예협회는 연예의 통제와 지도연예인의 양성과 제도에 관한 시설 등을 하기로 하여 사실상 전시체제에 협력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임원으로 회장 靑山哲, 이사 三木簡, 崔茂盛, 德山義民, 상무이사 任曙昉, 감사 朴源轍, 韓成俊이 선임되었다. 「조선연예협회 결성」 『매일신보』, 1941년 1월 27일 자

213) 「상호설정 - 상호 조선악극단」 『조선총독부관보』 제4306호, 1941년 6월 6일 자

그림 V-18. 조선악극단 나고야공연 전단지



<사진설명>

내선일체를 표방한 조선악극단의 일본 순회공연 전단지이다. 1939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나고야극장에서 공연됐다.



그림 V-19. <思ひつき夫人> 영화출연 후 기념촬영

<사진설명>

1939년 4월 14일에 교토(京都)의 도호촬영소(東宝撮影所)에서 조선악극단의 공연장면을 촬영했다.

5. 군국가요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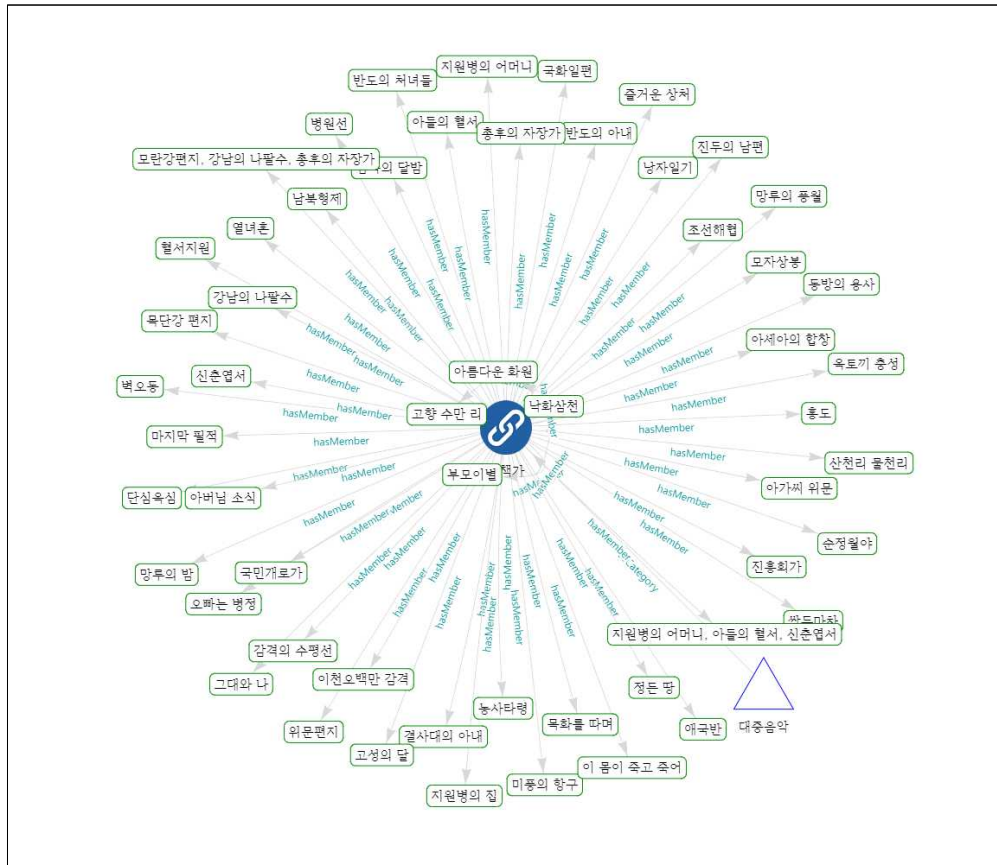


그림 V-20. <군국가요 제작> 디지털 큐레이션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제작된 군국가요는 대략 100여 곡 미만으로 추정된다.²¹⁴⁾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오케레코드에서 발행한 정책 가요의 수량은 55곡이며, 대부분 군국가요의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²¹⁵⁾

214) 이준희는 62곡 정도를 대표적인 군국가요로 보았으며, 배연형은 친일의 성향을 지닌 노래를 정책 가요로 분류하여 58곡으로 계산했다. 이동순은 제목 중심으로 추정하여 200여 곡으로 추산했다. 이준희, 「일제시대 군국가요(軍國歌謠) 연구」 『한국문화』 4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153쪽; 배연형, 『한국유성기음반문화사』, 지성사, 2019 .656쪽; 이동순, 「일제말 군국가요(軍國歌謠)의 발표현황과 실태」 『한민족어문학』 제59호, 한민족어문학회, 2011. 380~381쪽 참조

215) 오케레코드가 발행한 정책가요 중에서 ‘조선총독부 농촌진흥가 추천가’로 발표된 <농사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제국주의 야욕을 노골화한 일제는 1937년에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한국은 중일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재편되고 전시체제의 일상 통제가 강화되었다. 일련의 조치로 영화와 음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필름 레코드 인정규정’이 발표되고 조선어사용금지, 창씨개명, 지원병제도 등이 강제되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은 국가 간의 자유무역과 국제공조체제를 무너뜨리며 민족주의 성향을 부채질하고 과시즘 정권의 등장을 자극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군부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면서, 극우 민족주의와 대중적 과시즘이 준동한다. 일본의 대중들은 전쟁을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생활 보장, 농산어촌의 피폐 구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군부의 선전에 동조했다.²¹⁶⁾ 만주사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의 군국가요는 이런 대중의 정서를 자극하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군국가요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 발생 이후인 1937년 11월부터 이듬해 초까지였다.²¹⁷⁾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대중들의 외면으로 인해 군국가요는 거의 유통되지 않았다.²¹⁸⁾ 한국에서 군국가요가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태평양전쟁 발생 직후인 1942년에 들어서이다. 1941년 1월에 공연단체의 관리를 위해 조직된 조선연예협회가 1942년 7월에 조선연극문화협회로 통합되면서 공연예술 전반에 관한 총독부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통제가 강화되었다.²¹⁹⁾ 전시체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래는 검열을 통해서 통제하고, ‘건전 명랑한 오락물’을 장려했다.²²⁰⁾ ‘건전 명랑한

타령>(음반번호 12271) 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군국주의 성향을 보인다.

216) 박희, 「세계 대공황기 미국과 일본의 대응전략: 구성주의적 평가」 『담론201』 제2권 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8. 184~188쪽 참조

217) <총후의 기원>과 <정의의 행진>(음반번호 40793, 콜롬비아)을 시작으로 각 음반사에서 10여 곡의 군국가요를 발행했다.

218) “內地에서는 時局歌가 相當히 産出되었고 또 販賣成績도 좋았지요. 그러나 朝鮮서는 그렇게 좋은 成績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戰時盤이라고 있기는 있으나 成績이 그리 좋질 못합니다.”, “事變前後하야 폴리들에서도 朝鮮語盤으로 愛國歌를 냈었는데 販賣成績으로 보아서 그리 良好치는 못하였습니다.” 이준희, 앞글, 151쪽 재인용; 「레코-드界의 内幕을 듣는 座談會」 『조광』, 1939년 3월호, 314쪽

219) 각 음반회사에 전속된 작가나 가수들이 거의 조선연극문화협회에 가입되어 있었고, 협회를 통해 발급된 기예증을 통해 대중가요 종사자의 활동 가능 여부가 결정됐다. 이준희, 앞의 글, 2009. 152쪽 참조

220) 각사의 의지에 의해 “過去 軟調의 流行歌를 廢盤 或은 製造中止 處分”하고, “今後의 製作도, 眞正한 健全明朗 娛樂物을 目標로 新吹込 企劃中”이라 언급하고 있다. 그러

오락물'은 일제의 전시정책에 부응하는 '군국가요'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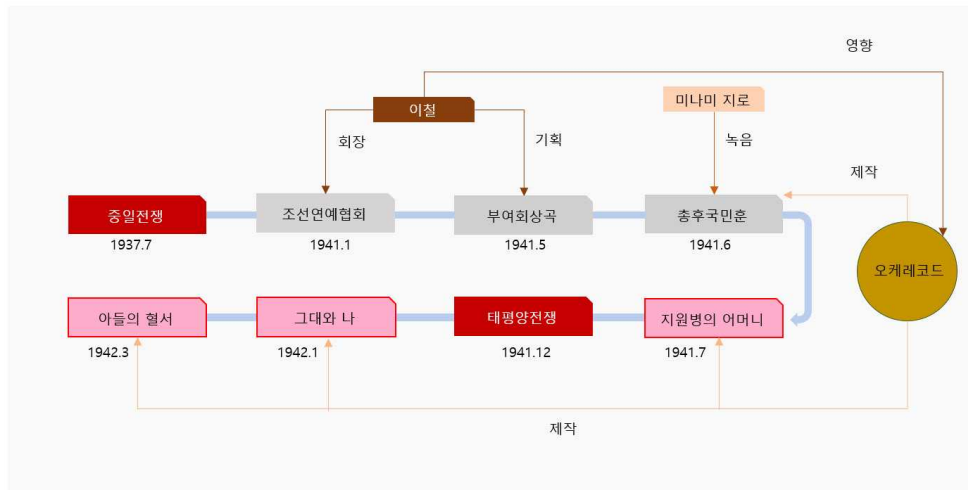


그림 V-21. <군국가요 제작> 관계망

조선악극단은 이미 1939년부터 일본군의 위문 공연을 펼치고 있었으며, 일반 공연에서도 군가를 비롯한 군국가요를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우리들은, 조선에서는 오케그랜드쇼·오케빅퍼레이드, 일본에서는 朝鮮樂劇團으로서 극력 건전하고 명랑한 대중예술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특히 조선에서는,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곤란합니다.²²¹⁾

1940년 이전까지 조선악극단의 공연 프로그램이 한국과 일본에서 상이하게 진행되었음을 이철이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41년 1월에 '조선연예협회'가 결성된 이후로는 한국의 공연무대에서도 내선일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철이 기획해서 1941년 5월에 공연한

나 음반사의 자체적인 의지보다는 총독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훈, 「流行歌의 걸어온 길」, 『조광』 1942년 7월호, 124면.

221) “私達は、朝鮮ではオーケグランドショウ・オーケビッグパレード、内地では朝鮮樂劇團として極力健全明朗な大衆藝術を提供すべく努めてまゐりました。斯の如き仕事は、特に朝鮮に於いては、健全に營むことが、非常に困難であります。” 이철 인사말, 『조선악극단 제1집』, 1940.2. 쪽수 표기 없음

「부여회상곡」은 국민총력조선연맹 주최, 조선총독부 후원으로 제작된 대규모 무용극이었다.²²²⁾ 「부여회상곡」 공연 직후인 1941년 6월에는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의 전시체제에 관한 국민훈화문이 오케레코드의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다.²²³⁾ ‘조선연예협회’를 배경으로 한 이철의 인적 관계는 조선총독부와의 협력관계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²²⁴⁾ 그리고 7월에는 오케레코드의 본격적인 군국가요제작을 알리는 <지원병의 어머니>가 발표됐다.²²⁵⁾ 매일신보의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²⁶⁾

血煙萬丈 속에 志願兵을 보내는 半島의 어머니!
 아들의 忠烈! 戰死는 우리 어머니들의 자랑이다.
 張世貞嬢의 熱唱盤!!

아들이 지원병으로 참전해서 전사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랑이라는 섬뜩한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오케레코드는 1942년 1월 조선군보도부가 제작한 영화 「그대와 나(君と僕)」의 주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군국가요를 양산하기 시작했다.²²⁷⁾ 오케레코드가 다른 음반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군국가요를 생산하게 된 것은 나름의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²²⁸⁾ 오케레코드는 1942년 이후에도 다른 음반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기에,²²⁹⁾ 음반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에서 군국가요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엄격한 통제가

222) 이철이 기획하고 이서구가 원안을 썼으며 조택원이 안무 연출을 맡았다. 「무용시 부여회상곡」 『국민신보』, 1941년 6월 1일자. 9쪽 참조

223) 두 매의 음반(음반번호 K5037~K5038)으로 구성된 이 연설 음반은 미나미(南次郎)의 ‘銃後國民訓’과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총장 카와기시(川岸文三郎)의 ‘總力を擧げて’가 수록되었다.

224) 조선연예협회는 조선악극단의 이철이 회장을 맡았고 라미라가극단(羅美羅歌劇團)의 최무성과 조선연극협회 회장이던 이서구 등이 참여했다. 99쪽 그림 V-22. 미나미 지로와 이철 참조

225) <志願兵의 어머니> (음반번호 31052, 조명암 작사, 서영덕 편곡, 장세정 노래)는 일본 군국가요인 <軍國の母>(영화 「國家總動員」 주제가, 島田磐也 作詞·古賀政男 作曲, 1937년)를 번안한 노래이다. <軍國の母>는 오케레코드의 본사인 제축에서 발행했다.

226) 「志願兵의 어머니」 『매일신보』, 1941년 7월 28일 자

227) 98쪽 표 V-4. 오케레코드 발행 주요 군국가요 참조

228) 1942년 이후 군국가요를 생산한 음반사는 오케레코드와 태평, 콜럼비아이며 곡의 수량은 각각 30곡, 12곡, 10곡이다.

229) 1942년 이후 발매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곡의 수량은 음반사별로 오케 140곡, 태평 96곡, 콜럼비아 64곡, 폴리돌 8곡, 빅타 6곡이다.

시행되던 전시체제 음반사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²³⁰⁾ 1937년 이후로 오케레코드의 경영권은 제축이 행사하고 있었기에 이철의 관여 정도를 분명하게 가늠하기는 어렵다.²³¹⁾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음반회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취한 음반제작 방침은 한국인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²³²⁾ 더불어 1939년부터 일본공연을 시작한 조선악극단의 프로그램과 1941년 조선연예협회 결성 이후 이철의 행적을 살펴보면, 오케레코드의 적극적인 군국가요 발행은 이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30) 이준희, 앞글, 2009. 154쪽 참조

231) 99쪽 그림 V-23. <총후국민훈> 가사지 참조. 발행인은 이무라(井村良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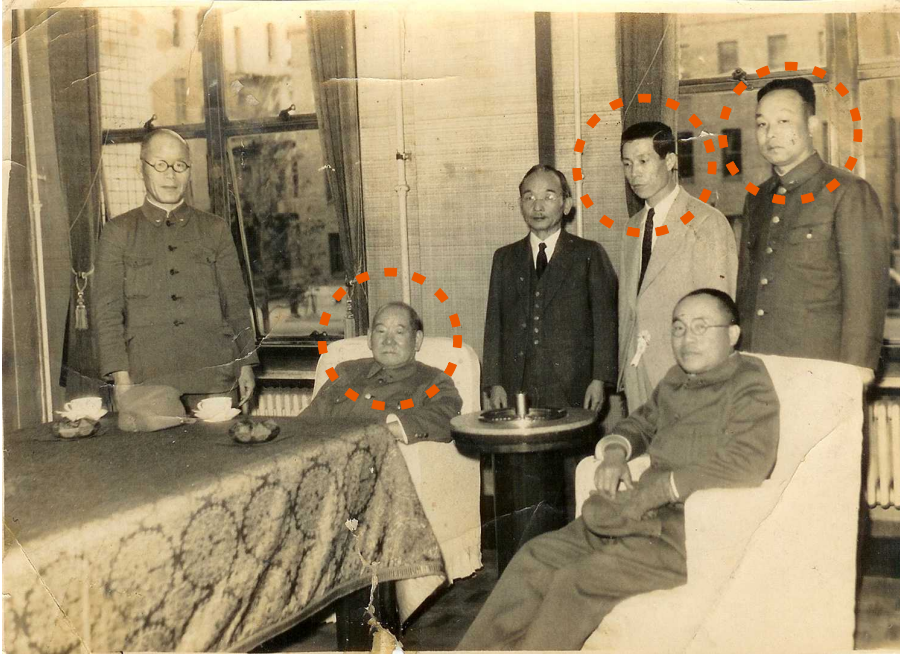
232) 2쪽 각주 7번 참조

표 V-4. 오케레코드 발행 주요 군국가요²³³⁾

제목	연도	작사	작곡	노래	음반번호
지원병의 어머니	194108	조명암	고가 마사오 (古賀政男)	장세정	31052
그대와 나	194201	조명암	김해송	남인수·장세정	31084
강남의 나팔수	194201	조명암	김해송	남인수	31085
신춘 엽서	194201	조명암	김해송	이난영	31085
벽오동	194202	조명암	이봉룡	최병호	31091
진두의 남편	194202	김다인	박시춘	박향림	31091
애국반	194202	조명암	김해송	김정구	31092
아들의 혈서	194203	조명암	박시춘	백년설	31093
병원선	194204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31097
충후의 자장가	194204	조명암	김해송	박향림	31097
즐거운 상처	194205	조명암	박시춘	백년설	31102
고성의 달	194205	조명암	박시춘	최병호	31104
이 몸이 죽고 죽어	194208	조명암	김해송	백년설	31121
남쪽의 달밤	194208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31122
마지막 필적	194209	조명암	이봉룡	이화자	31126
위문편지	194209	조명암	남방춘	백년설	31126
낭자 일기	194209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31127
아세아의 합창	194211	조명암	박시춘	김정구	31137
모자 상봉	194212	조명암	노시로 하치로 (能代八郎)	백년설	31139
결사대의 아내	194301	조명암	박시춘	이화자	31145
망루의 밤	194301	조명암	김해송	백년설	31145
단심옥심	194301	조명암	이봉룡	장세정	31146
아가씨 위문	194303	조명암	이봉룡	장세정	31158
옥토끼 충성	194303	조명암	이봉룡	백년설	31159
옥통소 우는 밤	194303	조명암	박시춘	이화자	31160
산 천리 물 천리	194303	조명암	이봉룡	최병호	31165
부모 이별	194308	조명암	김해송	백년설	31172
조선해협	194308	조명암	박시춘	백년설	31192
이천오백만 감격	194311	조명암	김해송	남인수·이난영	31193
혈서지원	194311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박향림· 백년설	31193
지원병의 집	194312	조명암	박시춘	장세정	T31211

233) 「조선연예협회와 군국가요」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98880&cid=49325&categoryId=49325>

그림 V-22. 미나미 지로와 이철



<사진설명>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와 이철, 이서구가 함께 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연예협회 결성 전후인 1941년 초, 또는 '총후국민훈'을 녹음한 1941년 6월 7일경으로 추정된다.

<사진설명>

銃後國民訓(南次郎)과 總力を擧げて(川岸文三郎)
(음반번호 K5037~K5038) 가사지이다. 1941년 8월 20일 발행. 경성부 다옥정 92, 발행소 帝國蓄音器株式會社京城營業所, 발행인 井村良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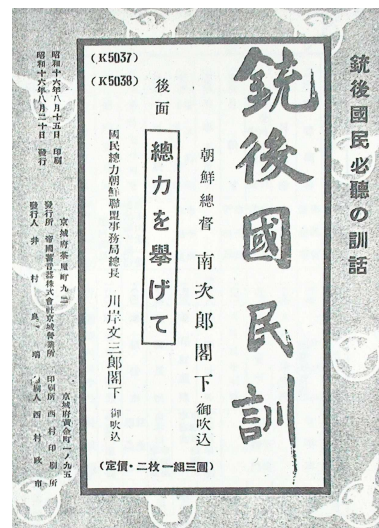


그림 V-23. <총후국민훈> 가사지

VI. 결론

일제강점기의 대중예술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은 당대의 대표적인 흥행사 이철(李哲, 1903~1944)의 활동을 표본으로 삼아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기술로 구축하였다.²³⁴⁾ 이철 한 사람이 당대의 대중 예술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운영했던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의 문화사적 비중으로 인해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모순과 근대 대중예술의 성장 환경을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철을 중심으로 한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데이터 모델은 유성기 음반을 매개로 대중예술 전반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물과 작품의 클래스를 세분화했으며, 향후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기본환경을 설계했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방법론에 따라 분산된 웹 자원의 연계를 추구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웹 자원을 구성해서 지식자원으로 활용했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연구결과물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위키 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이용자는 공개된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학제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학제간 연구로 타 분야의 데이터가 보완된다면 인문정보학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해석과 공동창조의 가능성도 향상될 것이다.

디지털 큐레이션은 대상자원의 수집과 분류, 데이터 모델 개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상자원은 오케레코드 운영자 이철과 연관된 모든 자료이며, 문헌 자료와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포함한 노드 데이터의 총 수량은 4,986건이다. 수집된 자원은 행위자(Actor), 사건(Event), 공간(Place), 시간(Time), 기록물(Record), 음악(Music), 개념(Concept), 웹 자원(webResource)으로 총 8개의 클래스로 구분했다. 행위자는 인물과 단체의 성격에 따라 하위 클래스를 세분화했으며, 특히 음악은 29개의 하위 클래스로 구분하여 향후 전통음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속성 설계는 클래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관계성 설계는 해석의 다양성을 위해서 제한적인 어휘의 사용을 배제하고 단순화

234)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dh.aks.ac.kr/~okehkim/woo/index.php/학위논문>

했다. 데이터베이스로 구현된 링크 데이터의 총 수량은 14,042건이다.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통해 이철의 생애사와 관련한 다섯 개의 주제를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살펴보았다.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로 살펴본 각각의 사건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고, 선행 연구에서는 주목하지 못했거나 단편적인 해석에 머물렀던 자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²³⁵⁾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케레코드 설립에 관한 일본의 오케축음기 상회와 카시오 케이조, 그리고 조선어교육레코드와 이윤재, 왕희필 등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구축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만, 이철을 제외한 기타 인물과 작품은 언급하지 못하고 지나친 내용이 많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오케레코드에서 발행한 전체 작품 2,586개와 관련 인물 519명, 그리고 121개의 단체와 48개의 사건, 56개의 공간정보를 담고 있다. 오케레코드와 관련한 작품 대부분을 검색할 수 있고 각각의 정보는 웹 자원으로 연계되어 있다. 가수, 작사가, 작곡가, 연주가 등 대중예술가는 최대한 외부 웹 자원을 연계하여 풍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자는 자유로운 검색을 통해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해 연구에 활용하거나 산업용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수도 있고, 교육용 예술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철에서 시작한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에 관한 탐구는 유의미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의 양은 당대에 발행된 유성기음반의 20%에 불과하기에 양적으로 풍부하다고 할 수 없다. 광복 이전의 유성기음반 목록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만 이를 시맨틱 데이터로 구성하는 일은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당대 대중예술인 전반으로 확대하여 인물과 작품의 연계는 물론 가족관계와 음악적 전승 관계 등 다양한 인과 관계를 반영한다면 일제강점기 대중예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사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미진한 연구로 아쉬움이 크지만 남은 과제는 후속 연구로 기약하고자 한다.

235) 표 V-5.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 지식요소의 예시, 102쪽 참조

표 V-5.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 지식요소의 예시

지식요소	관련사건	관련성
시온회	이억길 사건	이철과 현송자의 이억길 사건의 배경이자 오케레코드 설립의 원인이 된 모임
이운재	이억길 사건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	시온회 모임의 회장이자 한글학자,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 추정
카시오 케이조	오케레코드 설립	일본인 녹음기술자로 일본, 중국, 한국, 대만의 음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오케레코드 설립의 핵심인물
배정자	오케레코드 설립	현송자의 계모, 이철과 카시오 케이조의 중개자로 추정
금릉인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	오케레코드 문예부장으로 민요발굴 및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의 실무자이고 연희전문 관련 주요인물의 중개자
왕희필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	총독부 경무국 검열과 직원으로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에 관여
나고야극장 공연전단	조선악극단 운영	1939년 3월에 나고야극장에서 공연된 조선악극단의 전단으로 내선일체를 표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록
조선악극단 제1집	조선악극단 운영	1940년 2월에 발행된 조선악극단의 본격적인 일본공연을 위한 홍보잡지로 단원소개 및 이철의 인사말 등이 수록
조선연예(주)	조선악극단 운영 군속가요제작	1941년 2월에 기존의 조선녹음(주)가 개편되면서 흥행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조선악극단 운영을 위한 회사로 추정

【참고문헌】

1. 단행본

- 京畿道警察局 編, 『昭和 13年 京畿道警察局 治安現況』, 京畿道警察局, 1938.
- 김점도 편저, 『유성기음반총람자료집』, 신나라뮤직, 2000.
-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 김현·임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7.
- 동아경제시보사편,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9년판), 東亞經濟時報社, 1939.
- _____,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1941.
- _____,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2년판), 東亞經濟時報社, 1942.
- 류금주, 『도표와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여전도회, 2015.
- 朴燦鎬, 『韓國歌謠史』, 東京: 邑樂舎, 2018.
- _____, 『韓國歌謠史』, 東京: 晶文社, 1987.
- 박찬호·안동립 옮김,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 _____, 『한국가요사』, 현암사, 1992.
- 배연형 외(한국음반아카이브 엮음), 『한국 유성기음반』(전5권), 한걸음더, 2011.
- 배연형, 『한국유성기음반문화사』, 지성사, 2019.
- 徐麗紗, 『從日治時期唱片看臺灣的歌仔戲 上冊【探索篇】』, 國立傳統藝術中心, 2007.
- 안동교회역사편찬위원회, 『안동교회 90년사』, 안동교회, 2001.
- 영명100년사편찬위원회, 『永明100年史』, 공주영명중·고등학교, 2006.
- 王钢·杜军民, 『孙中山及辛亥革命音频文献』, 由文心出版社·河南电子音像

出版社, 2017.

- 윤치호(국사편찬위원회편), 『尹致昊日記 七』, 국사편찬위원회, 1986.
이철 편, 『世界傑作歌曲 白薔薇 第1輯』, 백장미사, 1927.
조선악극단기획부 편, 『조선악극단 제1집』, 조선악극단기획부, 1940.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현경섭, 『현경섭의 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황문평, 『한국대중연예사』, 부르칸모즈, 1989.

2. 논문

- 김인숙, 「유성기음반 해제를 위한 음악적 장르 분류와 방법적 모색」 『한국음반학』 19, 한국고음반연구회, 2009.
김지명,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김현, 「향토문화 하이퍼텍스트 구현을 위한 XML 요소 처리 방안」 『인문콘텐츠 9』, 인문콘텐츠학회, 2007.
김현규, 『3.1운동에 관한 개방적 연계 데이터 구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민경탁, 「작가 금릉인(金陵人)의 음악 인생과 가요사적 업적」 『대중음악』 10, 한국대중음악학회, 2012.
박희, 「세계대공황기미국과일본의대응전략: 구성주의적평가」 『담론201』 제21권 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8.
석지훈, 『1930년대 조선악의 근대적 기획과 보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제국질서와 미시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_____, 『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역사적 고찰 : 구한말·일제강점기 창가와 유행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

-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오충신, 「강점기 언어정책에 대하여-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논문집』 2, 2010.
- 이동순, 「일제말 군국가요(軍國歌謠)의 발표현황과 실태」 『한민족어문학』 제59호, 한민족어문학회, 2011.
- 이준희, 「'대중가요' 아리랑의 1945년 이전 동아시아 전파 양상」 『한국 문학과 예술』 6,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 예술 연구소, 2010.
- _____, 「1945년 이전 일본 대중가요 음반에 나타난 조선인의 활동」 『대중음악』 7, 한국대중음악학회, 2011.
- _____, 「일제시대 군국가요(軍國歌謠) 연구」 『한국문화』 4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 _____,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 임동현, 「1930년대 조선어학회의철자법 정리 통일운동과 민족어 규범 형성」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2014.
- 임승관, 『일제강점기 3차 조선교육령(1938년도)의 시행과 성격』,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조영규, 『協律社와 圓覺社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2006.
- 최희수, 「디지털 인문학의 현황과 과제」 『소통과 인문학』 제13집, 한성대학교 인문화학연구원, 2011.
- 하야시야마 가오리, 『일제강점기 언어정책에 따른 초등 조선어 교과서 내용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한동승,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학 교육과 콘텐츠」 『인문콘텐츠』 42, 인문콘텐츠학회, 2016.
- _____, 「문화기술과 인문학」 『인문콘텐츠』 27, 인문콘텐츠학회, 2012.
- 한동승, 최희수, 김진규, 두일철, 김상현 「미디어와 문화기술 그리고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27, 인문콘텐츠학회, 2012.
- 한정호, 「정인섭의 아동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9권, 현대

문학이론학회, 2017.

홍정욱, 「디지털기술 전환 시대의 인문학-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을 통한 고찰」 『인문콘텐츠』 38, 인문콘텐츠학회, 2015.

3. 신문기사, 잡지기사, 기타 문헌, 음반

<신문기사>

류금주, 「연희전문학교와 서울 안동교회의 묘한 관련」 『한국장로신문』, 2016년 6월 4일

<http://www.jangro.kr/Jmissions/detail.htm?aid=1464661544&HPSESSID=acdufkrq>

유선희, 「일제강점기 영화 ‘홍행 참패 징크스’ 깰까」 『한겨레신문』, 2015년 7월 22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701454.html>

이준희, 「‘조선악극단’ 마지막 증인, 강윤복의 일생」 『오마이뉴스』, 2015년 5월 18일, <http://omn.kr/dpu4>

_____,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시스터즈 리더 아세요?」 『오마이뉴스』, 2016년 6월 26일, <http://omn.kr/kbd4>

최승현, 「김정구 '낙화삼천' 부르자... 영친왕 뺨엔 눈물이 주르륵」 『조선일보』, 2010년 2월 25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25/2010022500019.html

「괴물 배정자,菩薩? 夜叉?」 『매일신보』, 1916년 12월 8일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94023466

「近日 落城될 韓靑뽕뵙」 『동아일보』, 1935년 5월 22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35-05-22&officeId=00020&pageNo=1#>

- 「레코-드 取締 規則을 發表」 『동아일보』, 1933년 5월 23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33-05-23&officeId=00020&pageNo=2#>
- 「레코-드 販賣 年 二百萬枚, 風俗壞亂과 治安妨害 等 取締 規則 制定中」 『조선중앙일보』, 1933년 5월 10일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jj_1933_05_10_v0002_0260
- 「舞踊詩 扶餘回想曲」 『국민신보』, 1941년 6월 1일
http://dh.aks.ac.kr/~okehkim/cgi-bin/Images/okeh/국민신보_부여회상곡_19410601_9.jpg
- 「白薔薇第一輯發行」 『동아일보』, 1927년 2월 5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27-02-05&officeId=00020&pageNo=5#>
- 「本社主催讀者慰安會의 一場面(저고리씨스터즈)」 『동아일보』, 1940년 3월 30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40-03-30&officeId=00020&pageNo=5#>
- 「오케-레코-드 朝鮮盤이 新年의 太陽가치 半島에 出現」 『동아일보』, 1933년 2월 1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33-02-01&officeId=00020&pageNo=2#>
- 「尹致昨氏結婚」 『매일신보』, 1919년 5월 14일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94071932
- 「隱退하얏든 裴龜子孃 劇壇에 再現」 『동아일보』, 1928년 4월 17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28-04-17&officeId=00020&pageNo=3#>
- 「義將은 死언정 不屈」 『공립신보』, 1908년 11월 4일,
http://db.history.go.kr/id/npgr_1908_11_04_v0001_0170

- 「李命夏氏 畧歷」 『독립신문』, 1921년 2월 25일
- 「李王邸에 參上-朝鮮樂劇團演奏」 『매일신보』, 1943년 5월 26일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95179815
- 「인생극장」 광고, 『조선일보』, 1937년 3월 9일
http://dh.aks.ac.kr/~okehkim/cgi-bin/Images/okeh/인생극장_조선일보_19370309201.pdf
- 「仁川音樂의 밤」 『조선일보』, 1930년 5월 24일
http://dh.aks.ac.kr/~okehkim/cgi-bin/Images/okeh/lee_cho_19280928.pdf
- 「壯!! 오케-朝鮮語教育레코-드」, 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
<http://dh.aks.ac.kr/~okehkim/cgi-bin/Images/okeh/okehEduAd01.pdf>
- 「조선악극단 15주년 공연」 『경향신문』, 1947년 4월 9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47-04-09&officeId=00032&pageNo=2>
- 「朝鮮樂劇團 東京서 大好評」 『동아일보』, 1939년 5월 13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39-05-13&officeId=00020&pageNo=5#>
- 「朝鮮樂劇團 映畫製作에 進出」 『매일신보』, 1941년 4월 6일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95077993
- 「朝鮮演藝協會-關係者卅餘名網羅今日結成式」 『매일신보』, 1942년 1월 27일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95065244
- 「仲秋佳節月明夜에 嘉俳音樂大會」 『조선일보』, 1928년 9월 28일
http://dh.aks.ac.kr/~okehkim/cgi-bin/Images/okeh/kjb_cho_19280928.pdf
- 「지원병의 어머니」 광고, 『매일신보』, 1941년 7월 28일

- 「青山哲氏 別世」 『매일신보』, 1944년 6월 21일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95215455#
- 「銃後國民訓, 南總督 레코-드 吹込」, 『매일신보』, 1941년 6월 8일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95089159
- 「한글記念會合」 『동아일보』, 1935년 10월 28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35-10-28&officeId=00020&pageNo=4#>
- 「한글創製의 苦心」 『동아일보』, 1935년 10월 28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35-10-28&officeId=00020&pageNo=4#>
- 「玄映運과 鑛訟」 『매일신보』 1916년 5월 5일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94011417
- 「玄鼎健氏永眠」 『동아일보』, 1933년 1월 1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33-01-01&officeId=00020&pageNo=2#>
- 「玄海灘激浪中에 青年男女의 情死」 『동아일보』, 1926년 8월 5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26-08-05&officeId=00020&pageNo=2>
- 「関西発レコード120年 (埋もれた音と歴史)」 連載記事, 『神戸新聞』, 1999년 1월
https://crd.ndl.go.jp/reference/detail?page=ref_view&id=1000153515

<잡지기사>

金陵人, 「朝鮮語教育레코오드 吹込 製作의 經過」 『한글』 (3권 10호),

- 조선어학회, 1935년 12월호
- 吳壽山, 「카페- 夜話, 한숨지는 孔雀들」 『별건곤』 제55호, 1932년 9월호
http://db.history.go.kr/id/ma_015_0520_0250
- 이동순, 「일제시대 조국의 노래를 지켜냈던 이철의 삶과 예술 그리고 조국」 『월간조선』, 2003년 7월호
- 조관희, 「사연따라 연예 반세기(演藝 半世紀)…그 시절 그 노래(8)」, 『선데이서울』 제228호, 1973.2.2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14550001>
- 草兵丁, 「六大會社 레코드戰」 『삼천리』, 1933년 10월호
http://db.history.go.kr/id/ma_016_0380_0180
- _____, 「百八念珠 만지는 裴龜子 女史」 『三千里』 제12권 5호 , 1940년 5월호
http://db.history.go.kr/id/ma_016_0750_0320
- 聽又聽生, 「沈滯해가는朝鮮레코-드의 運命」 『朝光』 1935년 11월호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48032235
- 橫田生, 「東洋、大阪兩蓄音器會社の合併談」 『蓄音器世界』, 蓄音器世界社, 1918년 4월
- S.P.R, 「舞踊詩, 扶餘回想曲」 『國民新報』 제113호 6권, 1941년 6월호
http://dh.aks.ac.kr/~okehkim/cgi-bin/Images/okeh/국민신보_부여회상곡_19410601_9.jpg
- 「假想夫婦 誌上 大披露宴」 『별건곤』 제26호, 1930년 2월호
http://db.history.go.kr/id/ma_015_0240_0360
- 「君と僕」를 말하는 座談會, 『三千里』 제13권 9호, 1941년 9월호
http://db.history.go.kr/id/ma_015_0240_0360
- 「機密室, 우리 社會의 諸内幕」 『三千里』 제12권 9호, 1940년 10월호
http://db.history.go.kr/id/ma_016_0790_0010
- 「萬國夫人싸론-절세미인 구성안」 『萬國婦人』 제1호, 1932년 10월호
http://db.history.go.kr/id/ma_019_0010_0040

「女社長 裴貞子 登場, 東劇의 신춘활약은 엇더할고」 『三千里』 제10권 1호,
1938년 1월호

http://db.history.go.kr/id/ma_016_0640_0320

「二大 財閥의 벨딩 爭霸戰, 韓靑· 永保의 兩大陣營」 『三千里』 제7권 6호,
1935년 7월호

http://db.history.go.kr/id/ma_016_0480_0290

<기타 문헌>

「국수 한 사발」 가사지, 오케레코드, 1933.8.15.

「內鮮一體의 朝鮮樂劇團」 전단, 名古屋劇場, 1939년 3월

「미녀도」 가사지, 오케레코드, 1939.1.20.

「연애특급」 가사지, 오케레코드, 1937.2.10.

「오조」 가사지, 오케레코드, 1940.1.1.

「이철 배재고보 학적부」, 배재고등학교, 2009.

「이철 연희전문 학적부」, 연세대학교, 2009.

「이철 제적부」, 종로구청

「조선녹음주식회사」 『조선총독부관보』 제3354호, 조선총독부, 1938년
3월 25일 자

「조선악극단」 『조선총독부관보』 제4306호, 조선총독부, 1941년 6월
6일 자

「조선연예주식회사」 『조선총독부관보』 제4261호, 조선총독부, 1941년
4월 9일 자

<음반>

「군국가요 40선 - 일장기 그려 놓고 성수만세聖壽萬歲 부르고-」, 민족
문제연구소·유정천리, 2017.

「유성기로 들던 가요사(1925~1945)」, 신나라레코드, 1992.

4. 웹페이지

<사전류>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http://folkency.nfm.go.kr/kr/main>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도서출판 보고사, 2012.

<https://terms.naver.com/list.nhn?cid=60486&categoryId=60486>

전경옥,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https://terms.naver.com/list.nhn?cid=56785&categoryId=56785>

한국학중앙연구원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위키백과』, Wikimedia Foundation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

<검색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역사통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http://koreanhistory.or.kr/>

국립중앙도서관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검색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dataSearch/data_wm.jsp

국립중앙도서관편,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http://gb.nl.go.kr/search.aspx>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편, 『유성기음반 검색시스템』,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http://www.sparchive.co.kr/v2/index.php>

<연구사업>

고려대학교, 『형성기 근대 대중가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한국학진흥사업단, 2014.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12>

동국대학교, 『한국 유성기음반 해제와 정보 웹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한국연구재단, 2008.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8895&res=y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Main.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8&cp_code=cp0903

<기타>

김현, 「인문정보데이터베이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수업자료 (2017)

<http://dh.aks.ac.kr/~okehkim/cgi-bin/Images/okeh/D1-데이터베이스개론.pdf>

_____, 「Semantic Data SQL Script」,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교실
http://dh.aks.ac.kr/Edu/wiki/index.php/Semantic_Data_SQL_Script

_____, 「Semantic Database Visualization」,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교실

http://dh.aks.ac.kr/Edu/wiki/index.php/Semantic_Database_Visualization

- ____, 「XML의 이해」, ‘전자문서와 하이퍼텍스트’ 수업자료(2018)
<http://digerati.aks.ac.kr/DhLab/2018/101/tutorial/X3-XML의이해.pdf>
- 김현규, 「3·1운동 데이터 모델」,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http://dhlab.aks.ac.kr/~pinocchio/wiki/index.php/3.1운동_데이터_모델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culturecontent.com/>
- changpian, 「大阪蓄音器と樫尾長右衛門」 『備考欄のようなもの』,
2012년 2월 7일
<http://changpian.hatenablog.com/entry/2012/02/04/195858>
- changpian, 「再び樫尾慶三について、そして朝鮮・台湾のオーケレーレコード」
『備考欄のようなもの』, 2012년 2월 7일
<http://changpian.hatenablog.com/entry/2012/02/07/105847>

Abstract

A study on Digital Curation Model of pop art activitie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Lee Chul, president of Okeh Record -

KIM KWANG WOO

Major in Cultural Informatics · Human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digital curation model which demonstrates various aspects of the pop art activitie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It focuses on the representative showman Lee Chul, and helps to understand the context and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kinds of art activities and social backgrounds of the period and also aims for effective usage of these information.

Lee Chul(李哲, 1903~1944) is a representative showman in Japanese colonial period who ran the Okeh Record and Chosun Music Club(朝鮮樂劇團). He led the music market by competing with large music companies under poor conditions, and also ran the most popular performance group crossing Korea, Japan, China and Manchuria. However he was also a figure who had a dark side, choosing to cooperate in the Japanese war which represents the limit of pop art activities of that period.

Through this study, the ontology was designed that deals with the complex network of surrounding figures of Lee chul to fully understand the his life and the digital curation model was organized with visualizing the data. This model helped discovering the new

knowledge and provided the possibility of various creative interpreta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exiting ones.

The model designed in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figures of pop artists, but also considered the extensive use in various other topics. The model will expand its use by the collaboration of researchers who conduct study about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lso will contribute to creating contents that are useful for the relevant industry.

Keywords : Lee Chul(李哲), Okeh Record, Chosun Music Club(朝鮮樂劇團), Japanese colonial period, pop artists, ontology, digital curation